

건축사

大韓建築士協會誌



圖-1974-

金山寺 彌勒殿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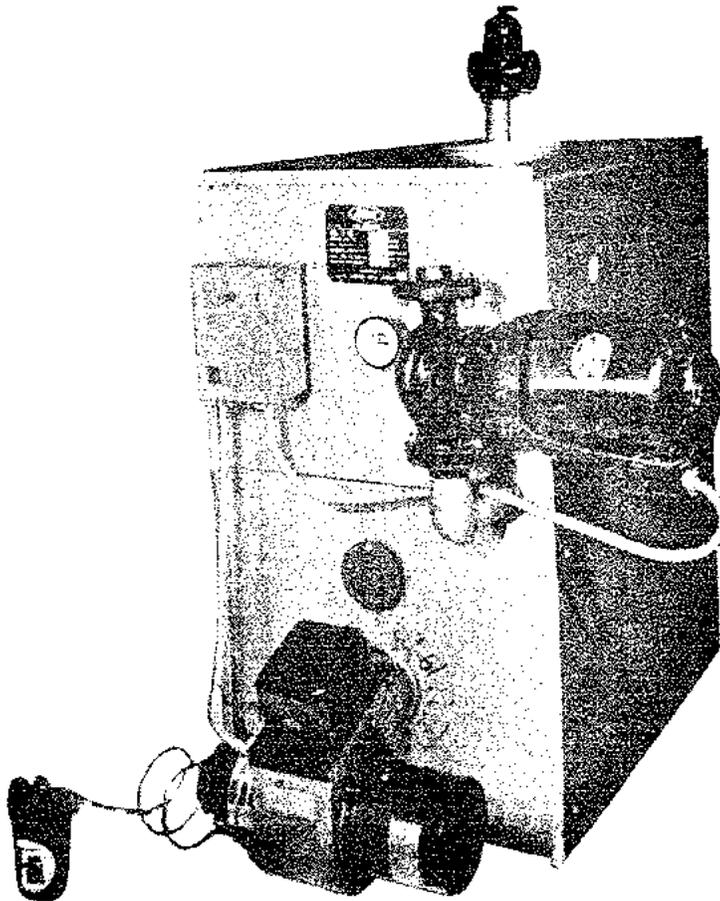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플



유티카 商事

서울 · 中区 忠武路 4 街 126 의 1 號
進洋商街 라 102 號

TEL. 26-2026, 2807

100億弗 輸出을 向한 工場建設은
 믿고 쓸 수 있는
 大都콘크리트 製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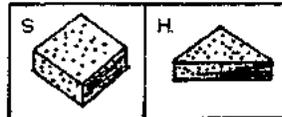
증기양생. 세멘벽돌. 블럭

보도블럭. 콘크리트관

속빈 세멘트블록



歩道블럭



세멘트벽돌



鉄筋콘크리트管(下水道用)



大都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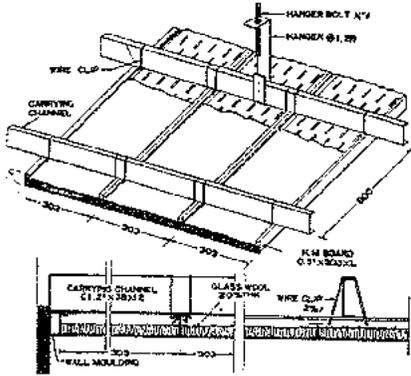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水標洞 35의 6
 工場：議政府市 虎院洞 357

☎ 26-9735
 ☎ 2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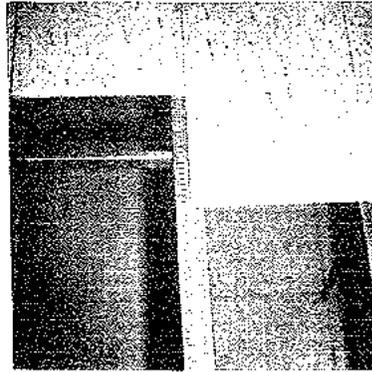
建築近代化에
寄與하는

韓一의 不燃建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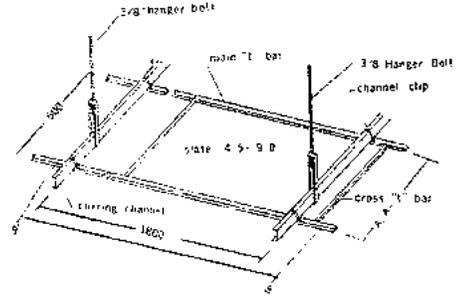
H. M 보-드



S. M Bar



G-T-Bar



其外 M-Bar H-Bar SH-Bar T-Bar HT-Bar 等 多様な製品을 生産 普及하고 있습니다.

輕量形鋼 (LIGHT G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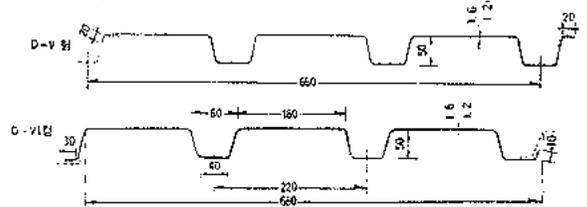


▶ 輕量C形鋼 ▶ 輕量C形鋼 ▶ 輕量L形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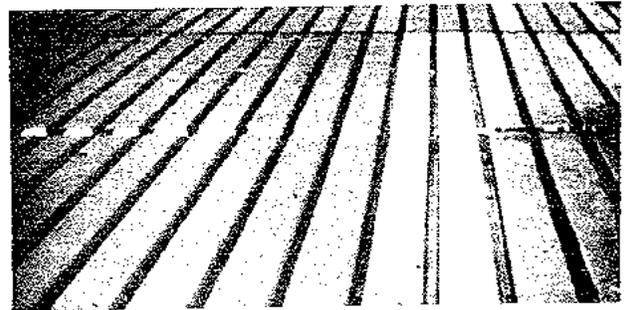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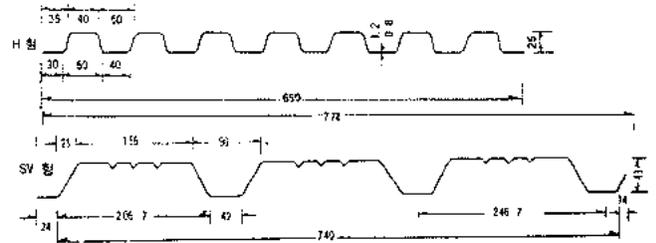
營業種目

- H. M 보-드
- 各種 輕量鐵骨天井틀
 - ▶ M-Bar ▶ SM-Bar
 - ▶ H-Bar ▶ H. T-Bar
 - ▶ T-Bar ▶ SH-Bar
 - ▶ G. T-Bar
- HI 移動칸막이 (PARTITION)
- 各種 竃다類
 - ▶ 스프링식 ▶ 電動式 ▶ 파이프 ▶ 원도
- 키스톤 플레이트 (Keystone Plate)
 - ▶ S. V 形 ▶ H 形
- C形輕量形鋼 (Light Gage)
 - ▶ 輕量C形鋼 ▶ 輕量C形鋼
 - ▶ 輕量L形鋼
- 데크 플레이트 (Deck Plate)
 - ▶ D. V 形 ▶ D. V1 形

데크 플레이트 (DECK PLATE)



키스톤 플레이트 (KEYSTONE PLATE)



不燃建材의 톱 메이커

韓一建材工業株式會社



本社
代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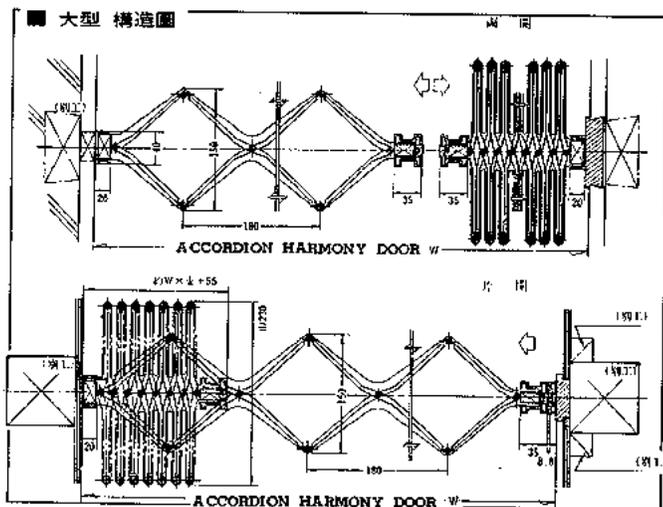
서울特別市冠岳區노랑진동46-6 Tel. 69-1744, 5336, 68-1605, 0228
釜山 ③0437, 大邱 ②4718, 光州 ②1878, 大田 ③2569, 原州2038

DONGWON ACCORDION

HARMONY DOOR

2 in 1 의 벽

-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 大와 小를 兼하는 移動하는 칸막이
- 스므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 故障이 없고 永久的인 堅固한 製品



實用新案特許 第8091號
 意匠特許 第9924號
 商標登 録第26010號

“동원기계” 아코디온 하-모니 도아



東原機械商社

본사및공장: 서울特別市城東區新沙洞 337-11
 본사 공장: ☎ 54-0132
 연락사무실: ☎ 23-2401
 부산 지사: ☎ 43-6856



오리표싱크

당신의 設計와 당신의 住宅을 더욱 빛나게 하는 標準化된 規格, 格調높은 오리표 싱크는 建築士 여러분의 設計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品 目	規格(單位:%)	Bowl (單位:%)	品 目	規格(單位:%)	Bowl (單位:%)
SS-600 R(L)	600×550×800	350×440 (1個)	ST-800	800×550×800	
SS-600 C	600×550×800	350×440 (1個)	ST-900	900×550×800	
SS-800 R(L)	800×550×800	350×440 (1個)	SC-730	730×730×800	
SS-900 R(L)	900×550×800	450×440 (1個)	SG-600	600×550×800	
SS-1000 R(L)	1000×550×800	550×440 (1個)	SG-700	700×550×800	
SS-1200 R(L)	1200×550×800	550×440 (1個)	PSS-1100 R(L)	1100×500×800	500×400 (1個)
SS-1500 C	1500×550×800	550×440 (1個)	PST-800	600×500×800	
SD-900	900×550×800	350×440 (2個)	PSG-600	600×500×800	
SD-1200 R(L)	1200×550×800	350×440 (2個)	PSC-680	680×680×800	
SD-1500 R(L)	1500×550×800	350, 550×440 (各1個)	SPT-A	2200×550×800	550×440 (1個)
ST-600	600×550×800		SPT-B	2100×900×800	650×440 (1個)
ST-700	700×550×800		SPT-C	2100×900×800	650×440 (1個)

* 73년도 서울시(싱크류) 수출품 생산업체로 지정.

오리표싱크
製 造 元



서 일 공 업 사 TEL. (63) 3461~3

스프레이 코트

SPRAY COAT

耐火断熱性

各種 工場·體育館·學校·劇場等
모든 建築物의 耐火·断熱·吸音
·防音·結露의 效果的인 防止를
위한 것이라면

한국스레트의
스프레이 코트

우선 연락을 하여 주세요.
진절히 안내하겠습니다.

吸音 및 遮音性

結露 防止

止防



한국스레트

(交) 22-2141~5 24-2441~3
直 28-8402

月刊「建築士」5月号(通卷 65号)

目 次

本 分	韓 昌 鎮... (2)
■ 特輯 · 韓國 建築界의 來日	
• 建築界의 來日의 展望	宋 啟 求... (4)
• 建築士의 將來	鄭 寅 國... (6)
• 建築士와 建築 · 建設技術者의 限界	金 枝 泰... (8)
• 建築士의 職能과 社會的責任	李 明 煥... (10)
建築法 改正의 方向 및 改正	
建築法令에 關한 意見에 對하여	金 永 哲... (12)
■ 各國 建築士 環境資料紹介	
2. 佛蘭西 篇	姜 錫 元... (23)
나의 建築觀	崔 昌 奎... (27)
새로운 工法 案内	(58)
• 韓國의 古建築 ③ 金山寺 篇	(50)
• 會員作品	
馬山 · 北菱冷凍食品工場	車 景 淳... (33)
國立서울生絲檢査所 (外一篇)	金 宗 根... (38)
• 海外作品	
Arts Center (外一篇)	(41)
全國 建築許可 統計	建設部... (64)
建築法 質疑 応答	(61)
新建材 시리즈 ①	(67)
建築界의 一瞥	(68)
建 議 書	(71)
月間協會動靜	(72)
會員動靜	(75)
編輯後記	(80)

表紙: 金山寺 彌勒殿

攝影: 金 鴻 植

編輯委員會 · 委員長 吳雄錫 · 委員 金仁錫, 金正基, 馬春景, 宋鍾爽, 俞景哲,
劉熙俊, 尹道根, 李廷德, 李昌敏.

本 分

韓 昌 鎮

會長

누구나가 自己의 分數를 알고 行한다는 것은 하나의 良識과 理知에 屬하는 人間됨됨을 말하는 것 일게다.

스스로 本分을 지켜주는 國民과 그것을 알고 그 國民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골뎠히 생각해 주는 元首가 있을 때 한 나라는 福되고 참된 國家의 面貌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 所謂 G.N.P 를 넘어선 G.N.W (Gross National Welfare)가 보장된 나라의 面貌라는 뜻이다. 바로 그러한 마음 가짐과 義務를 알고 行하는 바탕은 곧 아끼자끼한 단란과 協同과 團結을 낳는 人間과 人間이 모여 사는 한, 體制上의 가장 으뜸가는 MORAL 이라는 것은 分明한 事實일 것같다.

그리고 그렇게 나도 믿고 있다.

아버이가 어버이답게 어버이로서의 本分을 저버리지 않고 자식들이 자식답게 자식으로서의 本分을 알고 行할 때 비로소 한 家庭의 단란과 秩序는 整然하게 維持될 수 있는 것은 當然하다.

釈迦問答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 各者가 足함을 알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 제할 일을 알고 行함이 무릇 일들의 根本이라고 하셨다.

한 體制속의 個人은 分明 全體의 要素이며 全體의 한 分子이다. 그 要素나 分子들이 올바른 良識으로 제 本分을 다할 때 거기에 무슨 法이 必要하며 무슨 不滿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是非가 생길 수 있겠는가...

各者에겐 各者로서의 立場이 있을 법하다. 自己의 立場을 分問할 줄 아는데서 남의 立場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寬容도 妥協도 成立된다.

모든 不条理나 是非는 흔히 各自의 立場의 差異

에서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自己의 分數를 알고 足함을 안다는 것은 孔子가 말씀하신 安分知足이라는 것과 同一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극히 野慾이 있을 수 없는 情極的인 思考方式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體制에 屬한다는 意味에서는 그것은 嚴然히 自己 本分을 意識한 올바른 所行으로 여겨진다.

우리 社會의 不条理와 病弊로 생각할 수 있는 寒心한 여러가지 일들중에 제 本分을 다하고 올바른 良心으로 生活을 營為해 나가는 者가 愚者取扱을 當하고 잔악하고 교활한 者, 남을 짓밟으면서 自己의 野慾을 채우는 者가 勝者로 自勉하는 일이다. 그래서 惡質과 良質을 축출한다는 말이 있고 現代에서는 君子는 바보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思考方式이 있을 수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는 反體制分子도 있을 수 있다.

果然 우리 體制一, 그야말로 서로가 힘을 모우고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의 疎外에서 벗어나야 하는— 속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不信思潮가 嚴存하는 것은 무슨 意味일까?

自己의 分을 알고 全體를 意識하는 아량에서 自己를 인식하면서 제 本分을 다할 수 있는 感激的인 그날이 하루바삐 있어 주었으면.....

그러한 일들을 가끔 애타게 생각한다.

그것이 過分한 慾心일까?

眞情 그것은 期待밖에 일일까?

우리는 그만한 교육도 良識도 覺悟도 없는 모임 일까?

特輯

建築界의 來日

- 建築界의 來日의 展望 • 宋政求
- 建築士의 將來 • 鄭寅國
- 建築士와 建築·建設技術者와의 限界 • 金枝泰
- 建築士의 職能과 社会的 責任 • 李明煥

建築界의 來日의 展望

宋 旼 求

(宋旼求建築研究所 代表)

만일에 來日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必然的인 過程을 더듬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단조로운 생활속에서는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人間은 오히려 앞길을 비극으로서 끝을 맺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未來를 내다보지 못하게 한 神의 섭리가 고맙기만 하다.

특히 급변하는 世界情勢속에서의 우리들의 來日은 어떻게 展望이 가능한가. 필자는 經濟를 모르기 때문에 建築界의 經濟的 측면에서의 來日을 展望하지도 못하지만은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開發途上國家로서 언젠가는 先進國의 대열의 한 구성을 차지 하기 위하여 애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에는 우리들이 노력하여야 할 일,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또 현재의 곤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앞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 또 來日을 展望한다는 것은 새로운 希望에서 마음을 가다듬는데 오히려 뜻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통도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나는 생각한다.

學界에서는 많은 博士를 배출하고 있는 밝은 소식이며, 建設業界 역시 많은 業체가 해외로 진출하므로써 새로운 施工技術을 습득하여 반세기 이상 뒤졌을 우리들의 技術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문제는 다른 측면에 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에 있으며, 來日을 展望하느니 보다 來日의 向方을 定立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우리들이 創作함에 있어서 作品이 지녀야 할 요소가 美的價值와 時代精神이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으며, 時代精神 즉, 좁은 뜻에서는 그 時代를 영도하는 思想이 모든 것의 으뜸가야 할 일이 1945년 2次世界大戰의 비극의 막이 내린 후 약 30년 동안 現代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物質文明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變化의 폭과 時間의 흐름이 빠르고 넓음으로서 人間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파 놓은 깊은 斷崖로서 文明으로부터 반대로 遊離당하고 말아 버렸다.

經驗科學이 이루어 놓은 頂點은 人間의 思想的空白상태의 폭을 넓혔으며 識者들은 人間이 救濟받을 길은 영영 없어졌다고 絶叫마저 하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자. 고도의 기술의 산물인 대부분의 공업은 그의 公害라는 害毒으로 生物들을 차츰 滅種시키고 人間을 病들게 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좀먹기 시작하여 人間을 幸福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物質文明의 힘은 人間의 統制力을 잃어 버리게 하고, 人間을 위협하며,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와 버렸다.

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存在한다」라는 말을 남긴지 200년 人間은 理性에서만 真理를 찾을 수 있고 經驗에서는 物質文明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절국 秘漠과 같은 不毛의 人間의 마음에는 꽃이 피기에는 너무나도 아득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어떤 學者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自然的인 存在인 人間의 內面에서 작용하는 위대한 反自然的인 힘이 있으나 그것이 바로 理性이라는 것이며, 이의 產物로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制度와 경교한 體系에 따라서 오히려 人間은 속박되어 變化에 대응할 수 없게 僵化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芸術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ubism 이 그러하듯이 理性이 機械美와 더불어 오랫동안 建築이라는 造形藝術을 지배하여 왔으며, 大戦 후 人間性이 소실되어감과 思想의 再建의 절박함을 느끼는 속에서 CIAM의 老匠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은 오히려 人間生活의 荒蕪마저 予見 되었기 때문에 一團의 젊은 建築家들은 이것을 崩壞시키고, Team 10을 조직하였으며, 또 第一世代的 巨匠들의 죽음으로서 차츰 建築界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Thomas Creighton 은 그것을 chaos 現象, 天地創造때의 混沌現象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가지 뚜렷한 것은 思想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일찌기 Bergson 은 理性과 經驗을 包括하는 生命에서 그의 哲學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Descartes 가 말한 意識함으로서 存在한다는 그 意識의 深層에 Husserl 은 그의 現象學의 發판을 據으로서 다시 말하여 意識은 生命에서 湧트는 것이며 現象學의 밑바탕은 그것을 基盤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또 Husserl 의 靜的인 意識의 分析에서 Heidegger 의 動的인 把握으로 출발한 存在論은 Jaspers, Sartre 에 이르기 까지 意識함으로서 存在하는 자기 자신, 즉 実存에서 思想의 基盤을 두자는 이 모든 것이 人間의 生, 또는 存在를 肯定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思想에 근거를 둔 建築藝術의 一連의 흐름은 비록 그것이 chaos 現象 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哲學과 더불어 珠玉같은 作品을 남겨다 주었으며,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 그들의 靈感의 啓示를 泐려 받았다는 것이다.

Wright 는 自然의 有機的인 生命의 모습을 Höring 은 生의 哲學을 또 Kahn 또한 Bergson 의 生命의 哲學을 그들의 造形藝術을 통하여 우리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과거의 機械美를 대신하여 Avant garde 藝術은 technology 를 적극 藝術에 결부시키려는 消極的인 태도와 既存思想을 바탕으로 한 藝術을 否定하는 非藝術의 藝術 이라는 繪畫, 彫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積極的인 태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目的藝術인 建築에서는 目的마저 否認할 수는 없으나 人間이 지니고 있는 가장 人間的인 矛盾性과 複雜性을 肯定하며 表現하자는 Robert Venturi 의 創作 태도는 또한 무엇을 말함이었을가.

Rickert 가 말하기를 認識이라는 것은 模寫가 아니고 改造이며 單純化나 라고 하였는데 既存哲學에서의 認識의 定義를 否定하고 現象學的인 複合性에 대한 肯定은 人間的인 것을 전폭으로 받아 들이지는 데에 뜻이 있다고 본다.

또 Venturi 가 지적한 Goedel 의 不完全性定理라 함은 算術의 合理大系가 矛盾이 없다는 것을 그 大系속에서는 證明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1931년 Kurt Goedel 이 證明하였는데, 이것은 普遍性和 必然性을 지녀야 할 數學 자체가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 서서 理性에 立脚한 藝術은 終幕을 내려야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Le Corbusier 의 Ronchamp 寺院을 理解하였고, Neo-Classicism 의 感傷主義의 絶박함을 알았으며 Alvar Aalto, Hans Scharoun 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들 주위를 살펴 볼 때 過誤도 많았으나 그러나 지나간 모든 것을 綜合하고 來日을 展望할 때 우리들 앞에도 빛나는 希望은 틀림없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思想的 空白 思想的 危機 思想的 再建을 말하기 이전에 思想의 貧困을 느끼게 되고 來日의 向方의 定立을 위하여 人間의 尊嚴性 人間性의 回復에 대하여 모든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人間에게 建築家로서 무엇을 奉仕하였는가, 또 奉仕할 것인가 오늘도 來日도 思索하며 省察하여야 될 것이다.

建築士의 将来

鄭 寅 国

(韓國建築家協會長)

建築士의 社会的職分의 定立過程은 세 段階로 볼 수 있다.

첫번 段階는 그 社会的職分이 未分明하여 서로서로의 紐帶關係도 없고 社会的処遇도 原始的雇傭關係의 限度를 벗어 나지 못한 段階로 韓國에서는 建築士法이 分布되기 以前 까지의 狀況이며,

둘째 段階는 法的으로 그 社会的職分을 保障받으며, 共同利益을 위한 同一職種의 職業團體가 組織이 되고 建築主와 平等한 立場에서 報酬에 對한 雙方合議契約이 締結되는 段階를 말하는 바 이는 現在의 韓國建築士가 處해 있는 段階이다.

셋째 段階는 위의 둘째 段階를 法的社会的 職分確立期라고 치면 이 마지막 段階는 自然的 社会的 職分確立段階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職業의 社会的 職分이 保障받고 認定받게 되는데는 根本적으로 두개의 다른 種別을 嚴格히 区分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單純히 法的인 處理로 끝마칠 수 있는 職種 例를 들어 肉體勞動, 技術提供, 一般事務職등과 法的限界를 넘어서 그 社會에서 그 職業에 對하여 營爲의 安易性和 信賴와 尊敬을 받을 때 參與 社会的 職分이 確立되었다고 믿어지는 職種一, 많은 知的活動家의 들을 区分하여야 한다.

韓國의 建築士가 이 最終의 段階까지 이르게 되려면 거쳐야 할 많은 難關이 있다. 그 難關이란 앞으로 韓國建築界에서 必然적으로 變化할 狀況에 對해서 建築士들이 能히 自己를 對處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憂慮이다. 将来 韓國建築界의 變化할 狀況을 予測하기는 매우 힘들으나 世界의 建築潮流와 견주어서 다음 몇개의 事項을 指摘할 수 있다.

● 建築士의 數의 增大와 建築業務量間의 不均衡.

당분간은 韓國經濟成長에 힘입어 이 間의 調和는 維持될 것이지만 早晚間에는 建築業務量은 建築士의 數의 增加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質에 대한 偏重이 더욱 甚해지고 自然淘汰現象은 지금보다 더 큰 幅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 建築에 對한 社会的 要求는 더욱 多樣해지고 次元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建築士들은 지금과 같이 限定된 智識과 技術의 內容만 가지고는 이러한 要求를 充足하기 힘들게 된다. 가장 쉬운 住宅의 例를 들어라도 서울市內 到處에 散在해 있는 똑 같은 額型이 아무 芥리질 없이 橫行하고 있는 事例만으로 오늘의 建築士의 思考限界와 職分自覺力을 짐작케 하며, 이러한 狀況이 앞으로 2, 3年 더 持續되리라 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激動하는 世界建築潮流는 우리 韓國海岸의 모래알을 스쳐가는 程度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얼마 안가서 그 狂暴한 勢力은 本土로 밀어 닦치게 될 것이 分明하다. 부부탈리즘, 메타브리즘, 네오·내쇼내리즘, 네오·파르코, S·F 構造, Pre-Fab 構造, 콤퓨터디자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建築概念은 우리들이 精神을 차려 받아들이기 전에는 미쳐버리기 알맞은 狂亂의 世代이다.

그러므로 賢明한 將來의 建築士는 우선 自己의 創作活動의 基盤을 整地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世代에 對處할 準備를 갖추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自己의 個性을 감안한 建築哲學을 樹立하는데 온 힘을 傾注하여야 할 줄 안다.

● 顧客・建築主의 眼目은 점점 向上하여 建築士들이 批判받는 정도는 더욱 苛酷해진다. 물론 이때까지도 建築主들은 建築士들을 무시할 程度로 自己主張과 要求를 내세우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主張을 建築士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解決하였는지를 採点할 能力은 없었다. 그래서 大部分의 顧客은 充實히 自己意見에 따른 것이면 滿足하였으나 앞으로 이들의 倍加되는 知的 水準은 그 以上の것을 充足시켜 주기 前에는 滿足할 줄 모르게 된다. 왜 그러나하면 그들의 現實의 要求는 몇 年 안가서 社會情勢의 變化와 生活相의 變貌에 따라서 쉽게 不滿스러운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建築士는 W, Gropius 가 교묘하게도 表現하여 教訓한 建築家は 奉仕者인 同時에 指導者, 라는 語句의 眞實함을 알아야 할 段階에 直面하게 된다. 또한 길을 나아가서 機能의 創造者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비로소 建築士는 人類社會에 功獻하는 本然의 社會的 職務를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 建築批評의 風土는 점점 高揚되어 建築士들의 作品은 이제는 個人的 活動의 產物로서가 아니라 社會의 한 部分을 차지하는 創作物이 된다. 韓國建築界에는 아직 좋은 의미의 建築批評風土도 造成되고 있지 못하다. 온전한 建築批評이 이루어 질려면 세 가지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즉 對象이 될만한 建築이 具體化되어야 하며, 批評이 받아들여질만한 建築風土가 마련되어야 하며, 批評할 水準의 能力을 갖춘 人士가 그 社會에서 許容되어야 한다. 이 條件 가운데 批評의 對象이 될만한 作品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條件은 아직 具備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建築活動은 自由를 享樂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公稱批評보다 더 무서운 社會의 눈에 의한 예리한 批評은 더욱 더 큰 힘으로 建築士들의 作品에 影響을 줄 것이다.

● 建築活動과 關聯된 모든 行政的 規制는 점점 強化되어 整備되는데 따라서 建築士들의 設計能力이나 技術力量은 일층 廣範圍한 綜合된 智識의 뒷받침 없이는 이를 解決하기 힘든 段階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美觀地區規制, 再開發地區, 住宅地域內 高層建物制限, 高層建物 또는 特殊建物에 대한 防火施設規制, 높이에 대한 制限 등 많은 規制法과 加重되어 가는 都市計剛에 대한 考慮는 過去의 좁은 울타리 속에 建築士들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

建築士는 將來에 自然的 社會的 職分段階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段階는 위에서 羅列한 모든 內容이 建築士들의 힘에 의하여 解決될 때 到達하게 된다. 즉 質에 의한 淘汰가 이루어지고, 成長變化하는 建築潮流에 對應하여 知識과 能力限界가 넓혀지고, 顧客과 社會의 批評에 能히 견디어내며 人間生活의 創造者로서의 役割을 다 할때 아무 人爲的인 束縛의 方法이 아닌 自然스러운 建築士의 社會的 職分은 確立된다. 社會의 尊敬과 信賴는 저절로 建築士들에게 주어지고, 強要하지 않더라도 最上의 代價는 自進해서 받쳐진다. 그리고 우리 都市는 아름답워지고 建物들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眞善美를 다 한 最上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建築士는 이 樂園에서 自己 職業의 滿足스러움을 驅歌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멀고 험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올 것을 믿고 邁進하는 것이 將來建築士의 目標일 것이다.

建築士와 建築·建設技術者와의 限界

金 枝 泰

(三亞建築事務所 代表)

(本協會 總務理事)

머릿말: 建築士와 建築의 建設技術者는 本質的으로 무엇이 다르며 그 限界란 무엇을 뜻하며 또한 어떠한 內容의 것으로 区分할 수 있을는지 매우 漠然한 難題라 본다. 다같이 建築界의 行動半徑을 가지고 있는 建築技術者라면 各者의 天賦의 人資質과 適性에 따라 設計分野 또는 建設施工面의 技術者로의 專門分野를 枳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綜合藝術이며 그 時代의 文化尺度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建築의 發展을 위하여 無限한 情熱과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建築士와 建築技術者間에 어떤 限界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오로지 處理하고 있는 業務面에서만이 成立이 可能하다고 본다. 建築技術者들은 「建築이라는」 큰 命題를 놓고 이를 消化하는 過程에서 다같이 目的하는 바는 建築의 基本的인 三要素(美, 構造, 機能)와 施工의 三要素(優秀, 經濟的, 合理的)를 갖춘 建築物을 短時日內에 얻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나 建築技術者인 建築士나 建設技術者는 業務處理面에서 限界의 模糊한 것으로 因하여 一般社會로 부터 이따금 物議의 對象으로 浮刻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拂拭하기 위해서도 한번쯤 彼此의 業務와 關聯시켜 그 限界에 對한 것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첫째: 建築士와 建設技術者는 法的으로 부여받은 資格稱號이므로 一般社會에서 이를 包括的으로 建築技術者라 부른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否定할만큼 建築士와 建設技術者는 異質의 性格이 아니므로 肯定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技術은 어디까지나 人間의 目的을 위하여 自然을 支配하는 手段方法이므로 이를 理論에 立脚하여 應用하는 專門家라는 點에서 自然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본다. 다만 一般社會에 對하여 建築士와 建設技術者에 關한 職能을 올바르게 認識하여 그 業務를 依頼시켜 各者의 力量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余件을 造成하여 주기를 願하는 데 있는 것이고, 建築技術者는 所定法節次에 依하여 資格免許를 取得한 사람들이므로 社會로부터 責任이 強調되고 있느니만큼 共同運命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位置에서 建築士와 建設技術者의 職能上의 特性을 表現한다면 建築士는 靜的인 面에 比하여 建設技術者는 動的인 面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建築主의 依頼로 設計한 建築物은 建築士의 藝術性과 個性 및 思想이 깃든 創作物이므로 精神面에 重點을, 建設技術者는 建築物을 具象化하기 위한 生産面에서 施工이란 手段을 써서 이를 綜合의이고 工學的인 見地와 技術面에서 CONDUCTOR을 하기 위한 多樣한 肉體的인 活動性이 要求되기 때문에 動的인 性格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設計圖書는 分明히 建築士가 作成한 것이며 創生되려는 建築物의 綜合的 技術者 審判 同時에 建築士의 意志인 것이다. 이러한 設計圖書는 現場의 PIONEER인 建設技術者의 手에 依하여 消化되면서 建築物의 完成을 보게 된다. 그러나 着工에서 竣工까지의 時空을 通하여 이따금 設計圖書 및 其他 余件으로 因하여 雙方間에 問題가 發生하는데 이는 建築技術者사이에 自中之亂格인 所謂 “設計미쓰다” 또는 “施工미쓰다”라고 云云하면서 彼此의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에 對한 區區한 意見으

로 말미암아 排難이 오고가는 이런 現象을 볼 때 建築技術者로서 各己 自省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다.

設使 設計圖書의 착오가 있으면 作成者로서 責任을 갖고 是正하여야 할 反面에 別하자없는 設計圖書를 놓고 施工의 難易性을 強調하면서 唯我獨存式的 思考方式 으로 處理하는 一部 建設技術者의 行爲에 있어서는 마땅히 是正되어야 함은 再言의 必要조차 없지만 大體로 設計圖書에 따른 要因을 集約해보면

- ① 表示內容의 正確性缺如.
- ② 表示內容의 表現貧弱으로 理解困難
- ③ 애매 한 구조工法等인 것이다. 이런 內容을 何等의 是正없이 處理할 수 없는 것도 바로 建築의 特殊性인 것이다. 때문에 設計圖書의 하자가 있을 때는 滯帶없이 責任지고 處理하여 주므로써 建設技術者로부터의 是非를 免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論한 바, 設計圖書의 하자가 發生할 때에 建設技術者의 愆意的인 處理보다는 作成者인 建築主의 職能에 따른 立場을 깊은 理解와 協助 또는 研学하는 方向으로 이를 自覺 是正케 하는 方法을 써서 彼此 하자없는 建築物을 完成시키도록 知惠를 集中시킴이 妥當한 方法이건만 이와는 反對的으로 相對萬을 過少 評價하거나 또는 建設技術者自身이 設計圖를 能히 作成할 수 있다는 過信에서(?) 越權的인 一方處理로 말미암아 建築主로 하여금 建築技術者에 對한 印象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樣相을 招來하는 根源的인 것은 建築技術者間에 不信에서 오는 경우와 또한 業務處理에 關한 限界線을 뚜렷이 認識 못한데서 오는 경우라고 본다. 實際로 따지고 보면 建設技術者 中에는 設計圖書作成에 能한 사람도 多數인 反面에 建設技術者와 같이 施工技術面의 卓越한 能力을 가진 建築士들도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各者의 特性에 맞는 專攻分野를 挾하여 그 活動 舞臺를 갖고 있는 以上 相互間의 領域만은 確保되므로써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線도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現行 우리 나라의 建築技術政策面에도 制度的으로 이를 分離시켜 分野別로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를 明示한 것으로서 즉 建設業法의 建設技術者란 「建設工事に 關한 企圖 및 施工을 指導, 監督할 수 있는 者」라고 規定한 것으로 보아 그 業務處理關係를 알 수 있고,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建築工事監理에 關한 業務를 行한다」라고 建築士法에서 그 業務의 限界를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마루어 兩者의 業務處理에 關한 限界는 明確하여지는 것이다.

맺는말: 建築士나 建設技術者이든 간에 “建築”을 위한 技術開發과 創意性을 갖고 建築物의 質的인 向上과 社會福祉를 期하고자 無斷한 努力을 하고 있는 誠實한 建築技術者일 뿐만 아니라 前記한대로 建築과 같이 呼吸하고 있는 共同運命體임에도 不拘하고 業務를 通한 現實上의 여러가지 問題 때문에 限界를 떠난 處事로 因하여 是非를 하다보면 結果的으로 우리 建築技術者 自身들이 입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러한 不條理한 事項을 속히 止揚함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建築技術者는 各己의 專攻分野에 忠實하고 또한 이에 따른 業務處理에 對한 限界를 確立 시키므로써 社會的인 地位向上과 權益保障도 바라 볼 수 있는 길의 하나라고 본다. 앞으로 「建築士가 무엇을 안다고?」 또는 「建築技術者가 무엇을 가지고?」하는 따위의 排難을 하기 위한 思考方式은 一掃하고 오직 社會에 對한 奉仕 및 使命感에 비추어 各己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함은 再言의 必要조차 없지만 宿命的으로 建築技術者인 우리는 未來를 向한 巨視的인 眼目에서 相互信賴와 協助로서 開拓하여야 할 無限한 建築舞臺를 向해 一步一步 精進만이 우리를 위한 길인 동시에 自負와 襟持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建築士의 職能과 社会的責任

李 明 煥
有信綜合設計公團 代表
(本協會 理事)

1. 建築士의 職能

人間이 生活을 營爲하기 위하여 基本的이며 重要的 要素가 “衣食住”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人類文化의 發展過程에서 住居文化가 얼마나 重要的 原動力이 되어왔다는것도 周知의 事實일 것이다.

衣·食問題가 比較的 單純하다면 住居問題는 날이 갈수록 複雜多難하다. 이는 人間의 慾望이 無限임에 比例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分野에 從事하는 者의 比重은 決코 어느 分野에도 못지않은 重要的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다.

建築學을 專攻하고 建築에 從事하는 職業人을 通稱하여 建築家라고 稱한다. 建築家は 國家에 따라 比重을 달리하며 職能의 限界가 差異를 갖게 된다. 設計, 施工, 其他를 망라할 수 있는 建築家와 分担된 業務로 区分된 建築家의 形態 등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後者に 屬한다고 하겠다. (大體的으로 建築이란 広範圍하기 때문에 보다 有能한 建築家를 活用하기 爲하여 分担된 職能을 가진 建築家로 区分함이 國家나, 社会的인 面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建築家は 다음과 같이 区分이 된다고 하겠다.

첫째 建築士法에 依據, 資格을 認定받아 建築設計, 工事監理, 建築物鑑定業務를 할 수 있는 建築士

둘째 建設業法에 依據, 資格을 認定받아 建築施工에 從事할 수 있는 建設技術者

셋째 위의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建築家로서 教育, 研究, 修習, 行政 等 其他 部分에서 活躍하는者.

(이웃인 日本의 境遇를 볼 것 같으면 建築行政職에 從事하는者를 建築主事라고 하여 別途 資格考試制을 捫하고 있다.)

即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建築家를 建築士와 建設技術者(建築)로 兩分한 것이다.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分野를 担当하였기 때문에 創造的이며 主導的인 立場에서 建築에 從事하는 것이 第1義的인 職能이며 建設技術者는 建設業的인 技術分野에서 建築施工에 從事하는 것이 第1義的인 職能이라고 할 수 있다.

建築士法에서는 “建築物의 質의 向上”이 主目的인데 비해 建設業法에서는 “適正한 施工과 建設業의 健全한 發展”이 主目的으로 되어 있다. 이는 建築士의 職能과 建設技術者의 職能의 差異는 勿論, 建築을 함에 있어 建築士의 任務가 얼마나 重要하며 公共性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美國같은 境遇 建築家協會에서는 建築家가 建設工事に 從事를 하게되면 自動的으로 協會에서는 其 建築家를 除名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이는 建築士의 任務가 公共性과 아울러 얼마나 公正해야 하는가를 短的으로 表現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建築士의 國家나 社会的인 面에서의 職能이란 個人的 利己에 앞서 이왕과 같은 것이 가장 重要하며 또 重要視되어야 한다고 본다.

2. 建築士의 社会的責任

時代의 흐름에 따라 時時刻刻으로 變遷해가는 社會는 建築物에 對한 要求가 機能面이나 時間的인 面에서 緊迫하고 多種多様해가고 있다.

現代人的 生活이나 活動事項을 区分해볼 것 같으면 農村이나 漁村에 있어서는 生業의 性質上으로 보아 夜間의 住居用 以外에는 建物の 利用度가 比較的 적은 편이나 都市나 産業施設이 發展한 人口密度가 높은 곳일수록 夜間의 住居用으로도 利用度가 높으나 晝間使用의 比重이 높은 建물이 大部分이다. 即 建物の 利用度는 人口의 密度와 産業의 發展과 比例하여 높아가며 住居用으로, 業務用으로, 教育用 또는 慰樂, 社交, 其他 多方面으로 利用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人的 生活은 建物を 떠나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狀態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建築物을 創造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各己 其目的하는 用途에 適合한 構造와 機能을 充足시켜 주어야 할 建築士에 對한 社会的인 要求는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建築士가 設計를 한다는것은 其社會를 設計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設計는 注文主인 建築主의 注文에 依하여 주어지는 範圍와 目的을 爲하여 建築士가 가지고있는 建築士의 知識과 技術과 經驗을 自身의 人格의 範圍 안에서 一定한 設計期間동안 体内에 잉태하였다가 出産하는 産母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出産된 子息이 社會의 不良兒가 된다면가 계구실을 못하는 無能兒나 殺人鬼가 되어서는 안됨은 더 말할 나위 없는 不幸한 일을 建築士는 自覺도 해야겠다.

한개의 나무나 벽돌에도 生命이 있다. 適材를 適所에 使用하여 生命을 잘 活用할 建物は 같은 木造일지라도 20年 30년도 가기 힘든 것이 몇百年씩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建築物을 設計하기 爲해서는 一定한 報酬와 設計期間에 依해 設計圖書가 作成되어 建築主와 協議가 끝나는데로 工事に 臨하게 된다. 設計圖書에 依한 施工過程을 工事監理를 하는 建築士가 管掌을 하며 誘導함에 있어 中立의이며 公正한 立場에서 主導해 나가야 함은 建築士의 使命中의 하나이다.

한개의 建築物을 세운다는것은 其當時는 注文을 한 建築主의 財産이며 남이야 좋은 삶든間에 自己마음에만 맞으면 그만이란 말들을 흔히 한다. 그러나 歲月이 흘러가고 歷史가 바뀌짐에 따라 그建물이 存在하고 있는限 其建物の 建築主는 一定할 수가 없으며 無數한 사람들이 關係되는 것이다.

即 1個의 建築物이란 어느 特定한 個人的 所有物이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利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性을 排除할 수가 없게된다.

發展해가는 社會의 將來를 내다보고 언제나 그 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建物の 設計와 其建물이 주는 效果가 其社會에 좋은 影響을 끼칠 수 있다면 이를 創造한 建築士로서 더 바랄것이 있으랴. 建築士는 긍지를 自己의 이와같은 創造的인 價值에서 自負하여도 좋다고 본다.

그대신 이것이 얼마나 큰 社会的인 責任인가도 아울러 生覺해야 할 것이다.

建築法 改正의 方向 및 改正建築法令에 關한 意見에 對하여

金 永 哲

(建設部 建築課 建築係長)

1. 序

建築物은 人間生活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生活 環境— 特히 都市環境을 造成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中에 하나라는 點에서 그 重要性을 찾아 볼수 있다.

이러한 建築物에 對하여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爲한 最少限의 安全이나 衛生에 關한 基準을 設定하고 住居, 商業, 工業等 土地利用 目的에 따라 그 地域에 適合한 環境을 造成하기 爲하여 建築物의 用途 및 形態等에 關한 最少限의 基準을 設定하는 것이 建築法의 目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建築法의 基準은 構造의 安全等 一部 建築物의 存立과 直接 關聯이 있는 基準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有故時를 待備한 避難, 防火에 關한 것 이라는 點과 用途制限, 空地確保等 土地의 利用을 制限하는 建築物 所有者 보다는 公益을 爲한 基準 이라는 點 및 이의 規制效果가 單時間內 나타나지 않는다는 點에서 一部 建築主나 이에 迎合한 建築人들은 所有土地의 最大限度의 利用과 工事費의 節減만을 爲하여 이러한 最少限의 基準조차 지키지 않는 事例가 적지 않았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法의 基準을 違反하는 事例나 急激한 社會의 變遷과 建築技術의 發達은 建築法 施行以來 10餘年이 經過하면서 大規模 建築物의 災害의 發生, 無秩序한 都市의 發展等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켰으며 이러한 問題는 違法 建築의 防止, 大形化된 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 避難, 防火, 空間確保에 關한 基準等의 補完을 爲하여 建築法의 大幅의 改正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筆者는 今般 建築法令 改正에 參與하였던 實務者로서 同法令 改正의 方向과 改正作業中 느낄수

있었던 點을 밝혀 改正建築法에 對한 理解를 求하는 同時에 建築士(73. 10月号 및 74. 2·3月号)에 掲載된 「改正建築法令에 對한 意見」中 法改正 目的과는 다르게 指摘된 事項에 關하여 그 規定目的과 解釋을 明白히 함으로서 法解釋上의 混亂을 防止하고자 한다.

2. 建築法 改正의 方向

가. 內容面에서의 方向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建築法 改正의 動機가 違法建築物의 防止와 大規模 建築物 特히 高層建築物에 依한 都市 環境의 阻害 要素나 大規模災害의 要素를 減少시키고 社會의 變遷에 따른 建築物의 用途等에 關한 制限의 基準을 보다 醇化하는 것으로서 그 方向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다.

① 違法建築物의 防止

建築物은 일단 違法하여 施工되면 國家經濟上이나 社會條理上 그 是正, 特히 撤去가 極히 困難하다. 이러한 違法建築物의 防止를 爲하여 許可機關에 對하여는 監查等 監督을 強化하는 同時에 建築主等에 對하여는 許可機關의 措置權限과 罰則을 크게 強化하였다.

「違法建築을 防止하기 爲하여 改正 또는 新設된 規定」

○ 法第6條 第3項 내지 第6項

工事監理者의 違法工事 報告의 義務, 許可圖書의 現場備置 義務, 工事施工者의 工事監理者 없는 工事施工 禁止等.

○ 法第7條

竣工檢査 申請書에 工事施工者의 署名 義務, 竣工檢査畢証의 建築物內 備置 義務.

○ 法第7条의 2·令10条

特殊建築物 또는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은 基礎部分과 屋上部分 工事時 中間檢査를 받도록 規定.

이 規定은 建築物의 構造에 對한 檢査를 하기 爲한 것이 아니고 違反事例가 많은 建蔽率, 높이制限의 違反與否를 檢査하기 爲한 것이다.

○ 法第7条의 3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의 維持管理 現況 報告義務.

○ 法第42条 第2項·第4項·第5項

違法建築物에 對한 電話, 電氣, 水道의 設置 또는 供給禁止와 營業許可等的의 許可禁止, 違法 建築物 標識板設置.

○ 法第42条의 2

違法建築關聯建築士, 施工者의 免許權者(建設部長官)에 報告 및 이들에 對한 措置.

○ 法第53条의 3

違法建築에 對하여는 行政代執行法上 原則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戒告의 節次없이도 撤去等의 措置가 可能하도록 規定.

○ 法第54条 내지 第56条의 2

罰則強化

大規模建築物 또는 特殊建築物의 無許可建築이나 建蔽率, 容積率, 높이制限 違反에 罰則의 下限線(懲役 6月以上) 設定等.

② 防災基準의 強化

建築物에 있어서의 防火 및 避難의 問題는 建築物의 規模가 大型化, 高層化되고 또한 瓦斯, 電氣等 火災의 危險이 많은 設備의 利用이 많아짐에 따라 火災의 發生 頻度가 잦아지고 그 被害 規模도 可恐할 程度로 擴大되고 있는 바 이에 對한 基準의 補強이 今般 建築法令 改正의 重要한 方向으로서 特히 高層建築物과 特殊建築物에 있어서의 그 基準을 크게 強化하였다.

[大規模 建築物의 防災에 關한 基準을 強化하기 爲하여 改正 또는 新設된 規定]

○ 法第22条 第2項, 令第130条

높이 31m以上인 建築物에 非常用 昇降機 設置.

여기서의 非常用 昇降機는 避難用이기 보다는 消火作用으로서 意味를 갖는다.

○ 法第23条의 2, 令第91条

特殊建築物 또는 5層以上の 建築物에 使用하는 內裝材 規制

○ 令第95条

防火門의 構造基準 強化

○ 令第96条

防火區劃基準 強化.

○ 令第105条·第106条

直通階段 및 避難階段의 設置基準 強化.

○ 令第111条

消火上 必要한 通路의 基準 強化.

③ 都市空間의 確保

高層建築物의 急激한 增加는 都心部에서의 交通, 公共施設의 利用等 都市機能에 對한 障礙要素가 되 있을 뿐만 아니라 採光, 通風, 保安上의 障礙를 增加시켰다. 이러한 障礙要素를 減少시키기 爲하여 容積率, 높이制限의 基準을 強化하는 한편 建築物 密度를 줄이기 爲하여 從來에 市長, 郡守가 指定하는 特定區域에만 適用하던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關한 規定을 全國에 擴大 適用토록 하였다.

[都市空間의 確保를 爲하여 改正 또는 新設된 規定]

○ 法第39条, 令第158条

住居地域等에서의 建蔽率 算定時의 基礎控除面積(30m²)制를 없애고 綠地地域에 있어서의 建蔽率을 大幅 強化.

○ 法第39条의 2, 令第159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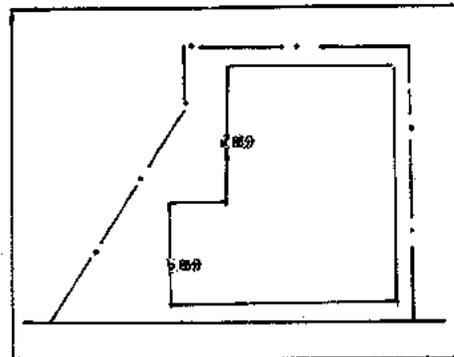
地域에 따른 空地面積의 最少限度 規定.

○ 法第40条, 令第160条

容積率을 下向 調整하고 防火地區에서의 緩和規定 削除.

○ 法第41条, 令第161条 내지 第168条

道路幅에 依한 높이制限 例外 規定 削除, 空地에 接한 道路뿐만 아니라 街区(여기서 街区라 함은 道路로 둘러싸인 土地를 말한다)에 接하는 모든 道路에 依한 높이制限을 받도록 規定.



● 空地 a에 있는 建築物은 A 및 B道路는 勿論 C 및 D 道路에 依한 높이制限을 받는다.

建築線으로부터 一定距離以上 後退하거나 空地
를 많이 確保하였을 境遇의 道路에 依한 높이制限
緩和, 隣接空地의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建築
物 높이制限 強化, 아파트등의 건축물의 隣棟距離
에 따른 建築物 높이 制限 強化, 住居專用 地域에
서의 絶對 높이制限 規定.

④ 用途地域内の 環境醇化

社會의 變遷 및 經濟의 發達에 따라 새로운 용
도의 建築物이 出現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用途의
性格도 變化되었다. 또한 國民經濟의 發達は 公害
工場等의 建設을 隨伴하는 反面 보다 순화된 生活
環境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條件은 都市計劃法
을 改正하여 用途地域을 細分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
라 보다 醇화된 地域의 環境을 造成하기 爲하여
從前에는 主로 禁止되는 用途만을 規定하던 것을
一部地域에서는 許容되는 用途를 規定하는등 地域
別 用途制限을 大幅 強化시켰다.

[用途地域内の 環境醇化를 爲하여 改正 또는 新
設된 規定]

○ 法第32条, 令第142条

住居專用地域, 準住居地域, 工業地域内の 建築
物制限 新設, 住居地域, 專用工業地域, 準工業地
域内の 建築物制限 強化.

以上에서 記述한 內容以外에도 算定方法等 法解
釈上 基本이 되는 事項을 가능한 限 明白히 하여
解釋上의 混亂을 防止하도록 하였다.

나. 形式上의 方向

改正建築法의 形式上의 方向은 法施行上 問題點
을 惹起할 수 있는 許可機關의 裁量權을 줄이는
同時에 地區内の 建築物制限에 關한 指針을 制定
함으로써 成文化된 基準에 依하여 規制를 加하도
록 하였으며, 建築線에서 後退하거나 空地를 많이
確保한 建築物等에 對하여 緩和規定을 設定함으로
서 이러한 方向으로의 建築을 獎勵하도록 하였다.

[許可機關의 裁量權을 줄이기 爲하여 改正된 規
定]

○ 法第32条, 令第142条

用途에 依한 建築物制限의 例外規定.

○ 法第33条의 2 및 第33条의 3

特定街区整備地區内에서는 市長, 郡守가 定한
建築物의 形態, 壁面의 位置와 建築期間에 違背되
어 建築할 수 없도록 規定.

○ 令第144条 내지 第155条

地區内の 建築物制限 基準 設定.

[緩和規定을 設定하여 建築物의 建築方向을 提
示한 規定]

○ 令第160条 第2項

建築面積을 크게 할 境遇 容積率의 緩和.

○ 令第166条

建築線으로 後退하거나 空地를 많이 確保하였을
境遇의 建築物의 높이制限 緩和.

3. 改正建築法에 關한 意見에 對하여

大部分의 建築人들이 無關心하게 法의 規定을
設計에 反映하는데 그치고 있는 建築法令에 對하
여 特히 關心을 갖고 이를 檢討하여 不備한 點을
指摘하여 주신데 對하여 두분께 감사를 드린다.

筆者는 建築法에 關한 研究, 檢討期間이 日淺할
뿐아니라 이에 必要한 資料나 諮問을 받을 수 있
는 對象이 不足하여 筆者로서 的 建築法에 關한 體
系도 完成하지 못한 狀態에서 法改正 作業의 一役
을 担当하게 되어 今般 改正된 法令에서도 많은
問題點과 不備를 包含하고 있다는 것은 不認할 수
없다. 이러한 問題點과 不備한 點은 政府에서 뿐
만아니라 建築學會 및 建築士協會等의 機關에서
充分히 研究하여 次後 法令改正時에는 反映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改正 建築法中 不備한 點으로 指摘된 事
項에 對하여 筆者의 意見을 밝히므로서 法令 解釋
上의 混亂을 防止하고자 한다.

◆ 金漢涉氏의 意見에 對하여

1. 令第3条에 對하여

(가) 1項 3号 바닥面積의 算定에 對하여

① 建築法施行令 第3条 第1項 第3号 나뉜의 露
臺其他 이와 類似한 部分으로서 바닥面積에 算入
되는 것은 지붕이 있는 露台(아파트 등에서 의 발
코니)에서 벽체등이 있을 경우에 그 벽체 등의 面
積이 공간으로 된 面積보다 많을 境遇에 限하는
것으로 벽이나 창이 없는 발코니는 延面積에 算定
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憂慮가 생길 수 없을 것
으로 생각하며, 발코니 部分이라 할지라도 比較的
廢鎖된 空間으로서 建築物의 容積(사람이나 物件
을 收容할 수 있는 面積)이나 形態에 影響을 주는
것은 바닥面積의 規定目的으로 보아 바닥面積에 算
入함이 合理的일 것이다.

② 피뮈티其他 이와 類似한 構造에서 높이에 關한
規定이 없는 것은 建築物의 바닥면적은 各層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算定하도록 同項 第3号 本文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非面部分은 層으로 볼 수 있을 境遇에 限하여 바닥면적에 算入될 것이며 그 높이가 낮거나 地盤의 形態等으로 보아 利用할 수 없는 單純한 構造物로서의 기둥은 당연히 바닥面積의 算定對象에서 除外될 것이므로 높이에 關한 特別한 規定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1項 5号 建築物의 높이 算定에 對하여

地盤面을 地表面으로 改正한 것은 法에서 使用한 用語(地表面)와 令에서 使用하는 用語를 統一하기 爲한 것이다. 地下層의 定義目的으로 보아 地表面을 높이 算定等에서의 地盤面과 用語를 区分할 必要가 없는 것을 区分함으로써 일어났던 地下層 解釋上的 混亂은 이러한 用語의 統一로서 解消될 것이다.

높이 算定方法 中 地表面보다 道路面이 높을 때의 算定方法은 指摘된 事項이 妥當함으로 次後 法改正時 反映될 것이다.

다. 1項 8号 層數에 對하여

層數는 建築物의 높이를 規定하는데 使用되는 것으로 建築物 높이와 關聯없는 地下層은 모두 層數의 算定에서 除外함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라. 2項 地表面의 算定에 對하여

地盤面을 地表面으로 改正한 理由는

1. (나)에서 이미 記述하였으며 指摘된 바와 같이 表現한다면 地盤面은 假想地表面이라는 意味가 되어 오히려 法 解釋上的 混亂이 일어 날 수 있다.

2. 令第19條 階段 및 階段站의 間隔에 對하여

階段 間隔의 높이에 對하여는 設計者의 裁量에 委任한 것이나 이에 對한 基準을 法에 規定할 必要가 認定되면 次後 法改正時 反映될 수 있을 것이다.

3. 令第22條(駐車場 設置基準)에 對하여

駐車場은 駐車場의 位置 및 構造에 따라 自動車가 有效하게 出入할 수 있도록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建築物內에 設置하는 駐車場에 對하여는 그 出入에 支障이 없도록 特別히 設計時 有意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自動車의 增加에 따라 駐車場의 設置基準에 關한 研究는 特別히 必要한 것은 事實이나 우리 나라 보다 車輛의 數가 엄청나게 많은 日本이나 區美에서도 建築物內의 駐車場을 包含한 駐車場 設置基準을 設定하여 이를 有效하게 利用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建築物內의 駐車場이라 하여 將來에 無用之物이 된다고 斷定할 수

는 없을 것이다.

4. 令 第3章 構造強度에 對하여

이 規定은 建築物의 存立에 直接 影響을 줄 수 있는 建築物의 構造安全에 關한 規定이므로 法의 制限없이도 大部分 지켜 질 수 있는 規定이나 特別히 建築士의 資質이 向上되더라도 一國에서의 統一된 基準을 設定한다는 意味에서나 違反時 罰則 規定의 適用等を 爲하여 廢止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 令第31條 表(3)란의 35문의 1은 25문의 1의 誤記이며 희물탈의 配合比에 對하여는 여러 基準이 있으나 檢討後 法定 基準이 不埋하다면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나 組積造 및 補強콘크리트 補積造에 對하여

組積造에 關한 規定(令第38條 내지 第51條)은 이러한 構造에 使用되는 材料의 質이 多樣하고 均質한 施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力學的으로 鉄材等 引張力에 有效한 資材를 使用하지 않으므로 構造 計算보다는 實驗에 依한 結果에 따라 規定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實驗을 할 수 있는 機構 및 設備가 未備하여 不得이 外國基準을 導入하면서 施工等에서의 外國과의 與件의 差異等を 考慮하여 國內 學者의 諮問을 받아 補完하는데 그쳤으며 本規定中 多少 無理한 點을 發見할 수 있으나 確實한 實驗結果없이 同基準을 變更하여 規定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 둔다.

指摘된 事項中 第42條 第3項의 當該壁 높이와 같은 層別 耐力壁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建築物 처마높이와는 区分될 것이다. 또한 現在 適法한 建築物이 적다(構體的인 統計가 없음)는 理由만으로 法의 規定을 緩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令第45條 第2項(개구부)와 第69條(鉄筋의 이음 및 정착)에 關한 指摘은 次後 法改正時 補完될 수 있을 것이다.

라 令第72條(거주집 및 支柱의 除去)에 對하여

거주집의 除去期間은 建築工法의 發達, 建築材料의 開發等으로 變할 수 있으므로 法令에 規定하는 것보다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改正하였으며 그 基準은 現在 成案中에 있으므로 곧 公布될 것이다.

5. 令 第4章 耐火構造, 防火區畵等에 對하여

가. 令第95條(방화문의 構造)에 對하여

防火門에서의 自動廢鎖裝置는 故障이 생기지 않도록 管理하여야 하며 그 品質은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모든 機

器는 故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理由로 法規 定 自體가 問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3項의 開口部 面積은 旣에 規定된 5,000cm²가 濶은 것이다.

나. 令第96條(防火區副)에 對하여

防火區副 基準에서의 스프링클러를 設置한 部分에 對한 同基準 適用에서의 緩和는 그 設置面積 全體를 防火區副 對象面積算定에서 除外하지 않았으나 그 面積의 1/3만을 該當面積에 算定하도록 緩和하여 規定(令第91條)하고 있다. 이는 스프링클러設備가 그 性能에 있어 完璧함을 期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防火區副의 目的…」等에 關한 指摘은 그 要旨을 正確히 알 수 없어 解明을 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다. 令第96條 第1項 2號에 對하여

地下 2層以下는 法の 表現이 濶다고 생각한다. 이는 地下의 層이 2以上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表現이다. 이와 類似한 例로 零下 11度는 零下 10度以下로 表現되며 零下 11度以上으로 表現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1項 3號에서의 「그 層의 바닥面積이 100m²以下인 層을 除外한다」는 結果적으로 必要없는 規定으로 次後 法改正時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리. 令第97條(防火壁) 第3號 規定에 對하여

여기서 「各各」은 「그 部分으로부터 外壁의 3.6m 以上の 部分 및 지붕의 方向으로 3.6m 以上」이라는 것의 意味를 正確히 表現하기 爲하여 必要한 單語이며 만일 「各各」이라는 單語가 없으면 外壁의 全部 및 지붕의 方向으로 3.6m 以上으로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다.

마. 令第99條(建築物의 界壁, 間壁 및 隔壁)에 對하여

이는 連絡複道의 長이가 4m를 넘을 境遇 그 지붕에 隔壁을 設置하라는 規定으로 이를 4m 以下로 한다면 그 規制 意味가 없어질 것이다.

6. 令第5章 避難施設等

가. 令第105條(2個 以上の 直通階段의 設置)에 對하여

地下 2層 以下等에 對하여 는 5. 다에서 記述한 바와 같다.

나. 令第107條(避難階段 및 特別避難階段의 構造)에 對하여

令第107條中 屋外階段의 폭을 90cm 以上으로 規定한 理由는 避難階段의 構造로 할 必要가 없는

建築物에서는 令第17條의 規定에 依한 屋外階段의 폭(60cm 以上)에 適合하면 되나 避難階段의 構造로 하여야 할 屋外階段은 그 폭을 90cm 以上으로 하도록 하기 爲한 것으로 一般的인 規定(令第17條)에 對하여 特別規定(令第107條)이 于先한다는 法의 原則에 따라 相互矛盾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다. 避難을 爲한 建築物內의 待避장소의 設置에 對하여

外氣에 面한 待避場所의 設置는 避難上 오히려 混亂(避難階段으로 避難할 것인지 또는 外氣에 面한 待避場所로 避難할 것인가의 判斷上의 混亂)을 惹起시킬 수 있다는 點과 그 安全性으로 보아 問題點이 있을 것이다.

리. 令第114條(地下層의 構造) 第3號에 對하여

地下層은 原則적으로 居室로 使用하지 못하도록 規定(法第19條)하고 있으므로 地下層 바닥 면적의 合計가 1,000m² 以上이라고 반드시 1個層의 居室의 바닥 面積이 400m²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地下의 層이 2以上인 境遇에는 더욱 그러함) 第105條 第4號의 規定과 第114條 第3號의 規定이 相互矛盾이 될 수 없다. 만일 1個 地下層의 바닥 面積이 400m²를 넘는 境遇에는 直通階段 2個所 以上을 設置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또한 令第113條 規定에 依한 地下層에서의 避難階段은 避難의 目的보다는 待避時 外部와 遮斷하기 爲하여 그 設置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避難에 多少 障礙가 되더라도 必要한 것으로 본다.

7. 建築設備에 對하여

大部分 今般 法改正時 그 基準을 設定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點에서 補完하여야 할 것이며 排煙設備에 關한 基準은 現在 成案中에 있음을 添言한다.

8. 令第9章 貸地에 依한 建築制限에 對하여

가. 令第161條(建築物의 높이 制限) 第2項에 對하여

이 條文은 建築法 中 가장 理解하기 어려운 條文中에 하나다. 限定된 法文으로 表現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難解하게 된 것으로 理解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 높이 4m가 된다는 것은 令第165條 規定에 依하여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나. 令第163條(2個 以上の 前面道路가 있는 境遇의 緩和)에 對하여

指摘된 바와 같이 表現함이 妥當하고 簡明할 것으로 次後 法改正時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다 第166条(建築線으로부터 後退하여 建築한 境遇의 緩和)에 對하여

0.3의 差라도 一般條件에서 20層까지 建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條件에서 24層까지 建築할 수 있다는 것은 적은 差가 아닐 것이며, 그 差를 너무 많이 하면 道路에 依한 높이 制限의 目的에 極히 反하는 建築物이 出現할 수 있을 것이다.

라 令第167条(隣接空地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建築物의 높이 制限에 對하여

商業地域內에서 4層 以上 建築物을 建築할 境遇時 空地境界線에서 一定距離以上을 떠우도록 한 것은 建築物을 無秩序하게 부쳐 建築함으로 因한 美觀上의 障礙를 減少시키는데 있으며 火災時 隣接建築物의 延燒를 防止하는 點에서는 큰 成果를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勿論 少規模空地에서 이러한 條件에 맞추어 無理하게 建築物을 建築하면 보다 都市美觀을 損傷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空地에 對한 例外 規定이 있으면 오히려 零細한 建築物의 建築을 勸裝하는 結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空地에는 不利한 條件을 加하므로써 合同建築等을 勸裝하는 效果도 期待한 것이다. 參考로 美觀地區內에서는 建築物 前面길이 一定길이 以下이면 建築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마 令第168条(住居專用地域內의 建築物의 높이 制限 緩和)에 對하여

1號에 1層 바닥 높이가 0.5m를 넘을 境遇의 높이制限 緩和는 法에서 居室의 바닥 높이를 높이도록 規定(바닥이 木造이면 0.45m以上, 令第15条 第1號)에 따른 當然한 規定이며 2號에서 지붕의 물레가 높 이상일 境遇의 높이制限의 緩和는 法定 높이制限(2層以下로서 8m以下)으로 因하여 句配가 있는 建築物의 建築을 制限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으므로 緩和한 것으로 이 規定은 오히려 個人의 取向을 살리고 設計者에 對한 制約을 解消하기 爲하여 規定한 것이다.

9 令 附則規定에 對하여

避難階段이나 昇降機設置에 對한 經過措置에 對한 必要性이 指摘되었으나 이는 改正法令 施行 以前에 建築許可된 建築物에 對하여는 法解釈上 當然히 適用에서 除外되는 것이므로 別途의 經過規定이 必要치 않을 것이다.

其他 用語中 一般 通用述語와 統一되지 않은 것은 次後 法改正時 統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韓鼎斐氏 意見에 對하여

1. 地下層, 建築面積, 바닥面積, 層類等의 概念에 對하여

가 地下層에 對하여

地下層은 建築法 制定時에는 住宅의 居室 設置 禁止等 地下層의 利用을 制限하는데 그 定義目的이 있었으나 그 設置 義務를 規定(1970. 1. 1)한 後에는 待避施設로서의 意味를 갖게 된 것은 事實이다. 建築法上 待避施設로서의 地下層은 直擊彈等에 依한 被害의 防止보다는 流彈으로 因한 被害를 防止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程度의 目的을 爲하여 그 開口部等에 對한 基準을 細分한다는 것은 平時 地下層의 利用面에서 보거나 技術적으로 많은 問題點이 있을 것이다. 性能이 優秀한 直擊彈이나 化學戰等에 利用될 수 있는 待避施設은 特殊한 遮斷裝置와 相當한 두께의 防禦壁이 必要한 것으로 部分의 設計例에서 그 벽 및 天井 두께(勿論 配筋量과 待避施設의 스펙에 따라 다를 수 있다)를 60cm 以上(一般的인 空襲用 暴彈 150 LB General Purpose 에 對한 待避壕)을 採用하고 있는바 國民經濟上 直擊彈等에 對한 安全性이 保障되는 地下層의 設置를 規定한다는 것은 많은 問題點이 隨伴될 것이다.

또한 地下層設置의 基準面積은 經濟上이나 建築物의 構造上 用途上으로 特別한 無理를 주지 않도록 規定한 것으로 이러한 面積은 當該建築物을 利用하는 사람이 待避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面積의 約4倍에 該當하는 面積으로 不用面積을 除外하고도 大部分의 境遇는 待避施設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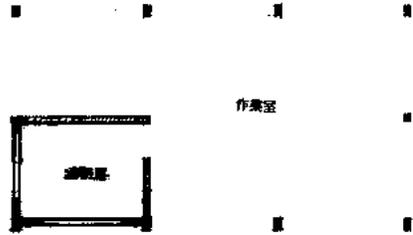
나 建築面積에 對하여

建築法中 特別히 住居·商業·工業地域等의 地域이나 風致·美觀地區等に 있어서의 建築物 形態에 關한 規定(建蔽率·容積率· 높이制限 및 間接的 接으로 建築物의 形態를 制限할 수 있는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은 建築物의 用途에 關한 規制와 더불어 該当地域에 適合한 空地와 空間等을 確保함으로써 指定目的에 適合한 環境을 造成하는데 目的이 있음은 다시 말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建築物 形態에 關한 規定은 各國마다 特有한 國土의 넓이, 國土의 利用計劃方向 等に 따라 規

制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分野에 對한 研究가 아직 進歩되지 않아 大部分 與件이 비슷한 日本의 基準을 약간의 修正을 加하여 採用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基準은 그 規定目的으로 보아 精算으로 規定되기 보다는 極히 概括的으로 規定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住居地域內에서 建蔽率을 %까지 許容한다면 이 %이란 수치는 精算하여 $\frac{6.5}{10}$ 로 計算된 것을 便宜上%으로 規定한 것이 아니라 것이다. 오래된 통계이지만 日本의 예를 보면 住居地域에서 %의 建蔽率로 規制 하였던 境遇 그 平均 建蔽率은 $\frac{1.2}{10} \sim \frac{2.8}{10}$ 의 數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數値는 人口의 增加·人間의 取向에 따라 恒時 變할 수 있는 것이므로 正確한 結果를 얻도록 建蔽率을 規制한다는 것은 無意味할 것이다. 建築面積의 算定目的은 다른 어느 것 보다는 建蔽率의 算定 基準을 定하는 것이다. 建蔽率 自体가 概括的인 基準인 以上 그 算定基準인 建築面積의 算定方法도 그 算定目的에 背馳되지 않은 限 特別 精算을 할 必要가 없을 뿐만 아니라 建築物 形態의 多樣性에 비추어 볼 때 不可能한 것이다. 建築面積의 算定方法中 “建築物의 外壁 또는 이와 類似한 기둥의 中心線”을 建築物의 外壁 (外壁이 없을 때에는 外郭部分의 기둥)으로 한 것은 建築面積의 算定方法을 보다 明白히 하기 爲한 것이다.

筆者는 現職에서 建築面積을 算定 할 때 기둥과 기둥사이에 壁이 있는 境遇 外壁의 中心線으로 할 것인지 기둥의 中心線으로 할 것인지에 對한 質疑를 받은 境遇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法解釋上의 混亂은 建築面積의 算定方法의 改正으로 削除될 것이다. 指摘된 바와 같이 기둥이 外壁보다 밖으로 튀어 나왔을 境遇 空地 確保하는 建蔽率 規定目的으로 보아 기둥의 中心線으로 建築面積을 算定하는 것이 壁體의 中心線으로 建築面積을 算定하는 것보다 合理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壁體로부터 1m 미만의 遮陽等 켄티레바 部分의 面積을 建築面積에서 除外한 趣旨로 보아도 그렇다. 公衆便所等에서의 例는 外壁이 없는 境遇 로보아 기둥의 中心線으로 算定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法上 明白한 定義가 없는 用語(外壁)는 一般的으로 常識的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常識의 限界가 曖昧한 境遇에는 規制趣旨에 따라 解釋

하여야 될 것이다. 特別 建築物이 周圍環境과 形態에 있어 多樣하다는 點과 이러한 形態를 規定하는 때는 法文으로서의 表現의 限界性이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建築物의 建築面積 算定時 令第3條 第3號에 規定한 外壁을 事務室의 外壁만을 指摘하는 것으로 解釋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外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둥의 中心線으로 算定하여야 함)

다. 바닥面積에 對하여

바닥面積은 建築物의 特定部分(各層 또는 居室等)의 面積을 나타낼 때 쓰이는 用語로서 容積率 및 法의 規制對象面積의 算定基準이 된다.

即, 容積率의 規定에서 建築物의 容積(사람이나 物件을 收容할 수 있는 面積)과 建築物의 形態에 對한 制限을 加하는 基準이 되고 其他 境遇에 있어서의 法의 規制 對象面積이 되는 建築物 또는 建築物部分의 容積 算定の 基準이 된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點은 바닥面積의 算定方法이 建築物의 사람과 物件을 收容할 수 있는 面積을 決定하는 基準이 될과 同時에 容積率을 通하여 이러한 것과 關係가 없는 建築物 形態를 規定(물론 容積率 規定의 目的은 建築物 容積을 規制함도 包含된다) 한다는 點이다. 即, 容積率算定時의 延面積은 地下層의 面積도 包含이 되어 地下層의 面積은 建築物의 容積을 規定하는 때는 意味가 있으나 建築物의 形態(地上의 形態)를 規定하는 때는 意味가 없다는 點이다. 이러한 問題點은 容積率에 依한 制限을 받는 建築物이 主로 高層建築物이라는 點과 또한 高層建築物에 있어서 地下層이 거의 비슷한 比率로 設置된다는 點에서 多少 輕減될 수 있으나 보다 合理的인 規制를 爲하여 特別 研究되어 次後 法改正時에는 補完이 되어야 할 것이다. 今般 法改正時 바닥面積에 對하여는 그 概念을 달리한 것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그 算定方法을 明白히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即 從前의 “建築物의 各層 또는 一部로서

壁其他의 区劃의 中心線...”이라는 定義中 켄터레 바 構造物等 特殊한 構造物等에서 壁其他 区劃의 限界를 明白히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改正前에도 “壁其他의 区劃”이란 기둥도 包含되는 것으로서 壁體가 없고 기둥만 있는 倉庫가 바닥面積 算定의 對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層으로 볼 수 있는 파룻티部分도 바닥面積에 算定되었으며 이는 파룻티 部分도 駐車施設, 建築物內的 通路等으로 쓰일 수 있어 建築物 容積에 關聯이 된다는 點과 바닥面積과 關係가 있는 容積率이 建築物의 形態를 規制하고 있다는 點에서 當然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公衆의 通行에 專用되는 部分은 建築物의 容積과 無關하고 또한 이의 設置를 勸裝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비록 建築物의 形態와는 關聯이 있지만 이를 바닥面積算定에서 除外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등의 발코니部分은 “난간을 壁其他의 区劃”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에 따라 바닥面積에 算定되기도 하고 除外되기도 하는 등 統一되지 않는 解釋이 있어 이를 明白히 하고자 比較的 廢鎖된 部分으로서의 발코니는 建築物 容積뿐만 아니라 形態에도 影響을 미치므로 바닥면적에 算入하고 展望用的 開放된 발코니는 바닥면적 算定에서 除外함은 當然한 것이다.

이러한 改正目的 및 改正結果와 建築法의 規定目的이 建築物의 坪當單價와는 無關하다는 것이 建築法을 運營하는데 初步的인 概念이라는 點에서 이루어 볼 때 改正案을 다룬 實務者로 指稱된 듯 筆者가 이러한 用語의 定義가 建築物의 坪當單價와 關聯하여 住宅公社의 主張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였을 理由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생각조차 한적 이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筆者는 住宅公社 등으로부터 발코니面積의 바닥面積에의 算入與否를 數次에 걸쳐 質疑(回信은 改正法의 內容으로 되었음) 되었음을 알려 이의 基準設定의 必要性을 強調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添言한다.

라. 層數에 對하여

層數의 算定에서 從前에는 條件에 따라 包含될 수 있었던 地下層을 一切 除外시킨 것은 建築法令上 “몇 層以上의 建築物等” 建築物의 層數를 指稱할 때 地下層을 包含시키지 않도록하여 用語를 使用한 것과 一致시키기 爲한 것이었다.

即 層數의 用語를 使用한 條文은 모두 建築物의 높이와 有關하므로 層數의 算定方法에서 地下層을 除外시킨 것은 當然한 것이라 생각한다.

層數와 關聯된 條文의 規定目的에 따른 地下層의 層數에의 算入與否의 妥當性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 法第41條(建築物의 높이制限)· 令第167條(隣接 地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른 높이制限)

直接 建築物 높이를 制限하는 規定이므로 地下層은 層數算定에서 當然히 除外되어야 한다.

● 法第7條의 2(建築物의 維持管理)· 法第23條의 2(特殊建築物의 內裝)· 令第91條(特殊 建築物 등의 內裝)· 令第98條(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等)

● 令第101條(複道·避難 階段 및 出入口等에 關한 規定의 適用 範圍)· 令第104條(直通 階段의 設置)· 令第134條(非常 照明 裝置)

이들 規定은 그 主目的이 層數가 많은(높이가 높은) 建築物이 災害時 避難上 不利하기 때문에 이들 建築物에 對하여 防火規定을 強化하거나 避難上 便宜를 圖謀하기 爲한 것으로 地上으로 부터의 높이를 規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므로 地下層은 層數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 令第113條(地下層의 設置)

地下層을 設置할 對象建築物을 規定하는 規定이므로 當然히 層數算定에서 地下層이 除外되어야 한다.

● 令第118條(煙房設備)

이 規定은 建築物의 質을 높여 建築物 外部에 煙筒이 突出하는 등의 都市美觀의 障礙要素를 除去하는 同時에 防火를 爲한 規定으로 볼 수 있으므로 地上에 있는 層만 層數에 算入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 令第129條(乘用 昇降機의 設置)

이 規定 역시 地面으로의 높이(層數)가 規制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地上層만 層數에 算入하여야 할 것이다.

● 令第136條(郵便物 受取函의 設置)

이 規定은 郵便物 配達時 高層部分까지 配達夫가 出入을 하는 등의 不便을 除去하기 爲한 規定으로 이 역시 地面으로 부터의 높이(層數)가 規制對象 與否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 令第137條(國旗揭揚台의 設置)

이 規定은 國旗揭揚台의 높이를 어느 程度 統一시켜 美觀을 確保하기 爲한 것이므로 地面으로 부터의 높이에 따라 規制됨은 勿論이다.

● 令第51条(構造安全의 確認)

이 規定은 組積造에서의 建築物 높이의 限界를 規定한 것으로서 組積造에서 地下層은 1個層에 限하여 設置할 수 있다는 것을 勘案하고 風圧等 水平力에 對한 耐力이 적은 組積造는 原則的으로 地上 3層까지만 許容하기 爲하여 規定한 것이므로 地下層은 層數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建築法令에 使用된 層數는 모두 地下層을 包含시키지 않는 것이 妥當한 것이며, 이러한 定義로서 各條文마다 “地上의 層數...”이라는 用語를 쓰는 번거로움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2. 中間檢査에 對하여

改正 建築法令에서 中間檢査를 規定한 目的은 指摘된 바와는 달리 建築物 構造의 安全을 期하기 爲한 것이 아니라 違法의 事例가 많고 是正이 어려운 建築率 및 높이制限 規定의 違反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한 것임은 그 檢査를 받아야 할 部分과 檢査를 받지 않아도 工事할 수 있는 工種(構造 安全을 爲한 檢査라면 檢査前에는 鉄筋工事도 當然히 하지 못하도록 規定될 것이다)으로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即 基礎部分의 檢査에서 許可된 建築面積의 違反 與否가 檢討될 것이며 屋上部分의 檢査에서 許可된 높이의 違反 與否가 檢討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規定은 現在 建築許可機關의 人力現況을 보거나 行政의 節次의 簡素化라는 方向에서 보아 多少 無理한 點도 없지 않으나 建築法 改正의 動機中 가장 重要한 것 中の 하나가 違法建築物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 었던 만큼 萬一 人力의 不足으로 許可機關이 本 規定을 履行하지 못할 境遇라도 建築主 等에게 心理的인 制約을 주어 違法 建築의 防止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點에서 볼 때 이 規定은 必要한 規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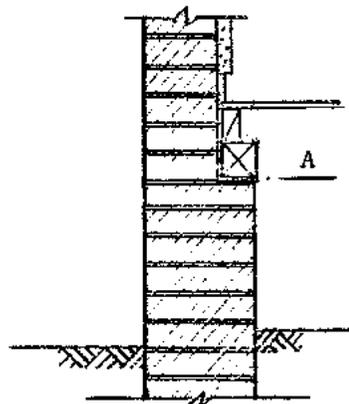
建築法은 그 目的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公共福利를 圖謀하기 爲한 規定이다. 이러한 建築物의 規制效果는 長期間을 經過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며 特別히 個個의 建築되고 있는 建築物을 볼 때에는 그 規制效果를 거의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建築法은 極히 技術的인 事項에 關한 基準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同法에 關한 特別한 造詣가 있는 建築人 또는 建築行政担当者가 아닌 一般人에게는 大端히 疎外되어 있다. 이러한 建築法의 特殊性은 違法建築이 發生하더라도 大部分 看

過될 수 밖에 없는 結果를 招來하여 그 規定 自体가 無意味하여 질 것이다.

이러한 點과 遵法이란 技術 以前의 良識 問題라는 點에서 國家의 免許를 받은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라도 許可機關에서 다시 許可라는 節次를 거쳐 檢討(建築許可는 行政上 羈束裁量行爲로서 建築法 및 關係法令의 抵触 與否만 檢討함으로서 許可가 可能하다)를 할 必要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建築士가 監理를 하더라도 許可機關에서 檢査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또한 過去의 違法建築物도 大部分의 境遇, 工事監理者가 監理를 한 建築物이었음을 添言한다.

中間 檢査에 있어서의 建築主等의 不便을 되도록 減少시키기 爲하여 “建築主가 通告한 予定日에 檢査를 實施하지 않았을 境遇에는 工事を 繼續할 수 있다”는 規定外에도 中間檢査를 받지 않으면 工事を 할 수 없는 部分과 工程을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와 콘크리트工事(鉄骨造에서는 鉄骨工事·組積造에서는 組積工事 等)에 限定하도록 하고 工事進行上 不可避할 境遇에는 2回以上으로 区分하여 檢査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

組積造에 關한 規定에 對하여는 金漢涉氏 意見에 對한 記述中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組積造는 大部分 外國의 基準을 導入하였으며, 基礎의 두께와 1層壁의 두께의 關係도 例外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表現上 우리가 있으나 普便的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施工되고 있는 것으로 基礎部分은 A面 以下로 보도록 解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境遇 基礎部分은 A面 以下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3. 難解한 他條項 引用 및 難解한 文脈에 對하여
 法文의 表現은 法의 種類, 法의 專門性, 法이 主
 로 對象으로 하고 있는 國民의 階層(勿論 法은 原
 則的으로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社會의
 變遷 등에 따라 달라 할 수 있다.

建築法은 그 內容이 主로 建築에 있어서의 技術
 的 基準과 周圍環境, 用途 및 形態에 있어 多樣한
 建築物이나 空地에 關하여 用途 또는 形態等を 規
 定하는 것으로서 限定된 法文만으로는 모든 境遇
 에 符合되는 基準을 規定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今般 建築法 改正時에는 法專
 門家들이 難解한 條文에 對하여 일일히 그 規定目
 的을 把握하여 條文을 다듬었음에도 적지 않은 未
 備點이 發見되는 것은 事實이나 이러한 點은 보다
 合理的인 表現方法이 發見되면 改正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 難解한 他條文의 引用에 對하여

他條文의 引用은 法文을 간단히 할 뿐만 아니라
 規定目的이 類似한 規定을 引用함으로써 그 規定
 目的을 밝히는 데도 그 目的이 있을 것이다. 이러
 한 法文의 引用에 있어서 解釋上의 混亂을 가져
 오지 않아야 함은 勿論이다.

令第111條에서의 他法文의 引用은 法의 規定目
 的에 따라 引用함으로써 建築法에 熟達된 建築士
 에 보다 쉽게 聯想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引用한 것이다.

나. 難解한 條項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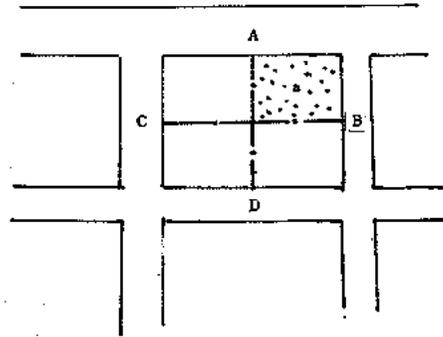
① 特別한 支點의 指定없이 距離라 함은 最短距離
 를 指稱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 最短距離로 表
 現할 必要가 없으며 이러한 點에서 두 線間의 水
 平距離라 하여도 말이 成立될 것이다.

또한 令第163條의 基準을 1970. 3. 26. 字로 改
 正한 것은 建築線으로 부터 後退하여 建築하는 것
 을 獎勵하기 爲한 것은 事實이며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는 建築線에 붙여 建築할 境遇보다 規定을
 強化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點에서 今般 法改正
 時에도 이를 改正하지 않은 것이다.

② 令第167條(隣接空地의 境界線까지의 距離에 따
 른 建築物의 높이制限)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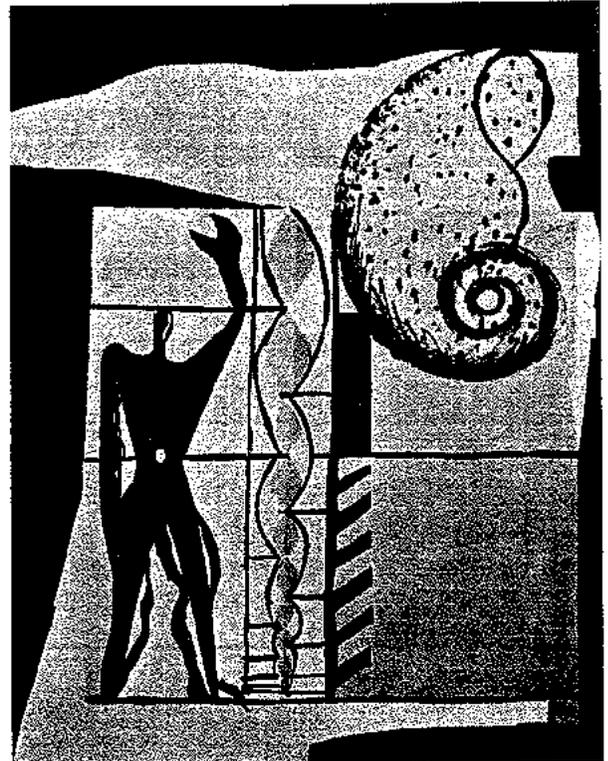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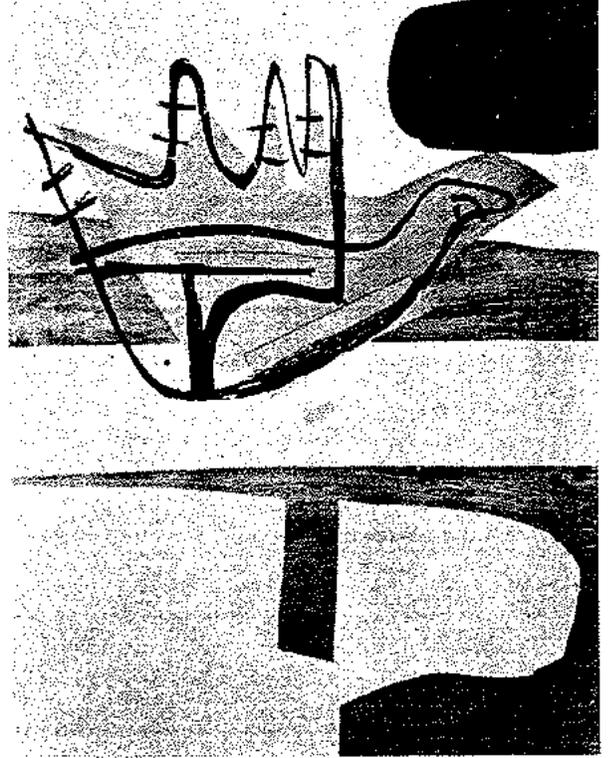
同條第1項中 “空地境界線에 面한 建築物의 最
 外郭面의 各部分으로 부터 隣接 空地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가 서로 다른 境遇에는 그 平均 水平距離
 를 말한다”는 法文의 表現이 難解한 것은 事實이
 나 이러한 表現이 意圖하는 것은 그림과 같이 空

地境界線이 直線이 아니거나 斜線일 境遇 建築物
 이 空地境界線의 形態에 따라 奇型的으로 建築되
 는 것을 防止하기 爲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 둔
 다.



이 建築物에서의 最外郭面은 建築物 部分에 따라 a 部分과
 b 部分으로 나누어지며 建築物 部分에서 空地境界線까지의
 水平距離는 a 部分에서 空地境界線까지의 平均距離와 b 部分
 의 空地境界線까지의 平均距離 中 짧은 것을 말할.

지금까지 建築法의 改正方向과 規定目的과 다르게
 指摘된 事項에 對하여 筆者의 意見을 概括的으로
 밝힌바 있으나 建築法이 아직 그 體系가 完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施行이 時日이 日淺하다는
 點에서 많은 問題點과 改善할 點을 內包하고 있음
 은 不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點은 建築法이
 建築物의 安全等과 將來 都市環境의 良否를 決定하
 는데 重大한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國民의 土地
 利用에 關한 權利를 除限할 수 있는 國民의 生活
 과 너무나도 密接한 關係가 있는 規定이라는 點에
 서 早速한 時日에 보다 合理的이고 效果的인 法
 으로의 改善이 必要할 것이며, 이를 爲하여는 官
 에서는 勿論 여러 關聯機關과 實務에 從事하는 모
 든 建築人들의 建築法에 關한 보다 關心 깊은 研
 究와 檢討가 必要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強調되어
 야 할 것이다. 끝



各国 建築士 活動 環境 資料 紹介

佛 蘭 西 篇

姜錫元 (駐佛 韓国人建築士)



1. 建築士の数

現在 佛蘭西에서는 營業자와 비營業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現在, 建築士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73年12月31日 現在 9,070名의 佛蘭西人과 365名의 外國人들 中에는 佛蘭西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 및 外國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들이다. 外國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으로 佛蘭西 政府에서 인정한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다.

韓國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佛蘭西의 首都 파리에서도 4,422名의 佛蘭西人과 286名의 外國人으로 총 4708名, 거의 반에 해당하는 建築家들이 파리 및 파리近郊에서 일하고 있다.

비營業 建築家의 수는 확실한 통계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2. 建築士法에 對하여

(1) 建築士資格 및 免許取得節次

原則적으로 佛蘭西는 建築家가 되려면 두개의 學校를 거쳐서 建築家가 된다.

첫번째 大學은 政府에서 運營하는 學校, 즉 佛蘭西 國立 파리 大學이 있다. 이 大學에는 建築科 大學이 9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 제 2, 제 9 大學까지) 이 大學을 나온 사람은 佛蘭西 政府에서 주는 建築家資格 (Dplg)을 얻게 된다.

두번째 大學은 私立 大學으로서 여기를 나온 사람은 建築士資格의 특별한 시험을 한 과목 처야 Dplg를 얻을 수 있다.

Dplg를 받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 대학 system부터 살펴보자.

佛蘭西는 1968年 以前에는 建築 大學 입학이 대단히 어려워 보통 50~58:1이라는 경쟁을 거쳐야 했다. 이렇게 하여 일단 入学만 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졸업만 하게 되면 建築士資格 (Dplg)을 따게 되었다. 이 학교를 '68年 以前에 졸업하려면 우선 의과 大學 system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training course를 거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한 教授 밑에서, 한 교실에서 上級生 순위로 table를 마련해 놓고, 우선 처음에 들어가면 첫번째 table에서 백 몇 십 개 혹은 80여개의 table을 거쳐서 졸업하게 된다. 즉 학년제보다는 작품을 위주로 학제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마지막 졸업하기 前에는 "그랑프리그름"이라는 로마 大賞 制度가 있어 이것을 타기 위한 야심가는 졸업을 연기하면서 까지 이 賞을 타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일단 이 大賞을 타게 된다면 1年동안 Rome의 별장들과 기타 Italy에 있는 世界的인 建築家들과 meeting을 가져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의 建築家로서 대성할 수 있는 基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68年以後에는 이 大學制度가 일단 해제가 되어서 이 大學을 入學하는 것은 자유로 되어 있고,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以前과 달리 지금은 予科라는게 없어지고, 入學과 동시에 5年동안에 필수 혹은 전공과목을 履修한후 마지막 1년 동안은 卒業班에 있으면서 Dplg라는 政府에서 주는 建築家資格 시험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

졸업반에 있어서 이 資格시험이 합격과 동시에 그날부로 建築家資格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直接獨立하여 個人 研究室을 가질 수도 있고 만 사람밑에서 일할 수도 있다. 독립하려면 우선 不蘭서 建設部에 자기가 開業한다는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난후 3~4개월이 지나면 완전한 韓國에서 말하는 1급 혹은 2급 建築士의 資格으로 自己의 사무실을 갖게 된다.

(L) 建築士資格 試驗制度

建築士資格 試驗은 原則的으로 不蘭서에는 없다. 外國人에 대해서도 特別한 혜택은 없고,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建築家 1급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外國人에게는 建築士資格試驗에 해당하는 서류라든가 혹은 작품으로서 대학 5學年에 入學하게 하는 때, 이것도 特別한 예가 아니고는 힘들다. 原則的으로 1學年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네들의 建築士資格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68年以後에 世界的인 大家 "오스카 니마이어" (Oscar Niemeyer) 는 現在 不蘭서에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不蘭서 政府에서 특별히 建築士 資格證을 政府에서 직접 준 사람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例이다.

(C) 建築士協會의 構成 및 業務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即, 韓國의 建築士協會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으로 각 지역별 지부로 되어 있었으나 2年前부터 그것이 개편되어 現在는 30여개의 지부로 構成되어 있다.

協會 構成으로 본다면 명예회장, 회장, 비서실장, 비서관, 그외에 각 기관의 임원들로 되어 있다. 이들은 協會內에서 특별히 official하게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韓國의 建築士協會와 별로 相異한 점은 없는 것 같다.

3. 建築許可 節次 事項 (建築法에 의한)

不蘭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상황에 따라 부분 부분 바뀌고 있다.

建築許可는 보편적으로 圖面과 示方書를 제출한 다음 許可신청을 하면 建築士協會와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조형위원회 등의 심사회의를 거친 다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경찰 및, 소방서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대단히 크다.

原則的으로 1~2개월 사이에 許可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도시 같은 것은 비교적 전체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한이 많지는 않지만 도시내에 기존 建築物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때에는 색깔의 制限이나 高度의 制限으로써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한다.

4. 設計 및 감리보수 요율에 대하여

위성도시 계획은 약 4%~8%에 해당되고 개인 독립 住宅은 10%정도가 평균이다. 예를 들어 동계 파리 위성도시 계획중에 住宅, 學校, 혹은 Hotel에 대한 감리보수율을 보면 1m²당으로 設計費를 받게 되어 있다. 1m²당 24프랑 55센트로 계약하고 있다. 즉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2,455원에 해당한다.

연간 약 3%정도 인상한다고 한다. 設計현장 혹은 추가設計등은 그때서 어떤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設計費를 계속 올려받게 되어 있다.

5. 設計事務所 運營 實態

(1) 事務所 經營과 稅務問題

事務所 經營에 있어 불란서는 事務所를 크게 3등분하고 있다.

즉약100~200명에 해당하는 큰 建築事務所, 80~40명 정도의 事務所, 그리고 10명 내외의 事務所가 있다. 이 3가지 외에 3~5명으로 구성된 사무실도 많다. (약 80%정도가 小規模 事務所들이다.)

100명을 넘는 연구실에선 대개 하나의 도시를 완전 master plan 하는것에서 부터 부분적인 것까지 다 해 나가고 있으며, 정치적인 배경하에 큰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事務所를 말한다. 그렇다고 大家라고 해서 반드시 큰 事務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事務所별로의 구조 또는 일의 量에 따라 인원이 적다 혹은 많다 하겠다.

한 研究室의 例를 보면 주인을 모시고 있는 분은 대학의 도시계획 주임교수이며, 이 분 밑에 建築家가 3명 그 밑에 entrant man이 약5명 혹은 바를 때는 10명, 비서가 1~2명으로서 事務所가 대개 運營되고 있다.

대개 事務所 경비는 設計費로 運營되고 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5 設計事務所라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事務所를 보면 建築家, 행정가, 경리등의 집단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실지적으로 집을 지어 팔고 청부업도 하고 있지만 불란서에선 法的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사무실 경영은 設計費에 의존하여야 한다. 또 稅務問題는 자진세 납부로 자기가 設計費가 얼마 들어오고 支出하냐에 따라 세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곳은 절대적으로 過多하게 나온다면 혹은 뇌물을 써 세금을 적게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報酬 정도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建築士資格으로 들어갈 경우 가장 좋은 보수가 2500프랑정도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300프랑정도이다. 약 5년정도 지나면 약 600프랑~700프랑을 받는 게 보통이다. 혹은 청부업자의 회사에 들어가면 800~1000 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한다.

6. 韓國出身 建築士들의 現地活動 상황

金 重業氏 : 현재 파리에서 여러 雜誌를 통해 韓國建築을 紹介하고 계신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姜 錫元 (本人) : Gh Pingussan 교수 밑에서 現在 7년동안 일하고 있다. 現在는 事務所의 소장직책을 맡고 동파리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며 그외에 동불란서 學校, 서남쪽에 위성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아파트, 學校 기타의 일을 맡고 있다.

이재한氏: 서울 문리대 물리과를 나온 후 불란서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다시 불란서에 와서 조립住宅에 관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동배氏: 博士学位 준비중이다.

금년에는 韓國問題와 결부된 博士学位 논문 때문에 韓國을 잠시 둘러신다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않고 계시다 한다.

신 옹학氏: 서울美大 실내장식과를 나와 “마르세이유”대학 建築學校를 나와 그학교에서 助教로 있다.

오 경동氏: 神父로서 建築科 在學生으로 있다.

그외에 문신(文信)화백의 자제인 문 장철군이 現在「에콜드 보자아르」大學에 정식 學生으로 다니고 있다.

7. 韓國과 比較해서 가장 다른점.

불란서에서는 建築士의 地位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現在 석유파동 이후에 불란서 건축계는 예전과 같이 활발치는 못하나 住宅問題, 도시 계획問題등 큰 問題點은 以前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대신 은행에서 대행해 주던 금리가 굉장히 많은 이자를 물게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변동이라 하겠다. 建築家의 報酬問題는 사회불가가 높이 치솟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오는 부작용때문에, 아직까지 striking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內外的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다.

불란서 建築현황을 보던 1900년도 세계 만국 박람회를 열 때에는 世界 建築의 첨단을 견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지금 불란서 建築은 그렇지 못하다. 요즈음은 어떻게 하면 싸고, 기계적으로 빨리 공간에다 사람이 살 수 있는 space를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되어 옛날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적으로 남을 建物は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빠른 industrial한 건물을 많이 생산해 내려고 學校 또는 現在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방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불란서는 지금 구라파에서도 3류 건축이다”라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도 시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의 建築觀

(一名 建築家の 辯)

崔 昌 奎

新進建築研究所 代表
前 建築家協會長

若冠에 建築科를 나와 今일에 이르기까지 31年! 그동안 나라와 地域을 轉轉 하면서 建築을 한답시고 人生의 三分之 二를 걸어 왔다. 數 많은 先人들의 高邁한 뒷길을 제나름대로 허덕이며, 허덕이며 걸어왔다. 아들의 갈길은 아버지 오신 길이라면 流行歌詞 같은 이야기지만, 東西의 巨匠들이 걸어간 길은 그리 平坦한 길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이제 새삼 “나의 建築觀”이란 巨暢한 題目은 쑥스러울 뿐이다. 오직 그동안 나는 建築을 이렇게 생각했다. 或은 建築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程度의 確信없는 思念들의 片片을 적어볼 뿐이다. 現代人들은 謙讓은 安價한 妥協이라지만 그래도 美德임엔 틀림없다.

獨逸의 大思想家인 「니이체」는 “人間은 일찌기 彼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依 賴 自라 났다. 구태여 人間이란 極端을 애써 버리려고 하지 말라. 大自然이 要求할 때 저절로 벗겨진다” 라고 말했다. 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은 흔히 말하는 環境이다. 建築이란 바로 이 人間環境을 創造해내는 일이다. 故로 人間에 關한 모든 일을 다루어야만 하게된다. 社會的, 物質的, 精神的, 心理的, 生理的 等等 너무 多樣한 問題들이 包含되어 있는 人間環境을 制限된 時間(人間의 一生)에 予言이나 解決한다는 것은 至難한 일임엔 틀림없다. 따라서 社會는 建築家를 唐突한 무리로 알고 있고 建築家는 建築家대로 社會가 彼들을 背信했다는 것이 아니고 彼들 自身이 社會를 不信하게 되면서도, 尙 現在에 살면서 未來의 胎兒로서 自處하고 오직 人類未來 만을 目標로 하는 形成力을 기르고 知的인 過程과 手段으로서 該 胎兒를 發育시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彼들의 가까운 周圍에는 普遍的인 文明의 目的을 利害競争과 厚顏無恥의 習慣을 만들어내고, 使命과 道德을 社會職能으로서 特權을 만들어내는 政治나 便利나 實利나 合理가 빛어낸 機械文明과 科學文明이 似而非權威를 만들어내어 公喜라는 人類滅亡의 毒藥等 其他 不信, 不條理, 不勞에로의 僥倖性같은 醜惡한 障礙物들이 너무도 많아서 建築家들의 未來로 向하는 行路는 至難한 일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建築自體가 該 醜惡한 것들로 因해 消滅하거나 滅亡할 순 없기에 또는 該 것들을 職業으로 가질 수 없기에 建築家들은 建築을 挾했고, 人類의 問題가 되는 모든 것에

發言하고 予言하고 造形하는 것이다. 人間環境의 淸澄을 爲한 試圖나 表現은 建築家들의 權限이요, 知慧이요, 本能인 것이다. 그들은 그問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問題視하지도 않고, 오직 그것을 解決할 試案과 可能性을 表現하고 提示할 뿐이다. 이 試案들은 將來成功을 暗示하는 가장 意慾的인 徵兆인 것이다.

人間은 여간해서는 現實에 滿足 못하는 動物이다. 滿足 못하기에 發展(?)이 있었다. 그 發展이 언 훗날 우리를 滅亡시키더라도 人間을 爲해서라는 大前提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十九世紀부터의 産業革命시부터 始作된 機械文明과 現來의 科學文明의 눈부신 發展들은 皮相的인 滿足과 感動을 가져왔지만 人類를 害치는 公害도 같이 가지고 왔다. 人間의 高貴한 生命을 威脅하는 公害나 人間自滅을 內包하고 있는 核武器等을 防止할 수 있는 最後의 堡壘는 政治도 宗教도 科學도 아닌 오직 藝術뿐인 것이다. 卽 人類의 快適環境의 創造는 大量生産이나 大量消費가 公害의 原因이고 보면 또는 平安과 實利만이 人間의 幸福의 要素가 될 수 없다고 보면 結局은 高度化된 原始主義的인 思考와 生活를 할 수 있는 環境과 與件만이 可能하다는 것을 理解시키고 引導하는 일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環境創造라는 일을 天職으로 삼고 있는 建築家들을 社會는 우습게 알고, 저버리고 있지만 그들은 멀지않아 建築家들을 切實히 必要로 하고 願할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이 地球上에 살아남으려면 淸澄한 環境이 必要하고, 그 環境을 建築家들이 創造해 내기 때문이다.

長久한 人類歷史의 全部는 親할 수 없는 環境에 人間化한 秩序를 創造해 온 人間努力의 記錄이고 同時에 人間이 속삭이고, 중얼대고, 외치고, 울부짖은 數 많은 言語中에서 가장 誠實하고 가장 創造的인 言語들만을 收錄한 것이 바로 人間歷史일진데, 自然環境과 同化할 수 있는 人間生活體系의 發見! 더욱 快適하고 淸澄한 人間環境의 創造가 卽 그언젠가 誠實한 言語로서 바로 人類歷史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我們 誠實하게 創造한다는 것에 對한 眞意를 알게되며 人間을 爲한 環境問題를 어떤 技術的인 問題와 같이 解決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것이며 感情과 人格과 思想과 倦怠와 好奇心을 Computer도 政治家도 宗教도 이問題만을 解決할 순 없고 다만 建築家(藝術家)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藝術家들은 늘 反政治, 反宗教的이 되고 政治와 宗教는 늘 反藝術的이 되어 있다는 理由이기도 하다.

建築家는 그들의 資質과 靈感과 손과 人格과 本能으로서 機械文明이나 科學文明의 盲點을 克服하고 그 危險性을 未然에 對備하고 生命을 威脅하는 公害를 消滅시킬 義務와 能力을 가지고 있고 또 實踐에 옮겨가야하는 것이다.

建築家는 解決手段의 盛富性에 反하여 目的의 不確實性에 關한 原則은 建築을 阻害한다는 것과 無意味한 犧牲이나 忠誠心을 要求하는 따위의 理論이나 理念을 研究해 내는 것보다도 環境이나 造形問題에 腐心하고 虛勢와 僞裝과 宣傳만이 充溢한 社會에서라도 大衆이나 時代가 要求할 때만이 建築을 創造하는 것이고 自己를 爲함이 아닌 남을 爲한 卽 人類를 爲한 作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藝術의 純粹性에서도 그러하거니와 建築이 藝術이라는 眞意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建築家は 自身の 資質과 靈感도 必要하지만 社會나 大衆의 願望이나 刺戟이 없이는 無力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建築家が 社會나 人類의 願望의 가장 充實하고 創造的인 媒介役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人類가 要求하는 建築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所望하는 環境이란 어떤 것일까? 果然 安逸하고 便利하고 機能의이고 合理的인 것일까? 先人들의 體驗에서 얻은 即興的인 規範的인 意味를 가진 術語에 充實한 것일까? 或은 芸術의 本質에서 우리나온 定義에 符合된 것들일까? 이런 疑問은 無限히 連發될 수 있겠고, 어느 것이 가장 옳다고 할 수는 없다. 建築自体가 지니고 있는 多樣한 意義는 이런 몇개의 規範이나 定義나 術語로서 規定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無意識에서, 自己의 知識範圍를 超越해서 구차스러운 束縛與件을 떠나서 超人間的인 境地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工學的인 面과 經濟的인 面이, 또는 技術的인 面이 꼭 따라오게 마련인즉 問題는 더욱 複雜해져만 가는 것이다. 특히 人間環境이란 問題가 擡頭된엔 心理学, 未來學, 生態學, 社會學, 經濟學的인 複合的인 反映이 加味되어야만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試圖이 기 때문에 時間과 過程이 없이는 結果가 나올 수 없고 그 時間의 長短如何에 따라 建築家의 一生이 限定되어 있으니 自己가 生覺한 所期의 結果를 보겠다는 것도 不可能할 뿐더러 建築自体가 끝까지 試圖임에 結果를 바라는 것 조차가 愚鈍한 일이 된다.

“現實的인 面에서 簡單히 좋은 建築이란?” 할 때 簡略한 答으로선 建築家和 建築主와 施工者와의 三者의 呼吸이 合致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三者呼吸의 合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即 建築主는 一般的으로 耽慾的이고 無知하고 審美度가 低質인 境遇가 많고, 마치 自己의 不當한 所望이나 慾求도 建築家가 다 解決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施工者는 營利業者임에 利潤의 追求가 그들의 目的이다. 하물며 이들은 利益追求 以外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兩者와 建築家가 呼吸이 合致하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現近의 數 많은 建築物들이 物議를 이르고 批判의 對象이 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는 建築主나 施工者 以外에도 大衆의 建築에 對한 概念이나 理解度의 貧困! 審美度의 低質! 權力의 橫暴! 感情 謀略 嫉妬 等 人間社會의 醜惡한 모든 것들이 建築에 對해 集中影響을 주고 있으니 建築의 行路는 갈 수록 險難할 뿐이다. 덧붙여서 수많은 制御規定, 法令, 細則 等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障礙條件들이 純粹建築의 試圖를 가로막고 있는 現今이다.

注文과 請求書로서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命令이나 指示로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돈만 주면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自己의 建物에 對한 所望은 建築家가 다 解決해 준다고 믿고 있는 限, 絶對的인 權力이 絶對的인 經濟力이 建築을 이룩한다고 알고 있는 限, 훌륭한 建築은 絶對的으로 이루어질 순 없다.

現近 歐美文明圈에선 “建築은 이미 使用이나 目的이전의 空間藝術이다.” 또는 “現代建築은 그 結果보다도 그 過程과 手段을 重視한다.” 即 空間과 時間이 現代建築의 主要基本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음은 現代哲學에서 人間의 가장 貴重한 生命의 定義를 “生命=時間+空間”이라는 原理에 基因함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思潮는 彼岸의 火災가 아니고 人間社會의 哲理라며는 우리에게도 適用되는 것이다. 果然 이러한 말을 우리 社會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는 큰 疑問과 恐怖가 느껴지는 것이다.

“時間+空間”이 人間生命이라면 바로 그 空間과 時間을 다루는 것이 建築이 아니겠는가? 이 世上에 수많은 學問이 있다 하더라도 人類의 生命과 將來를 다루는 建築이야말로 가장 所重한 部門임을 알 때 建築家들의 自負와 義務의 重大함을 새삼 自覺해야만 할 줄안다.

人類의 問題點은 많다. 가난과 질병, 不幸과 不滿, 不信과 不條理, 資本과 努力, 自由와 平等, 冷戰 核武器 公害, 言語와 宗教, 人種과 國家 等等의 엄청난 問題들은 게아무리 不可解라 할지라도 人間이 저지른 일하기에 神도 解決해 주지는 못하고 오직 人間만이 解決해야하고 人間만이 解決할 能力과 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險難한 問題들의 解決處理를 政治家나 教育家나 宗教家가 할 것이라고 믿을순 없다. 오직 있다면 高邁한 原初의 思想으로서의 藝術家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可能性과 現實과는 먼 距離가 있다. 여기에 긴 時間이 加担했을때 비로서 方案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人間이 아직 發見 못한 可能性을 發見하고 提案하고 發言하는 것이 바로 建築家인 것이고 이때까지 建築의 歷史가 그려졌고 一面 現代의 知識과 資源으로서 實現 可能한 水準보다 훨씬 低下된 建築을 하고 있는 理由도 이 可能性과 實現과의 關係를 말해주는 좋은 証左인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은 未來의 아름다운 環境으로만을 指向하고 默默地 進行하는 進行詞인 것이다. 人間에 알맞는 環境은 人間의 單純하게 願하는 것만은 아니고, 自尊心이나 本能에서도 要求하는 것이다. 때문에 伊太利의 建築家인 “Gio Ponty”는 이 世上에서 가장 高級이고 最上의 形容詞는 “建築의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다.

人間의 尊嚴性에 알맞는 生活水準을 向上시킨다는 일은 全人類의 集中된 努力으로서 우리의 環境을 創造하는 일뿐인 것이다. 建築家란 이 일을 目標로 삼고 이 目標로 向해 조용히 그리고 默默地 걸어가든 사람들인 것이다. 藝術을, 自己를 爲해 한다거나 藝術을 爲한다거나 藝術속에서 自己를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藝術을 사랑하면 그때 藝術은 이 社會를 敎授할 것이다.

무릇 創作이라함은 그 作家의 内部에서 隱密한 感動으로서 그의 全知 全情熱을 쏟아서 이룩되는 것인데 藝術이라는 側面에서 建築을 볼 때 他部門의 數多한 藝術과는 달리 計算이라든지 技術, 材料 等の 工學的 面이 多分히 加味되므로 한 空間을 占有하고 表現되는 美術(繪畵)이나, 空間을 占有하고 外部空間을 形成하는 彫刻等보다도 建築은 空間을 占有하고 内部空間을 創造하고 外部空間을 形成까지 하는 即, 空間造形이 되는 것으로 또는 音樂이나 繪畵 같이 99% 原形과 同一하게 複寫 錄音되어 數十萬個의 量産이 可能한 것에 비해 建築은 原形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點이다. 同一設計로 多棟을 建立했다하더라도 그 環境과 材質도 다 다른 것이고 寫眞으로 模型으로 同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建築의 寫眞이요 模型이고, 그속에서 人間이 生活할 수 없는 것이므로 Original은 原形 하나 뿐이 되는 것이다. 故로 他를 複寫藝術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고 演劇 等은 原形은 하나이지만 그瞬間뿐이고 必要에 따라 再演 反復해야 하므로 瞬間藝術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建築이야말로 唯一한 複寫나 同一이 없는 純粹性을 가진 藝術本然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 建築이 서야할 땅엔 수많은 荊棘가 있다. 即 悠久한 自然環境속에서 日增飛躍 變化하는 生活를 담아야한다는 點, 技術은 發展함과 比例해서 人間의 既存秩序를 變造시키고 既存概念의 王國을 滅亡시켜가고 權威를 낮게해서 더욱 職能的 分派作用과 量

産을 促進시켜 政治的, 經濟的 特權을 造成했고 何如間 地球上에 技術이 나타난 以後로 무언가 끝장이(人類) 나기 始作해 가는 것만 같아졌다.

現在 建築家들은 建築을 하나의 職業으로 看做하고 있으나 建築이 職業으로 될 때는 이미 그 建築은 藝術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自己의 生의 方法으로(生業) 藝術을 한다면 이는 藝術의 冒瀆이요, 또 藝術本然의 純粹한 體質에 違背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原初藝術의 發生當初가 어떤 目的이나 必要를 爲해서가 아니었고, 다만 倦怠와 無寧와 余裕에서 人間本能에서 始作되었고, 이러한 藝術이 人類歷史와 同時刻에 그 發端이 있었다는 點과 人類歷史를 오늘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證明해 주는 것이 바로 建築이기에 문이다. 人間은 이 世上에 태어나면서부터 生命을 가지고 行動을 繼續하지만 意味없는 無價值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生存과 存在의 意味로서 区分되어야 하겠고 勿論 存在에도 理由야 있겠지만 生存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使命같은 것이 있음은 確實하다. 이 무언인가를 해야한다는 그 무엇이 建築家로서는 創作이 되는 것으로서 宇宙萬物을 神이 創造했다고 하면 空間造形을 創造한다는 創造라는 뜻에선 建築家は 神과 同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恐畏하게도 創作 이라는 것이 얼마나 尊高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近來에 와서 建築에 機能的이어야 한다는 說 比重을 많이 둔다. 이 機能的이란 單語의 誤解는 많은 것 같다. 機能的이란 概念은 實用目的의 充足에서 價值的 領域까지의 複合體를 意味內容으로 하는 概念일 것이어야 할 것이고, 形을 주어진 課題의 內的 諸條件의 總體서부터만이 產出해 내려는 생각의 具體化를 意味해야 할 것이고, 最終의 形이 予知된 것이 아니고 合目的 思考와 目的에 關係없는 思考와의 創造的交流에서만이 發見되어야 할때에 安逸와 便利만을 即興的으로 考案하면 機能的이다 라고 하고 使用目的에만 充足되면 또는 目前의 經濟的 條件만 解決이 되면 現實的過程에 手段의 簡便만 되면 機能的이다라고 錯覺을 이트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

建築은 하나의 試圖의 表現이다. 試圖나 表現에는 어떠한 規制나 標準이 있을 수 없다. 完全히 自由奔放해야 할 것인데, 規格이나 方法의 範疇가 생기고 하물며 要求條件이 命令調로 나오고 있다. 이때 어느 쪽이 強者이고 어느 便이 弱者인지는 우리 現實에선 自明한데 弱者의 正當한 要求는 그 發言이 強硬해도 哀願에 지나지 않고 強者의 要請은 그 發言이 柔軟해도 命令이 되는 마당에서야 建築家의 自由로운 創作이 나온다는 것은 至極히 어려운 現實인 것이다.

都市環境의 創造亦是 建築에 屬하는 것이며 都市計劃이란 名稱으로 近來 이 分野가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建築家의 創案한 都市計劃이 果然 自由로운 立場에서 大膽하게 되어 있는가? 即 創作의 純粹性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對해서는 建築과 같이 많은 疑問이 있는 것이다. 一例를 들어 計劃道路가 왜 國有地나 公有地나 河川을 따라 가야 할까? 이는 土地의 地上所有權이 私有인 境偶 土地保價의 費用이 建設의 予算에 주는 影響때문이었으나 이러한 規制下에서 果然 自由奔放한 都市計劃이 創案될 筈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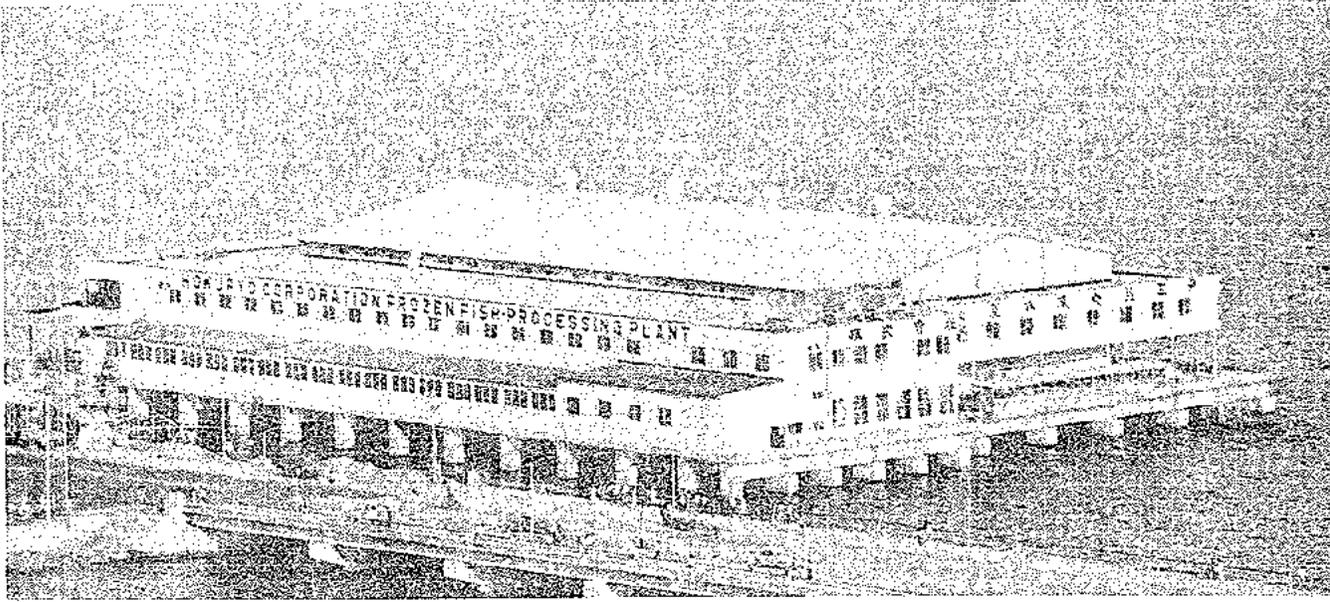
는 것이고, 眞正한 都市計劃案이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기어코 眞正한 都市計劃이 이루어질려면 먼저 土地地上所有權의 解放없이는 不可能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建築을 비롯한 모든 藝術은 藝術이라는 共同分母를 가지고 있다. 卽, 構造性, 造形性, 持續性, 忠實性, 幻想性, 空間性, 그리고 時間性 등이 될 것이다. 機械는 技術의 産物이요, 建築은 位相의 産物이다. 機械는 來日 더 좋은 機械가 나오면 오늘의 機械는 廢品이 되지만 建築은 그렇지 않다. 各種 藝術이 수많은 思潮의 流派를 거쳐서 今日에 이르렀지만, 그전 것을 버리지는 않았다. 바로 이것이 藝術과 機械(技術)와의 差異點이라고도 할 것이다.

政治家와 科學者와의 結托은, 科學者와 宗教와의 結托은 世上을 危殆롭게 한다. 歷史上 그 예는 許多하다. 그러나 政治家와 建築家와 提携는 建築家와 科學者, 建築家와 宗教家와의 提携는 人類를 위해 利로우면 利로웠지 害로울 순 없다고 生覺된다.

建築家란 諸般 社會問題를 疑心하면서도 諦念하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그問題를 探求하고 解決에 努力하며 同時에 實踐하는 것이다. 建築家は 그저 黙然히 未來를 꿈꾸며 純粹애로의 길로 걸어 가는 것이다.

아—獨高함이여, 아—孤寂함이여!



馬山港 海上에서 본 当工場

株式会社 北菱冷凍食品工場

設計：卓景淳建築研究所

工事監督：大西宗直（日本）

施工：韓国建築構造株式会社

韓國特殊構造株式会社

龜山建設構造株式会社

片山鉄建構造株式会社

株式会社 中須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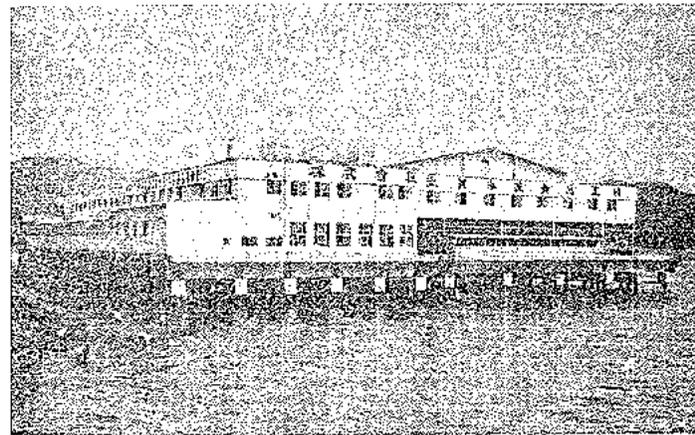
所在地：慶南馬山市陽徳洞 975 輸出自由地域内

工場規模： \pm 1 面積 7,201.07 m²

建設面積 6,292.58 m²

工場内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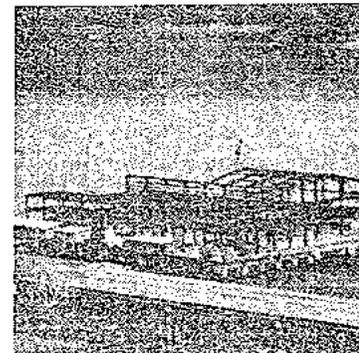
内部	層	一層	二層	三層	計
冷蔵庫		1,944 m ²	1,944 m ²	—	3,888 m ²
処理場		2,073.6 "	2,574 "	—	4,647.6 "
機械室外		1,166.48 "	予備室外 1,017.6 "	予備室外 518.4	2,702.48 "
計		5,184.08 "	5,535.6 "	518.4	11,238.08 "



管理所 進入口에서 본 当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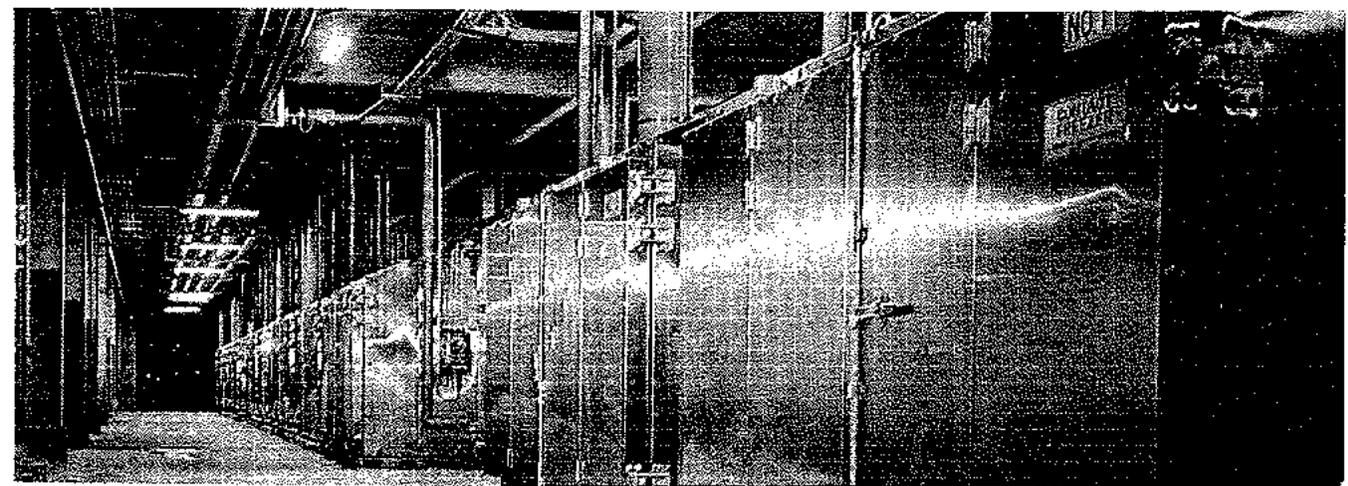
다이프 파이프 杭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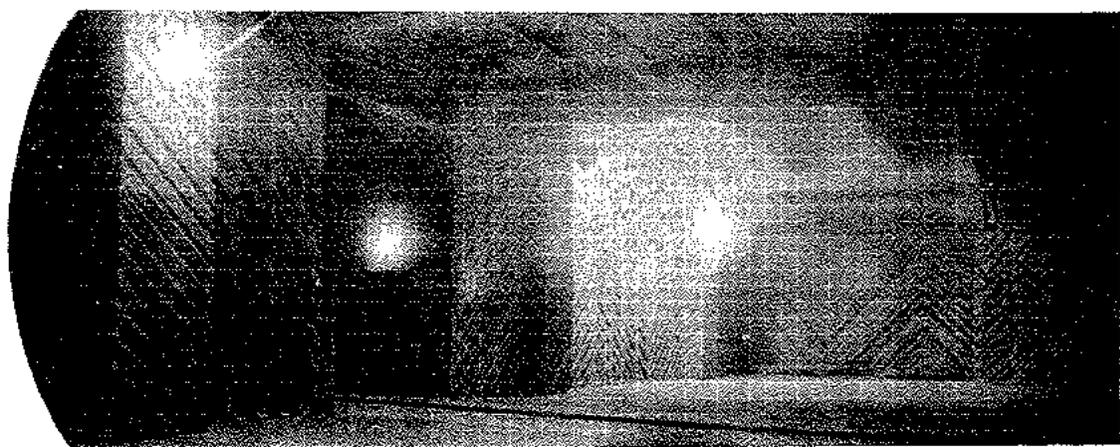
鉄骨組立完成直前



東洋第一の規模を誇示하는 一層 処理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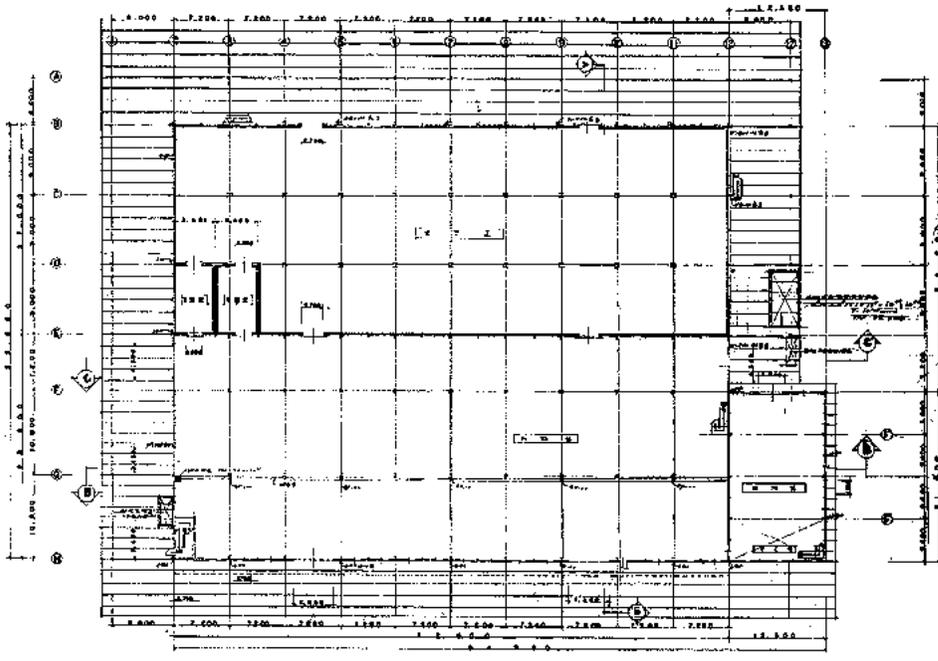
同工場 最新의 冷蔵庫는 모두 自動裝置로 設置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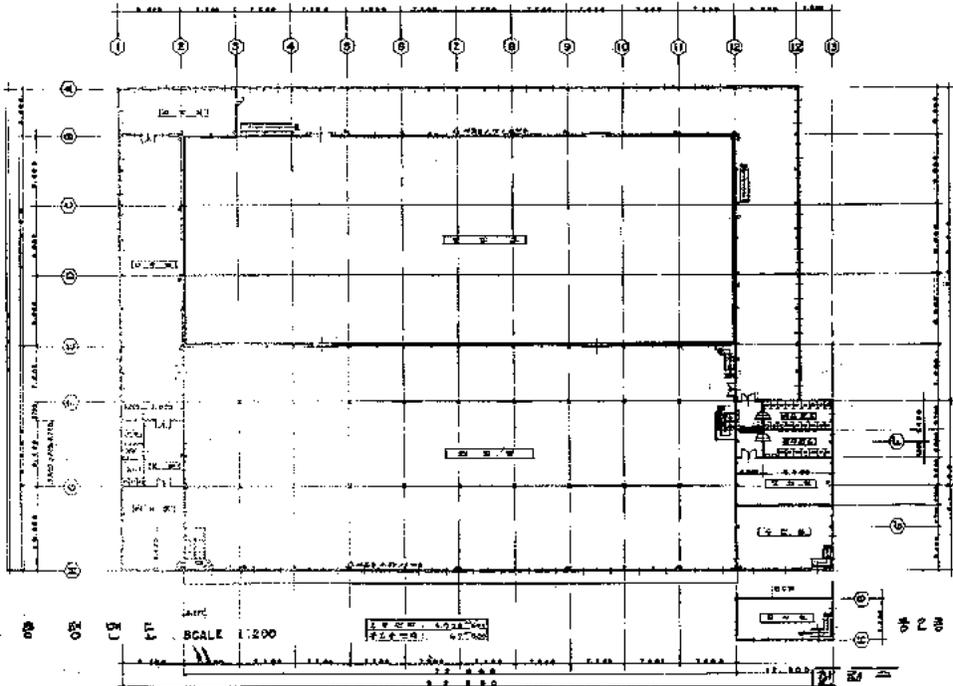
輸出製品 및 原料의 貯蔵 7,000t 冷蔵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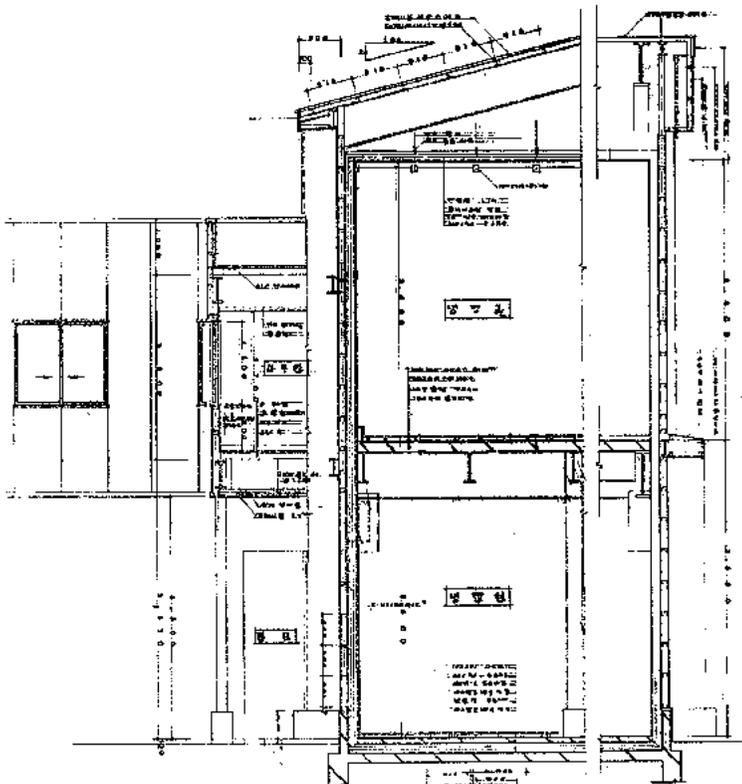
同工場의 下部構造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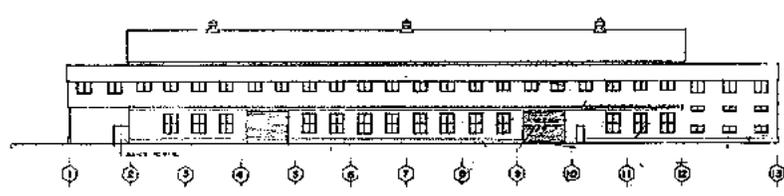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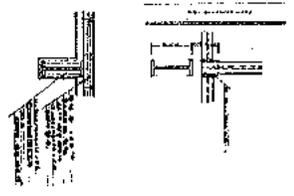
SCALE 1:200 DRAW NUMBER 19478 420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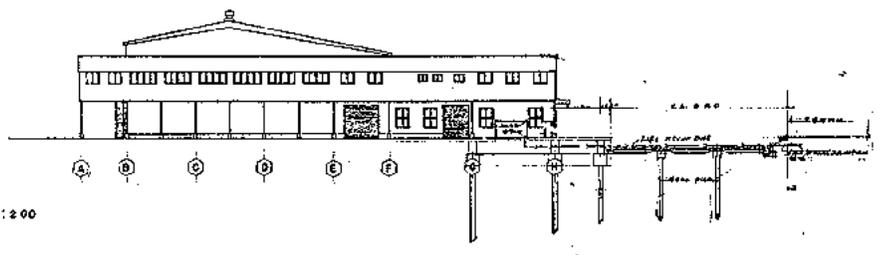
SCALE 1:200 SCALE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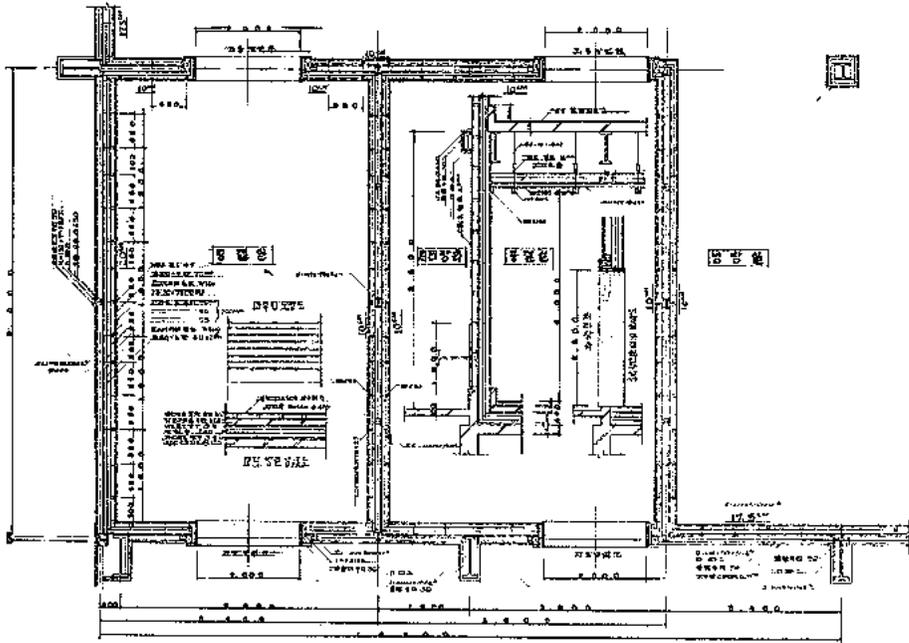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SCALE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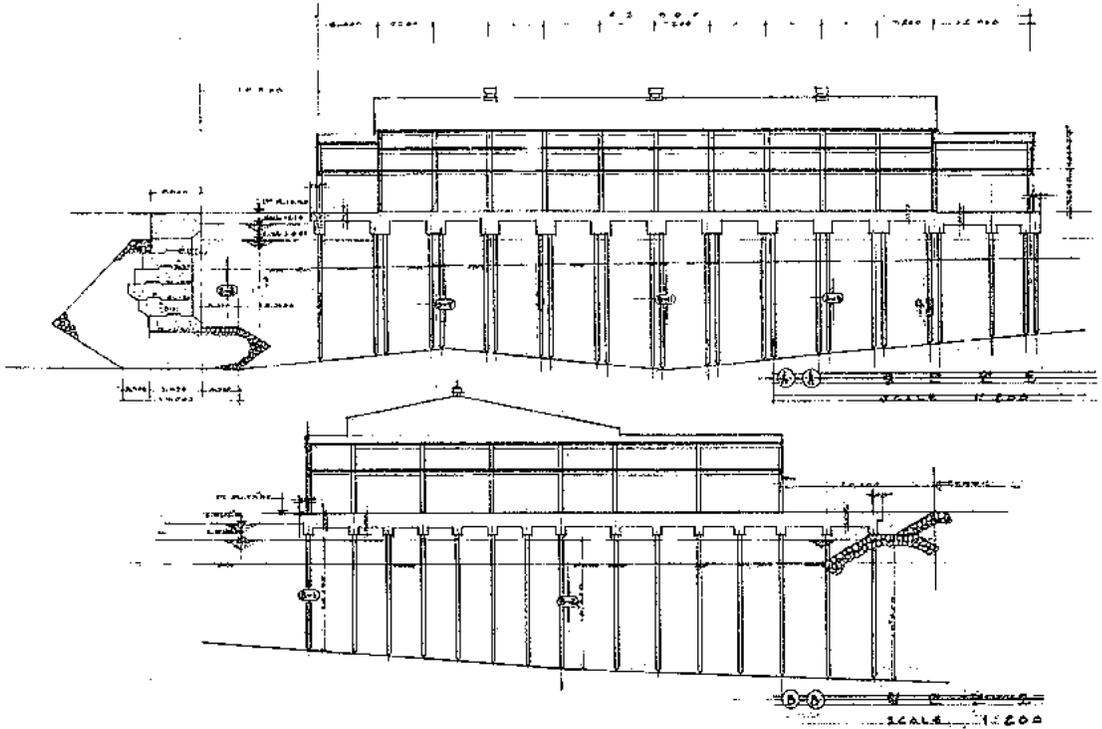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CALE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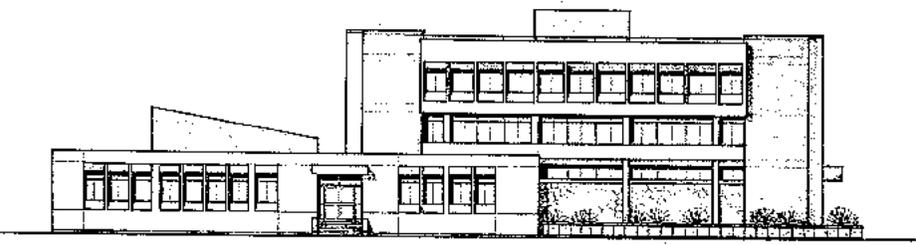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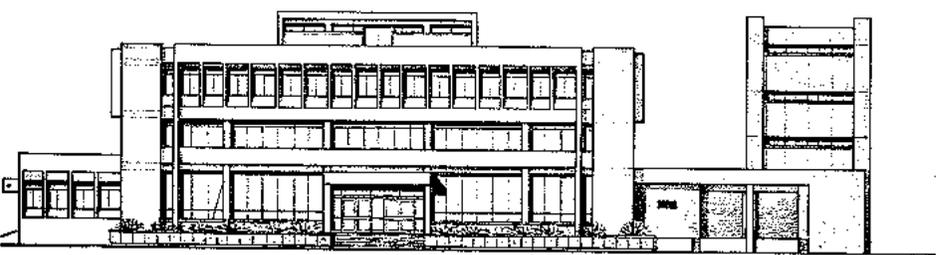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CALE 1:200



경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평면도 scale 1:30





國立서울生絲檢査所

設 計：汎亜建築研究所 代表 金宗根

基地位置：安養市

基地面積：5,231.7²m²

建築面積：1層 2,507m²

2層 1,164m²

3層 1,274m²

P. H 225⁰⁰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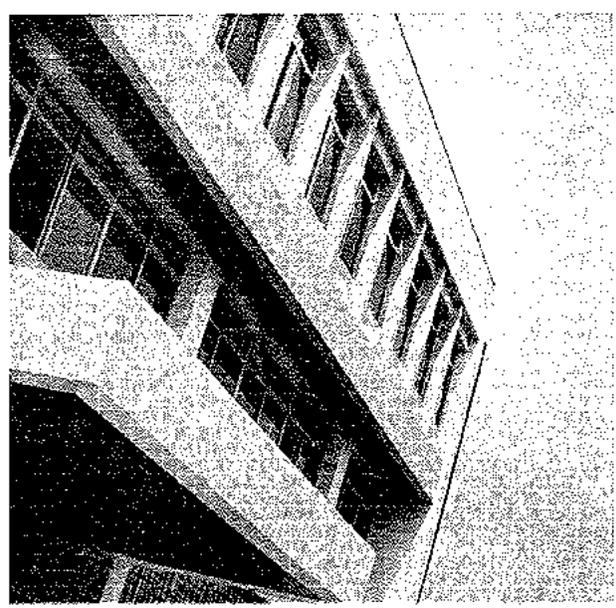
BASE 7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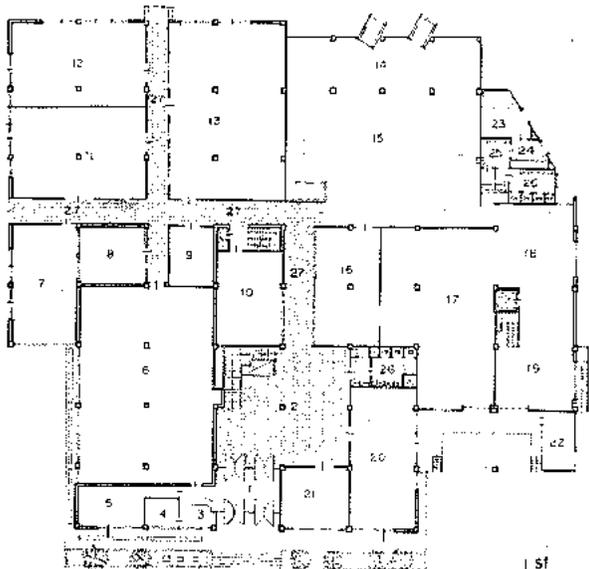
延面積：5,920⁰⁰m²

層 數：地上3層，地下1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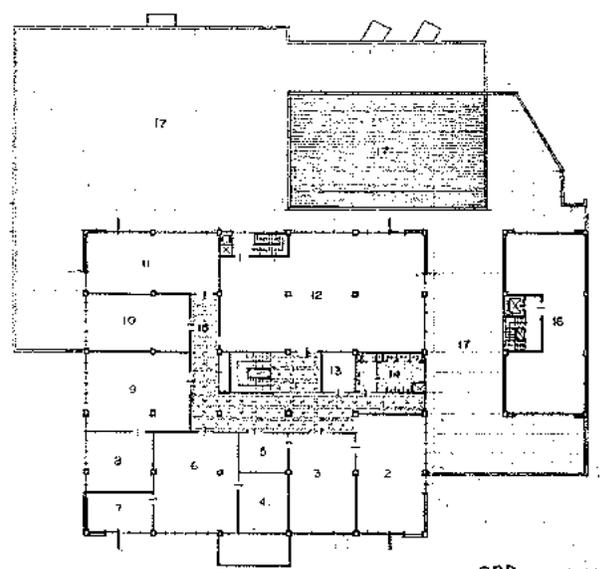
構 造：철근콘크리트 라멘조

設 備：스팀난방





1F



2ND

一層平面圖

1. 현판
2. 호-1
3. 수위실
4. 숙직실
5. 전화교판실
6. 재조실
7. 섬도세디프렌사무실
8. 강력신도포합사무실
9. 종업원실
10. 간사실
11. 섬도검사실
12. 양반실
13. 세디프렌 검사실

14. 육안 검사실
15. 원광검사실
16. 포장검사실
17. 생사포관창고
18. 검사준비(해장)
19. 생사창고(입하)
20. 육안포장사무실원랑
21. 향군사무실
22. 조합사무실
23. 욕실
24. 탈회실
25. 세면장
26. 변소
27.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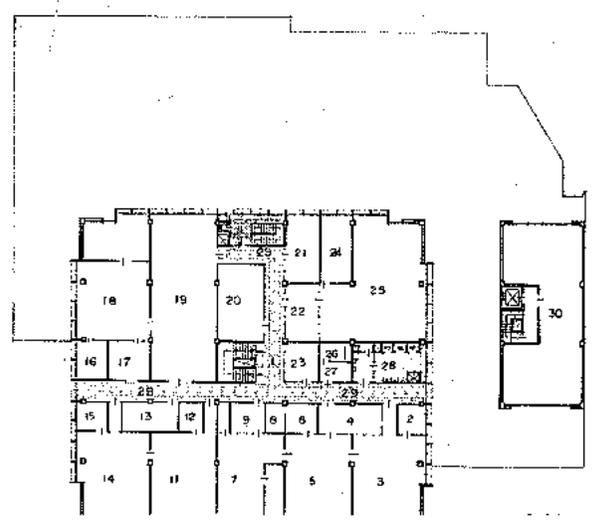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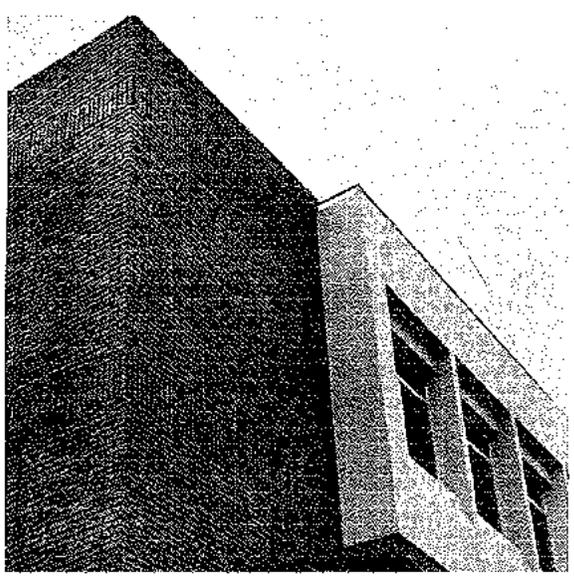
二層平面圖

1. 호-2
2. 회의실
3. 소장실
4. 서무과장
5. 전실
6. 서무과
7. 검사과
8. 검사과장
9. 검사과
10. 도서실
11. 강당
12. 수분검사실
13. 창고
14. 변소
15. 복도
16. 생사창고
17. 옥상

三層平面圖

1. 호-3
2. 물리특수분석실
3. 물리실험실
4. 사무실
5. 화학실험실
6. 정밀기제보판실
7. 의회검사실
8. 악품저장실
9. 사무실
10. 시료보관실
11. 저장연구실
12. 특수저장실
13. 생사검사조정 연구실
14. 제품연구실
15. 재료원료보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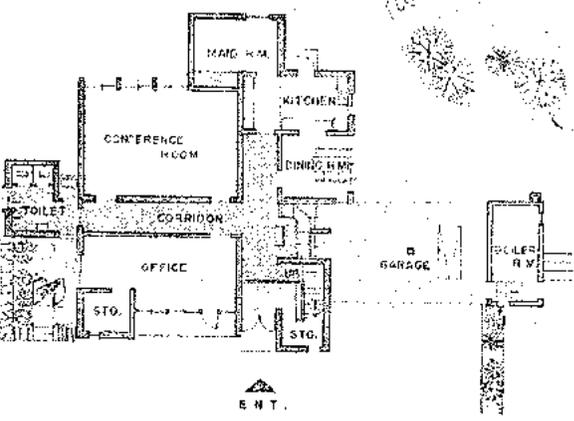
16. 기기부속실
17. 사무실
18. 제작준비실
19. 제작실
20. 특수분석실
21. 기기제작실
22. 사무실
23. 열람실
24. 기기연구실
25. 기계연구실
26. 암실
27. 현상실
28. 변소
29. 복도
30. 생사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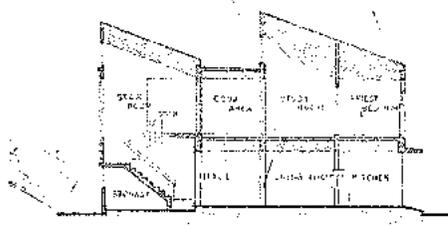


대방동 천주교 사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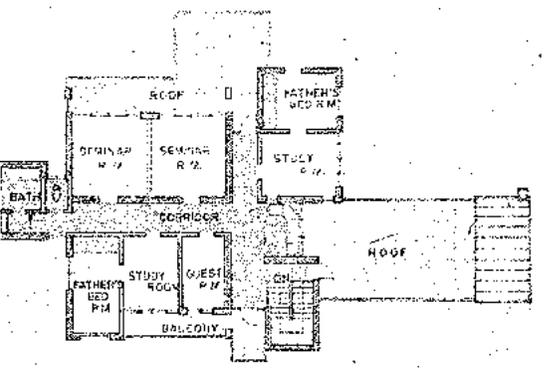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
 대지면적 : 9,145.14㎡ 연면적 : 354.09㎡
 건 명 : 1층 200.86㎡ 구조 : 근저조
 2층 154.09㎡



一層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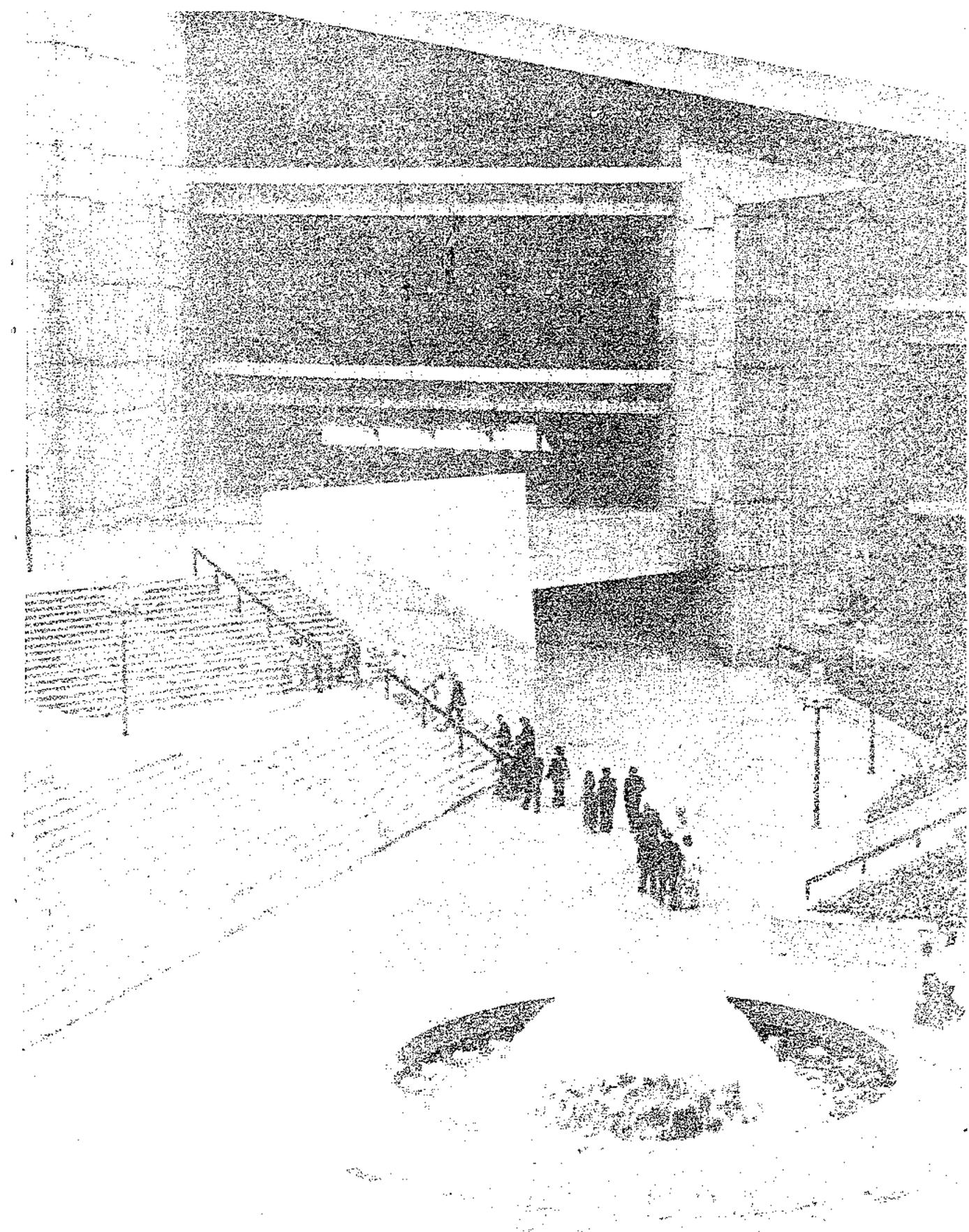


立面圖



二層 平面圖





芸術会館
Arts center (美国)

Akron Art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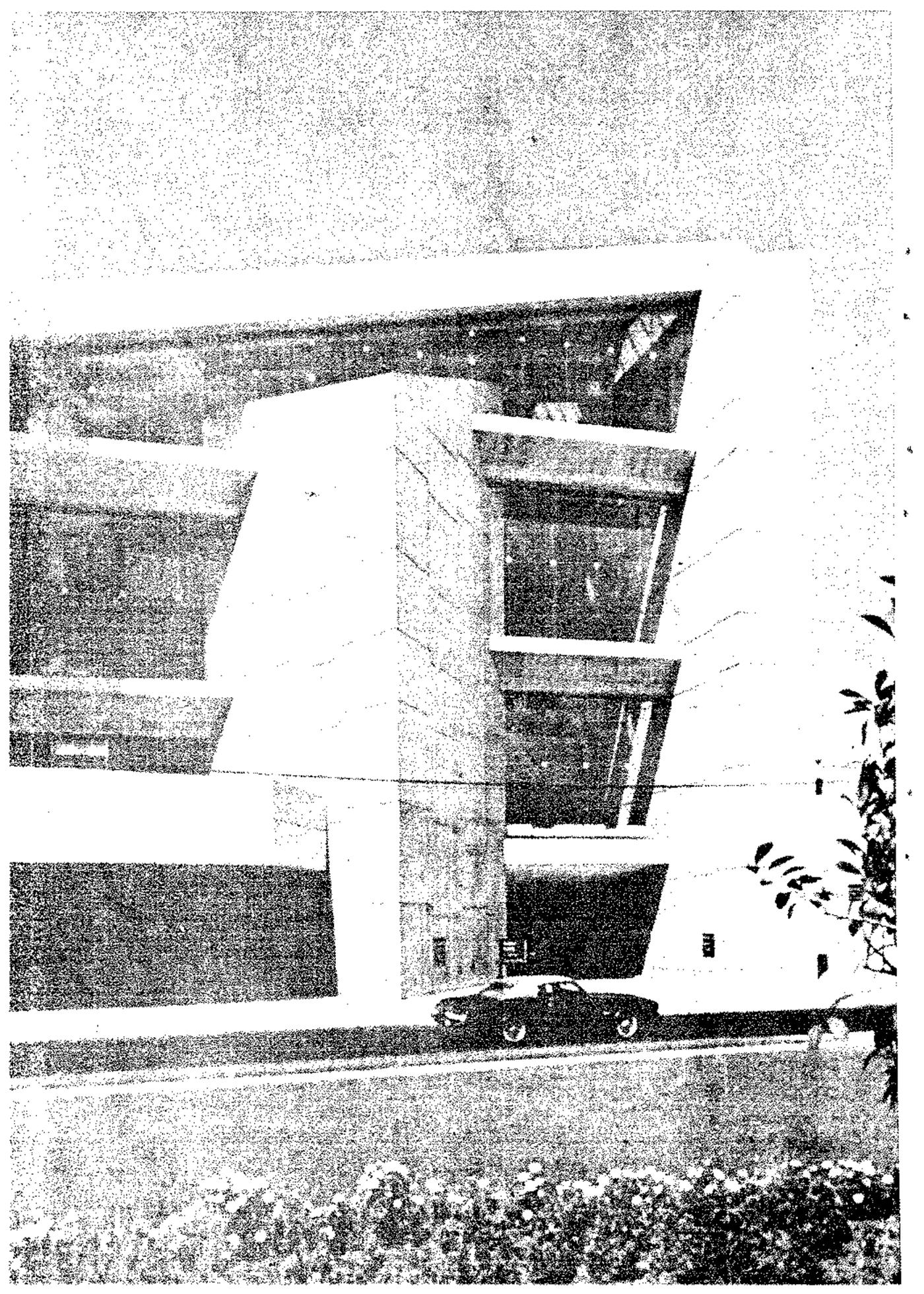
소유자: University of Ak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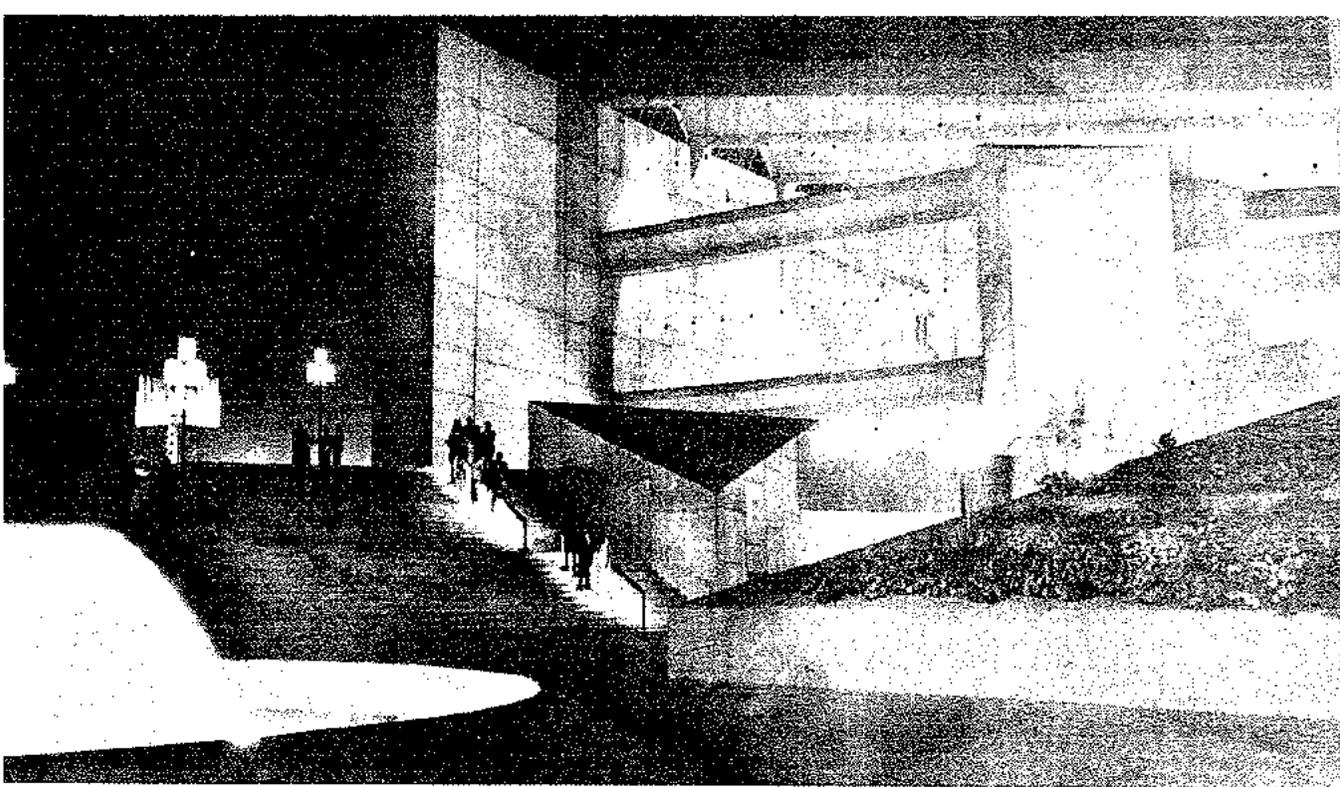
설계사: Gandhill Rowlett Scott ; Dalton, Van Dijk,
Van Dijk, Johnson

건축회사: R. M. Gnsert & Assul

부지면적: 232,448 sq. f

비용: \$ 11,200,000





Akron에 있는 이 예술회관은 요즈음 建築家나 彫刻家의 作風과는 좀 동떨어진 外形美를 보여주고 있다.

Akron 지방은 교양강연, 세미나 등을 위해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모일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 중심가에 인접해 있는 Akron 大學에 Akron 홀을 짓게 되었다. 이 회관은 이 지방 사람들의 꿈이며 문화의 상징인 것이며, 일반시민과 대학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회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Hall function"과 "House function"의 두 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관은天井을 移動하여 3,000席, 2400席, 900席 등으로 만들수 있으며 금속의 사다리꼴天井壁은 機械와 電氣로 15분만에 옮길 수 있다. 또 각室的 음향장치도 대단히 잘되어 있다.

外形의으로 보면, 幾何學的인 면에서 直角이 아니라 추상적 變 形을 하고있다. 三角形의 수직통같은 두개의 층계가 있는 수직탑들과 평행사변형인 커다란 무대 뒷면은 背景布 앞의 조각들처럼 되어있다. 그리고 背景布 자체가 4개의 조각들로 되어있다.

建物の 北面과 西面들레에 부드러운 곡선을 갖고 있는 스크린은 진동, 소음 등을 완전히 차단시켜 준다.

전물사이의 벽들은 완전히 유리며 창살이 없는 것 같다. 유리를 뺀아올린 변칙이는 스텔레스 강철판으로, 이것들은 마치 변들이 굳어져 반짝이는 것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로비에 걸려있는 금속 스텔레스 강철 원통들은 會館天井과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추상성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이 빌딩은 內, 外에서 추상성을 띄고 있다.

이 회관은 知的인 추상적 개념을 지닌 彫刻品인 동시에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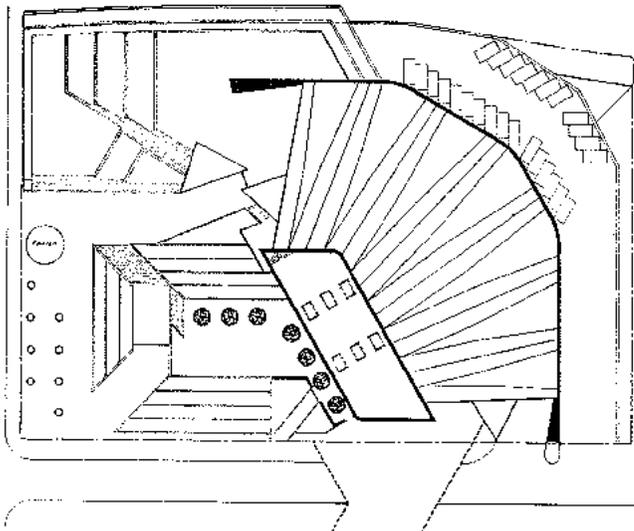
이 建物は 現代藝術의 成敗의인 作品 (특히 조각면에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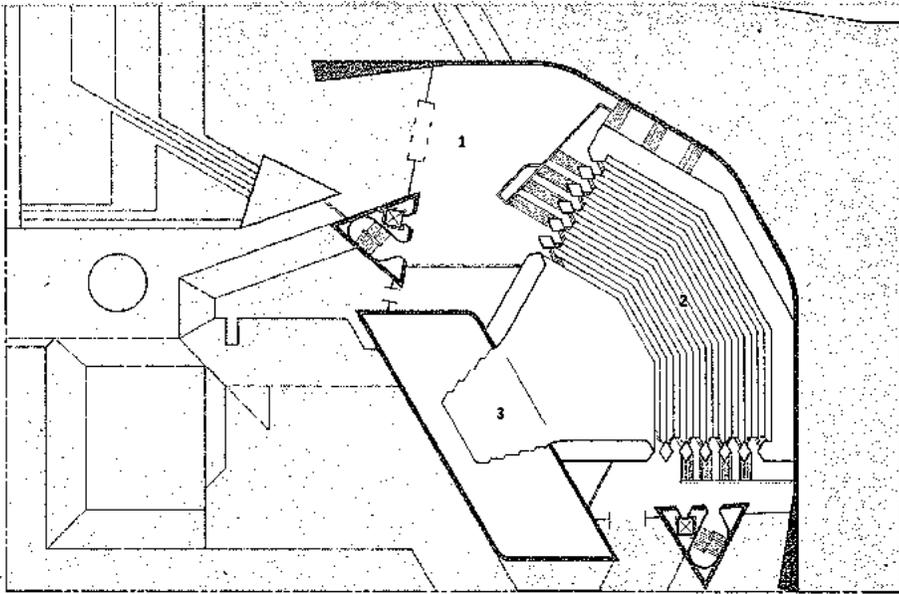
바깥과 안사이의 칸막이가 어떻게 없지는 가를 보여준다.

동쪽면은 자동화된 입구이다.

평면도는 회관의 치밀성을 보여주며 Stage 로 부터 135 피트 내에 좌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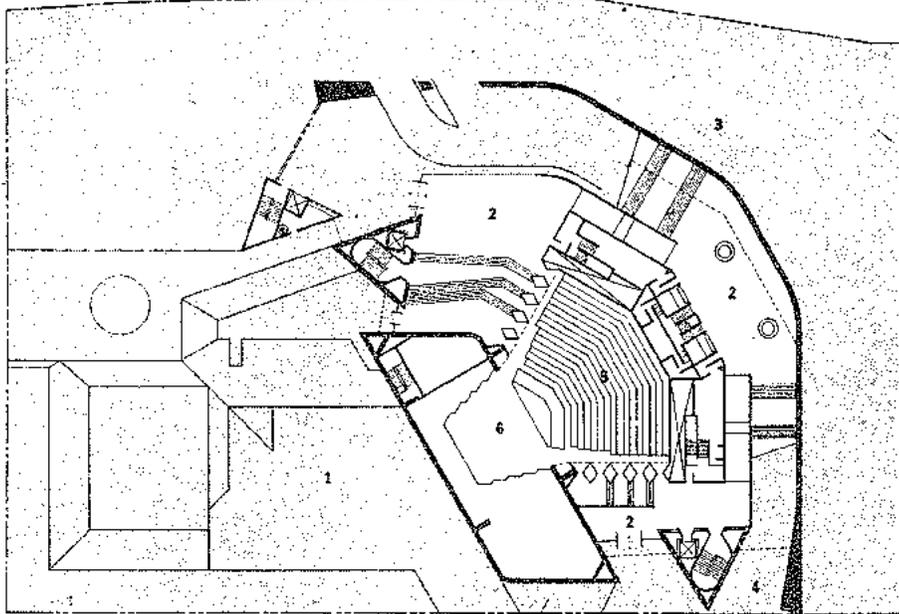
모든 좌석이 즉 나열이 되어 있어 통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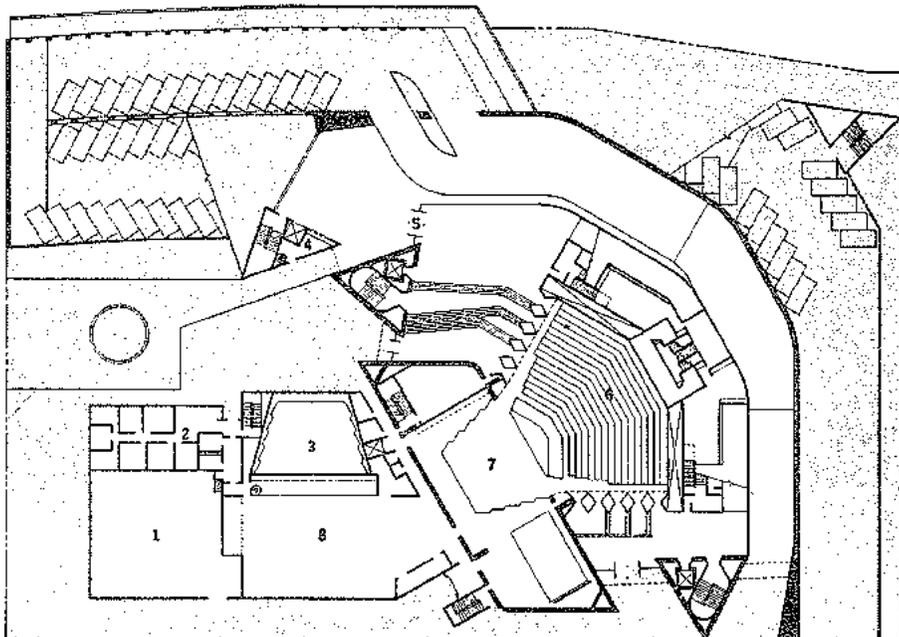
음악관 관람석 설계도

1. 로비
2. 음악관 오케스트라석
3.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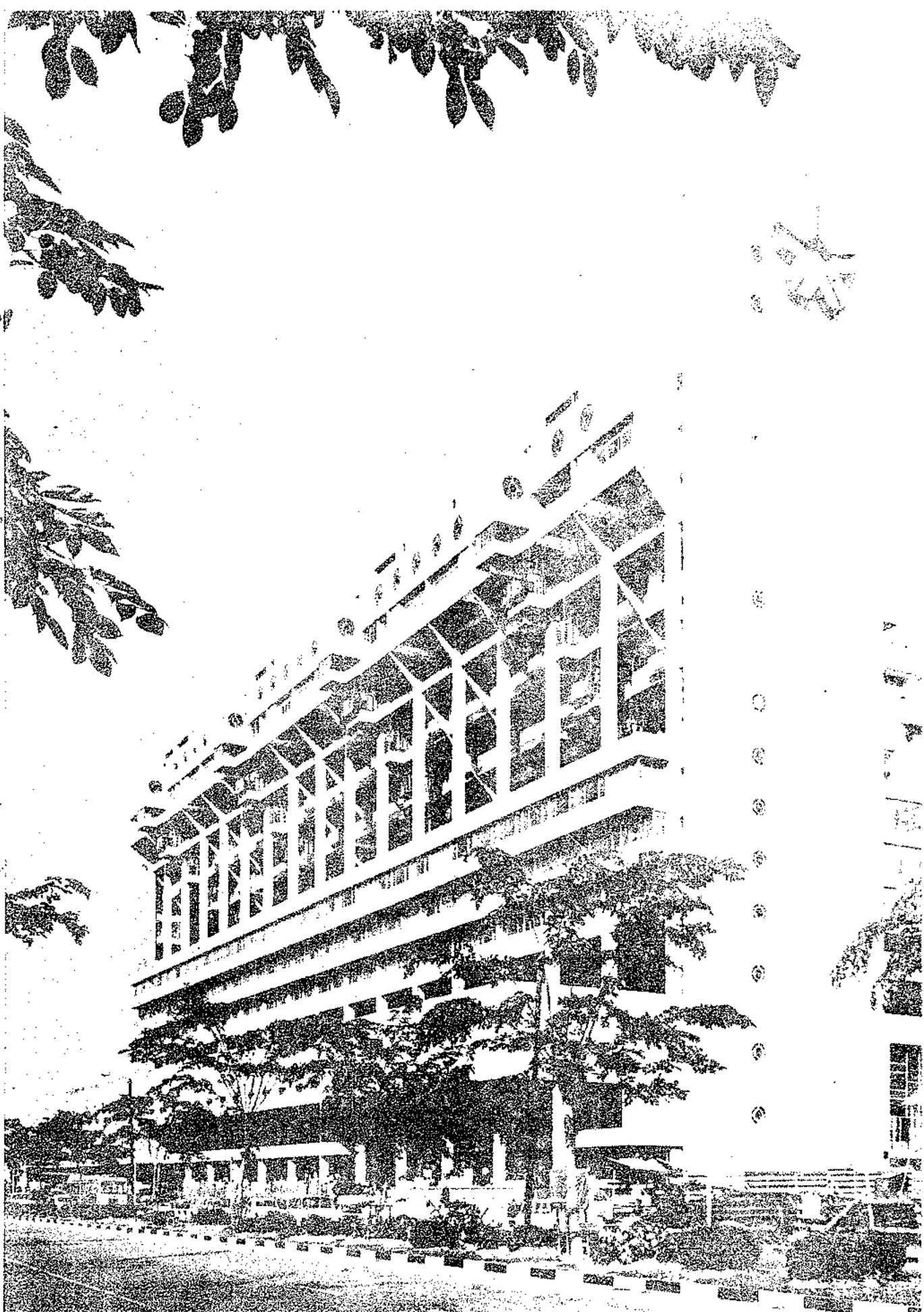
오케스트라와 로비명면도

1. 대강장
2. 로비
3. 주차장
4. 아래층 주차장입구
5. 오케스트라석
6. 무대



자동차입구와 오케스트라층

1. Wood shop
2. 분장실
3. 연습장
4. 포탈은 곳.
5. 페인트실
6. 오케스트라석
7.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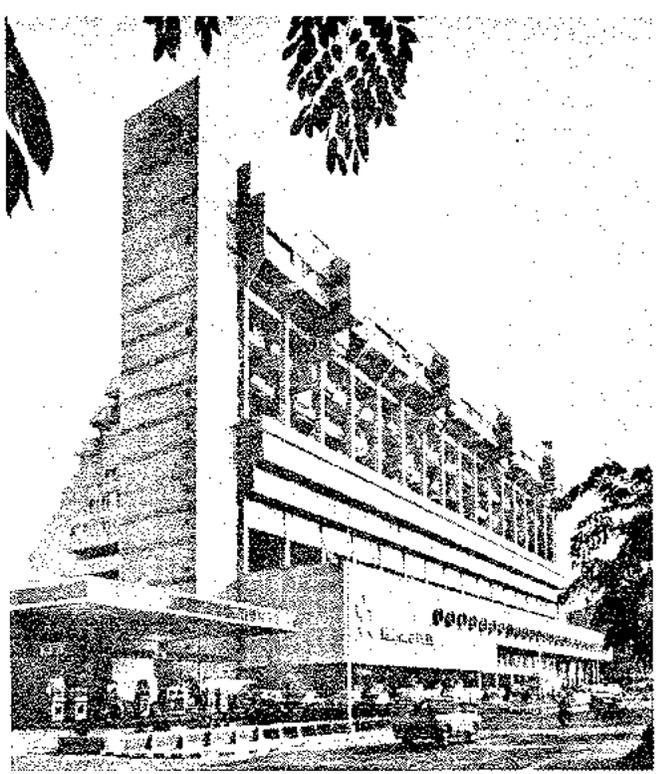


쇼핑센터 (싱가포르)

싱가포르정부는 1964년 이래 도시지역 再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변화가 될 이지역에 쇼핑센터가 13,540sq. m 空地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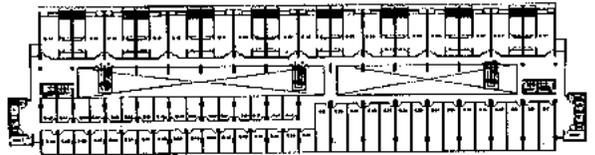
未來에 인접해 있는 空地를 합쳐 이 建物を 擴張할 수 있도록 3층까지는 中央広場을 두었으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歩道를 잘 만들어 놓았다.

쇼핑센터는 3층까지이며 총360개의 점포가 마련되어 있으며, 事務所는 이 쇼핑센터 윗층에 있는데 간단한 事務를 볼수 있는 곳과 寄宿하면서 勤務할 수 있는 設備를 갖춘 두가지 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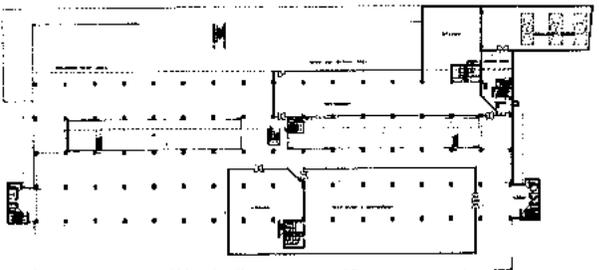


OWNER : Singapore Developments Pte., Ltd.
 ARCHITECT : Design Partnership :
 Gan Eng Oon
 William Lim
 Tay Kheng Soon
 Chan Sui Him
 STRUCTURAL ENGINEER : Ove Arup &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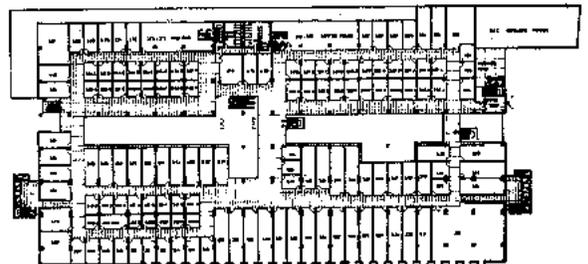
7th FLOOR



11th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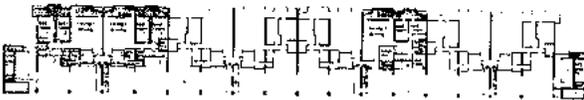


12th FLOOR



11th FLOOR

14th Floor Plan Similar to 11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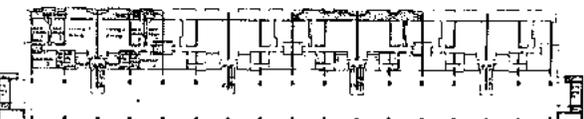
15th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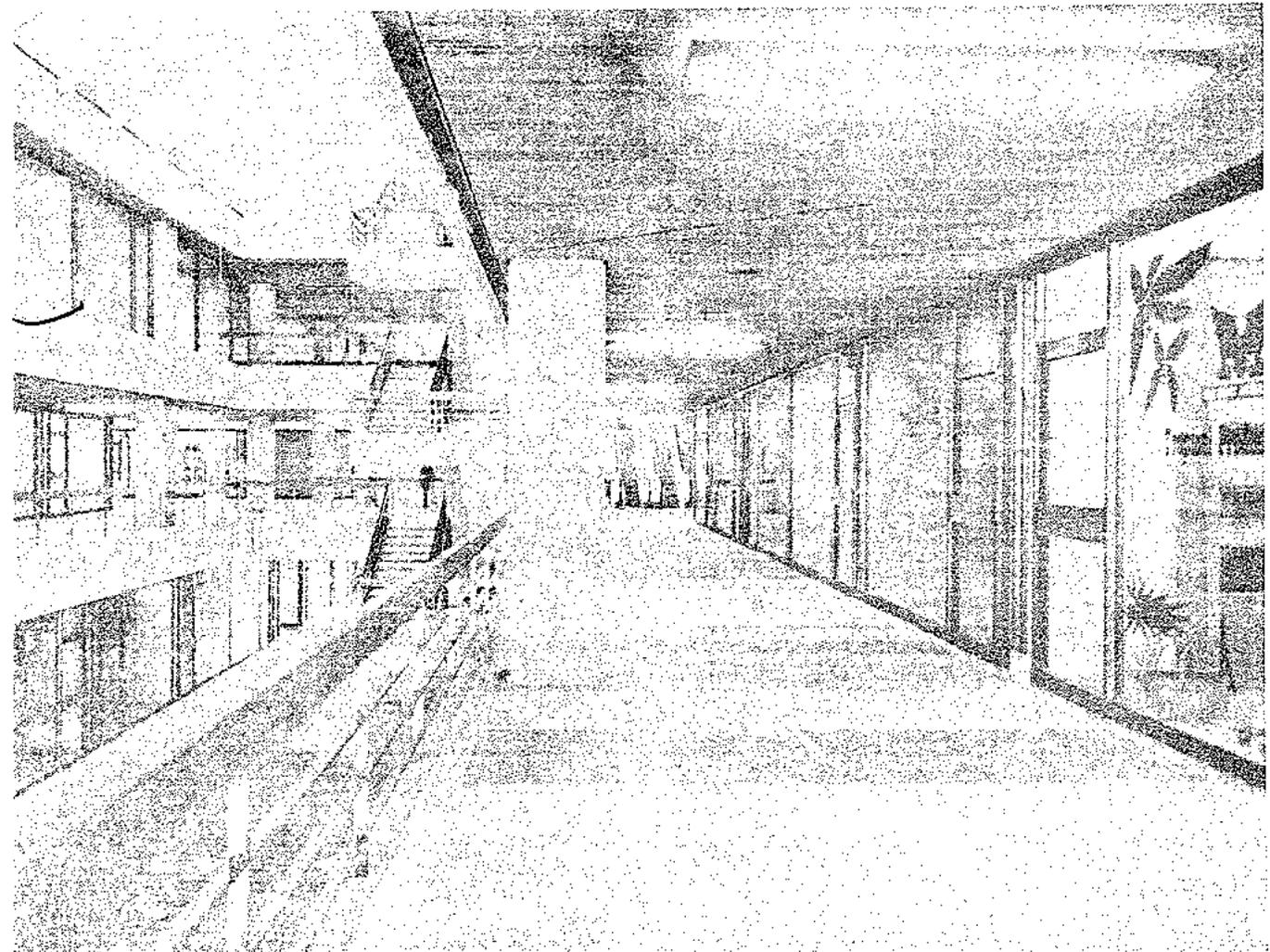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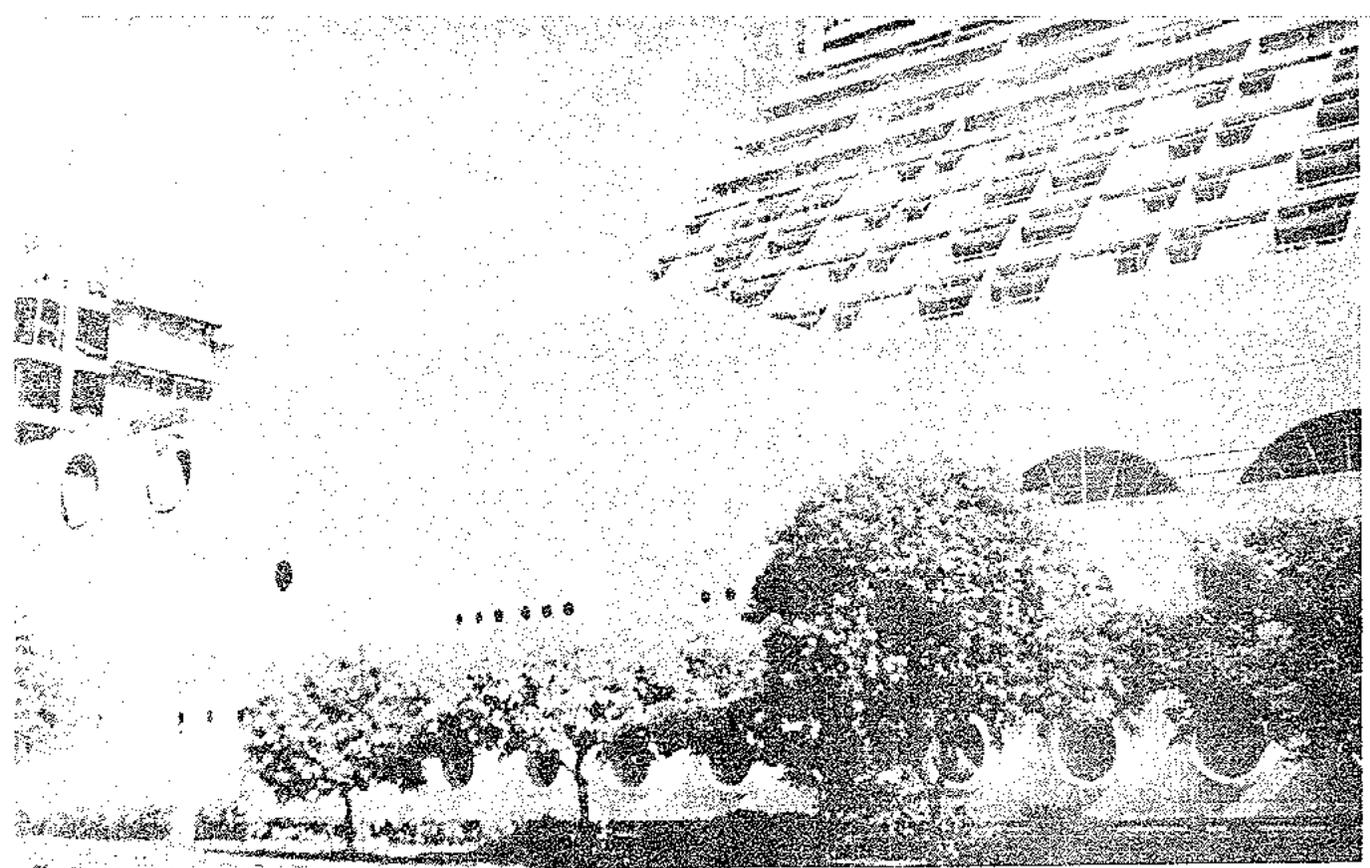
15th Floor Plan Similar to 11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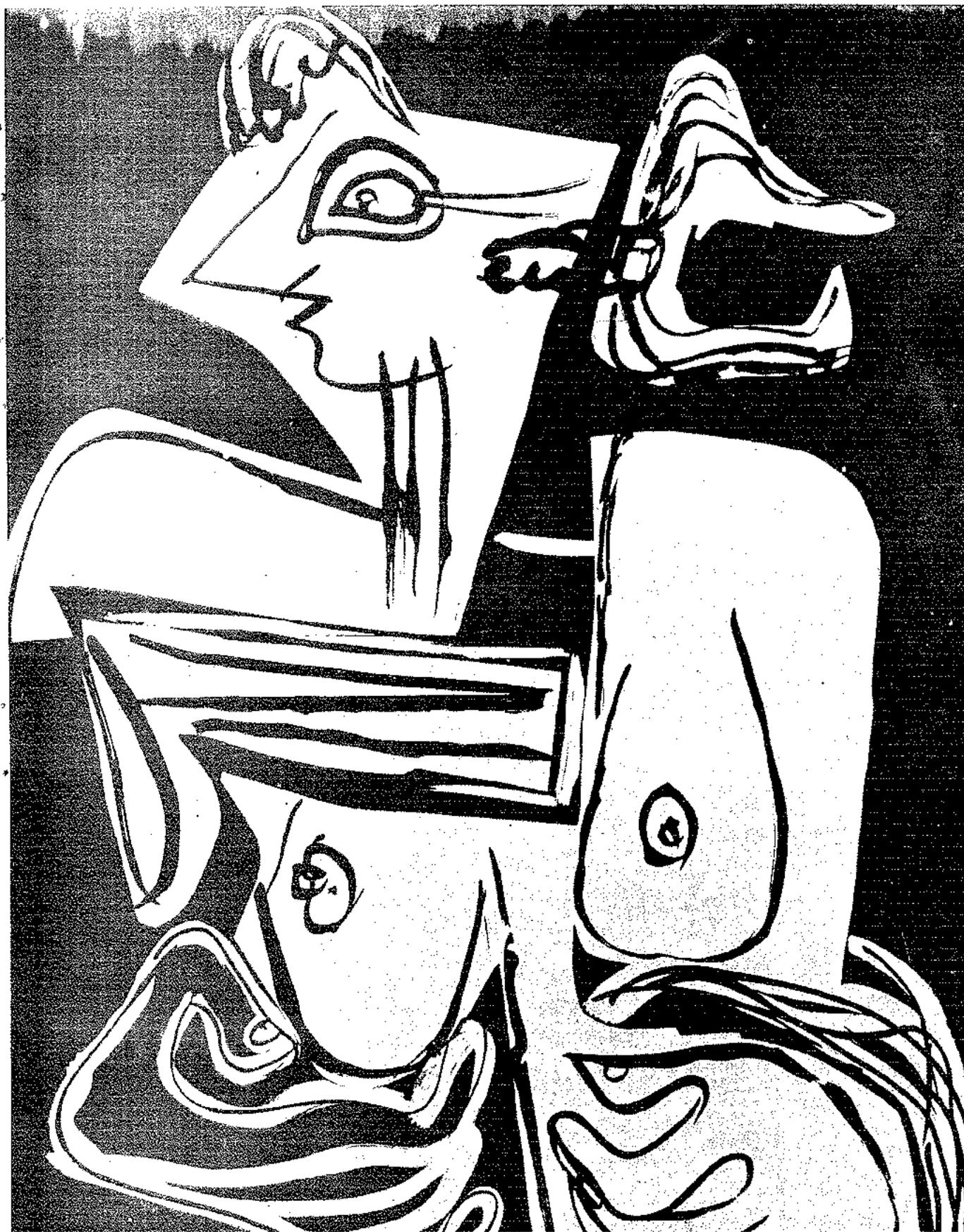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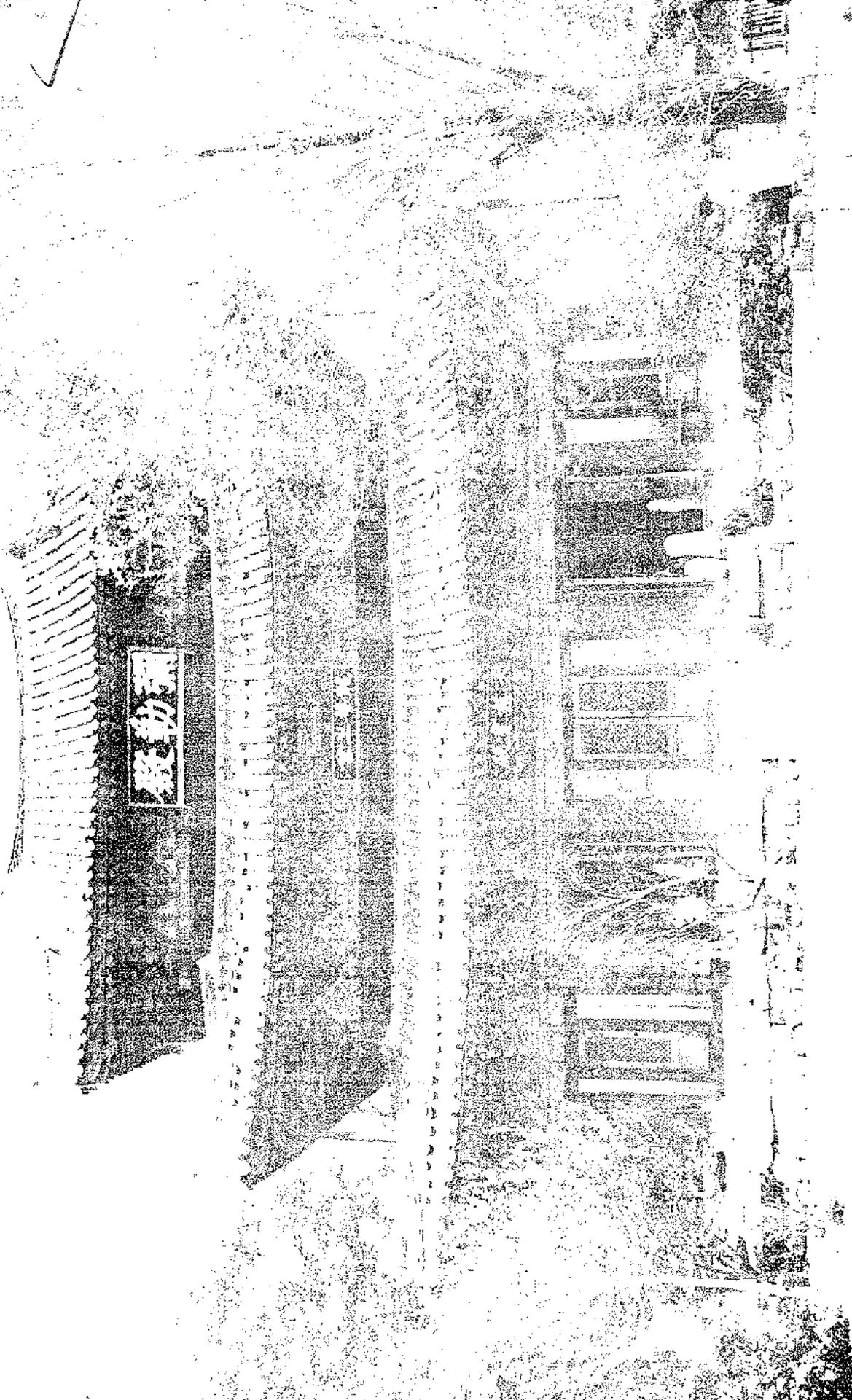
16th FLOOR

16th Floor Plan Similar to 11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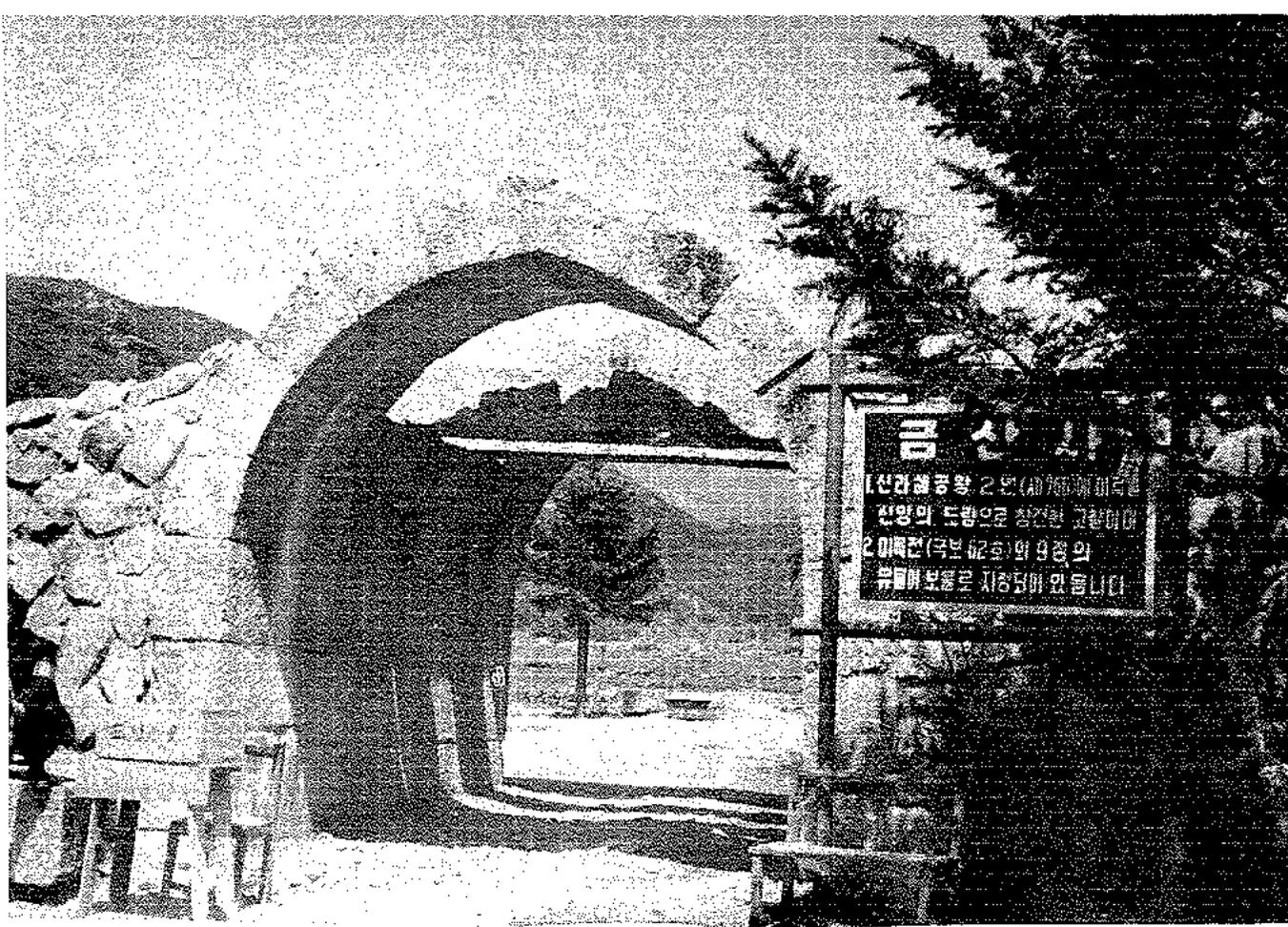




金山寺 彌勒殿 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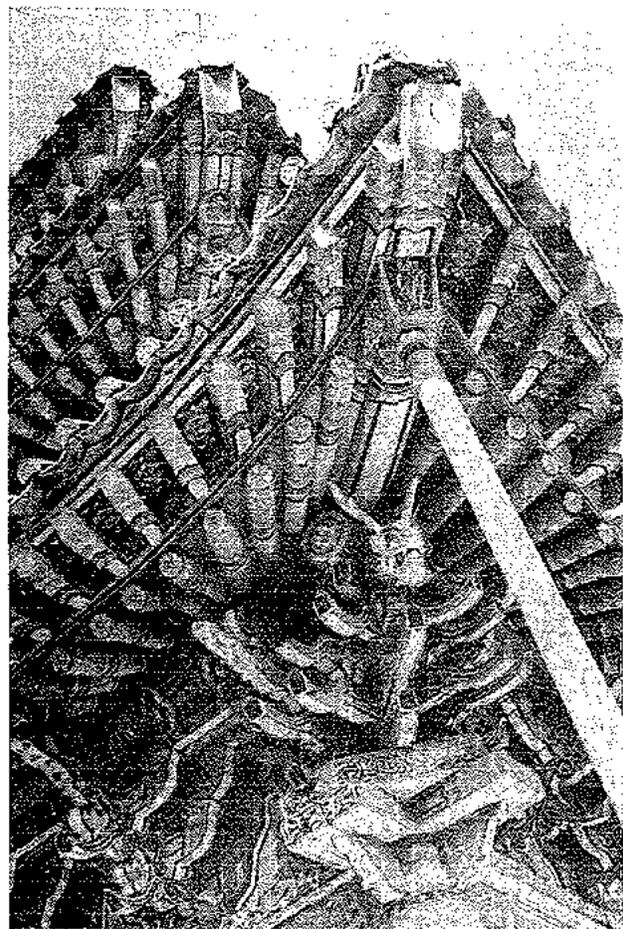
• 国宝 第62号

所在地：全北 金堤郡 金山面 金山里 金山寺는 百濟 法王元年(서기599年)에 創建되었고 서기 766年 真義律師에 의하여 重修되어 王氏倭亂 때 燒燬되었던 것이기에 現存하는 建物は 仁祖 13年(1635年)에 再建된 것이다.



金山寺 入口

- 門樓가 있었던 자리였는 듯 하다. 金山寺에 올라가는 入口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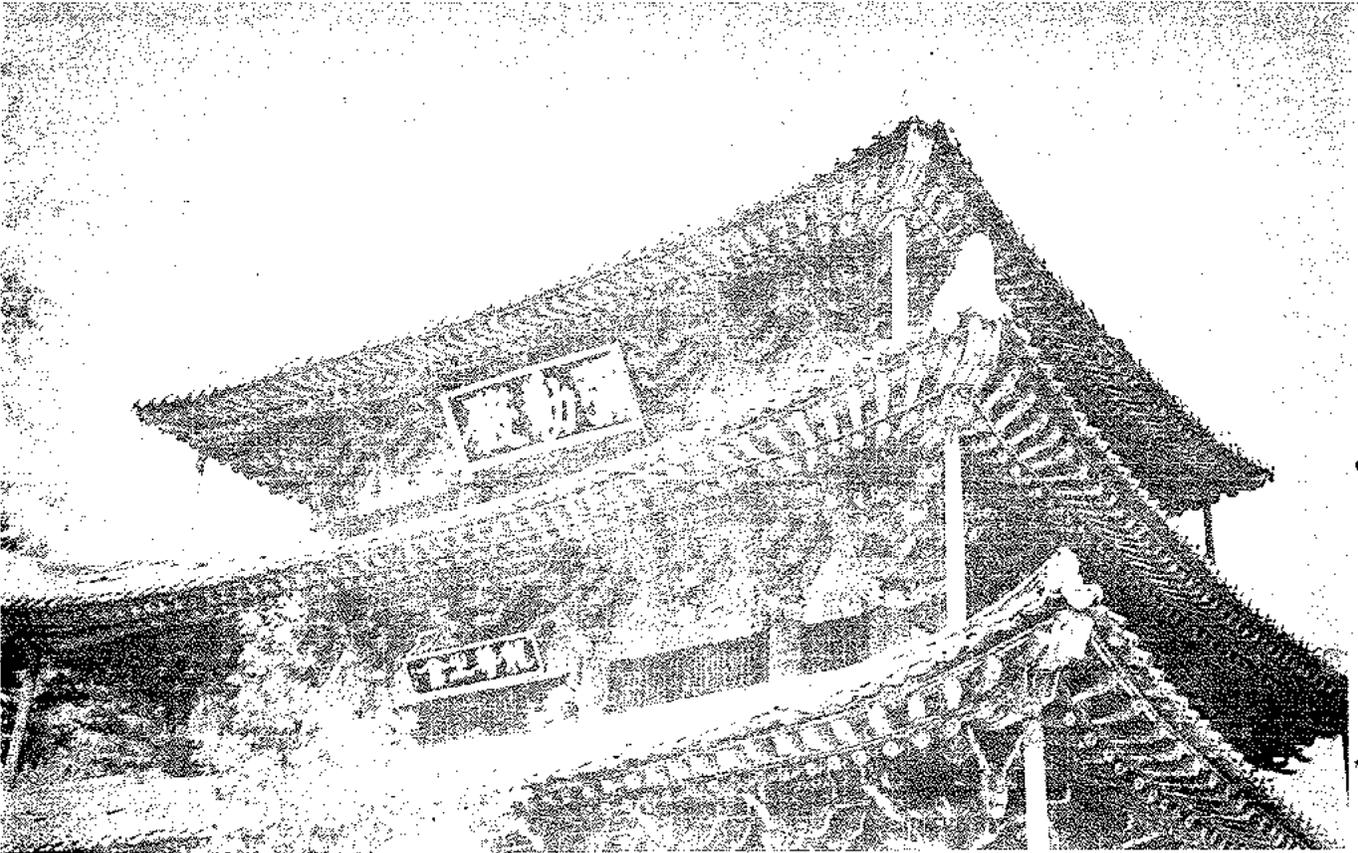


韓國의 古建築 〈探訪〉

3. 金山寺 篇

撮影：金 鴻 植

- 金山寺 彌勒殿 후녀部分



金山寺 彌勒殿 처마曲 = 規模가 極大하고 上部의 遶梁이 크기 때문에 安冠된 느낌을 준다.

金山寺 彌勒殿 前面





金山寺 彌勒殿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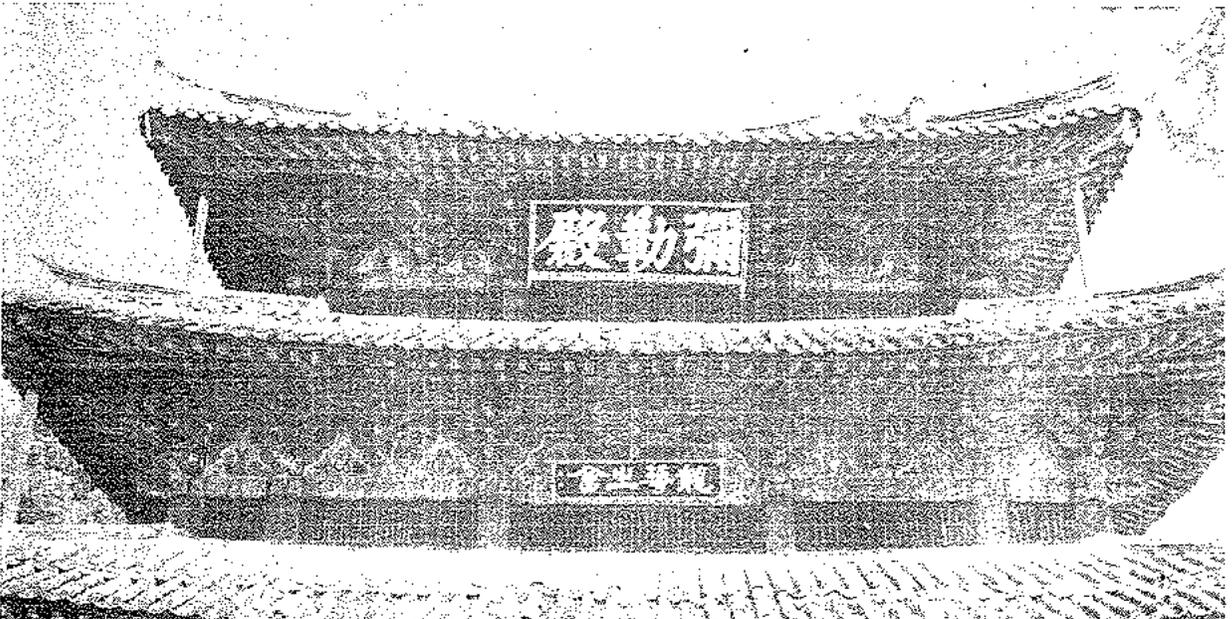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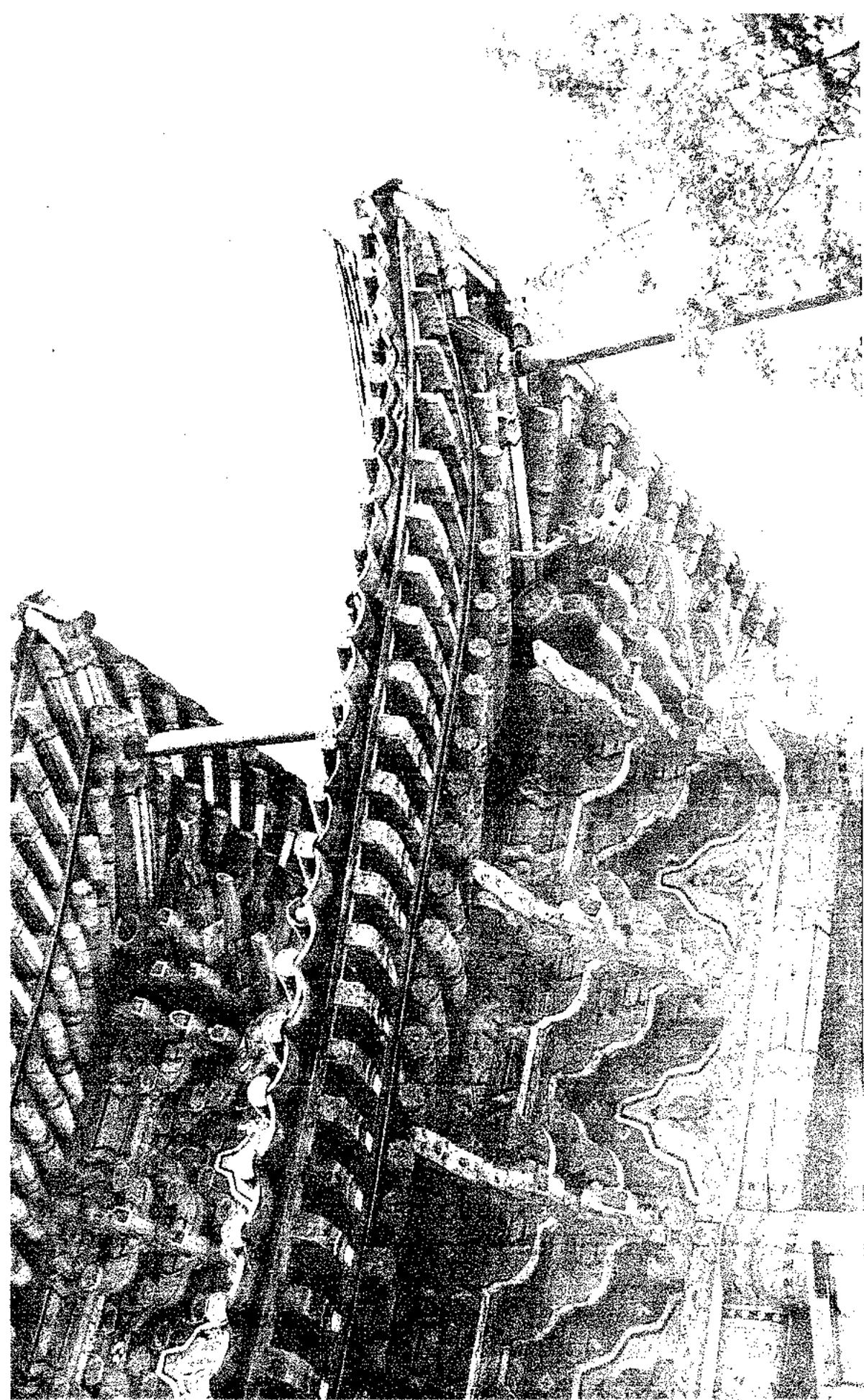
金山寺 彌勒殿 前面2層 및 3層

- 공포는 内外 二出目으로 外部 첨자는 半香, 内部 첨자는 雲工으로 되었다.

金山寺 彌勒殿 基壇 및 처마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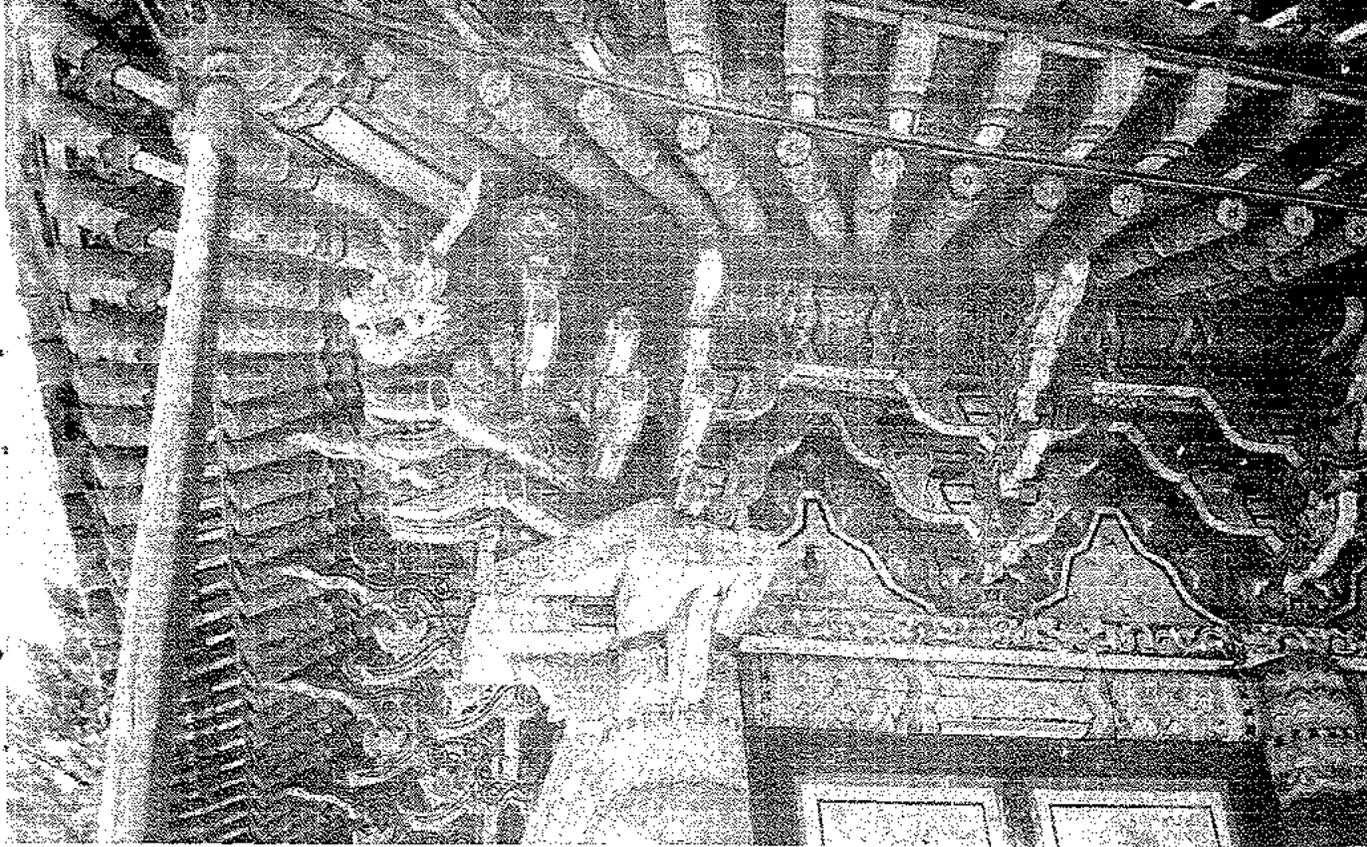
- 基壇은 正前 兩端에 石階를 가진 石造基壇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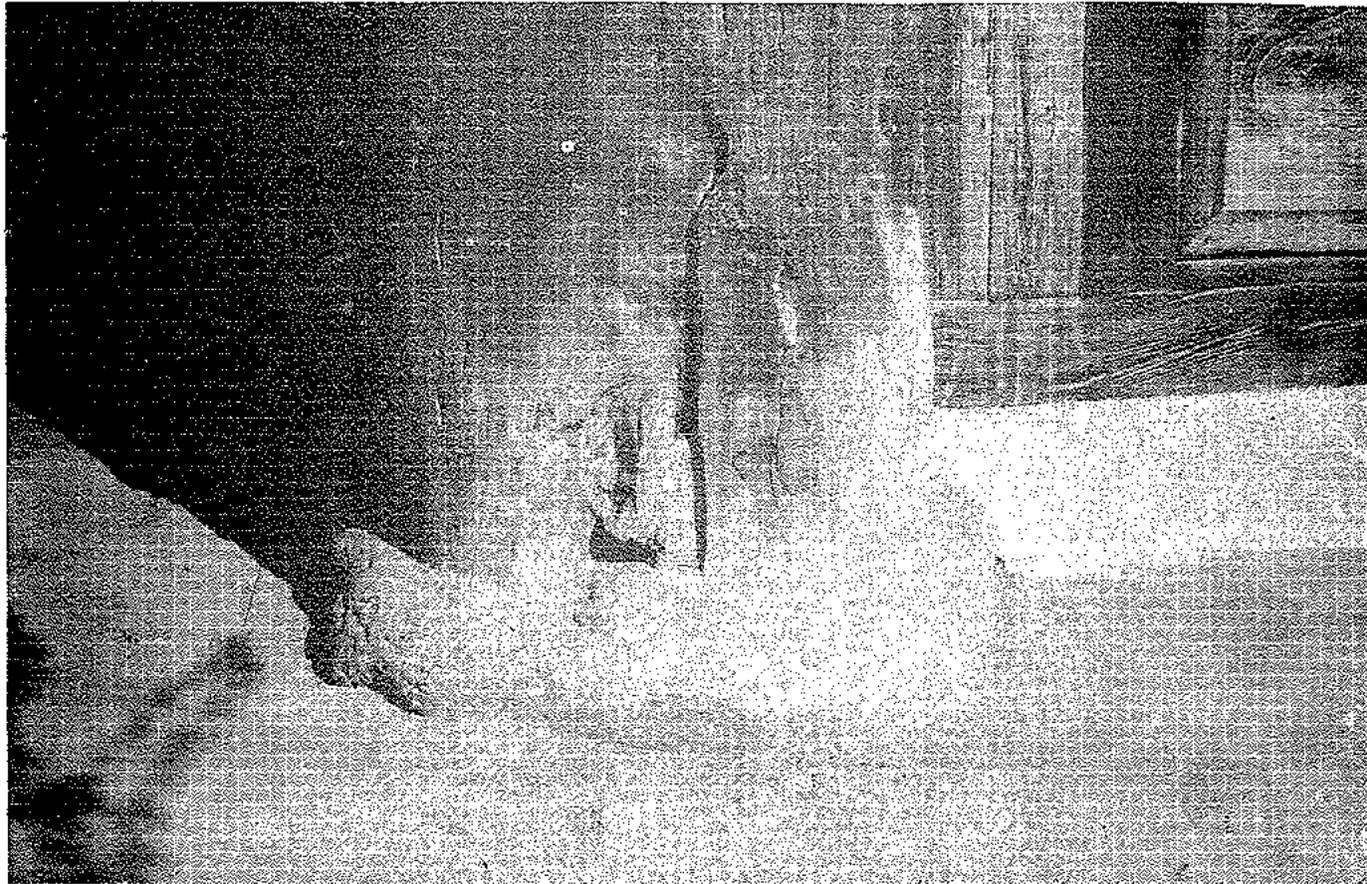
金山寺 彌勒殿 傘下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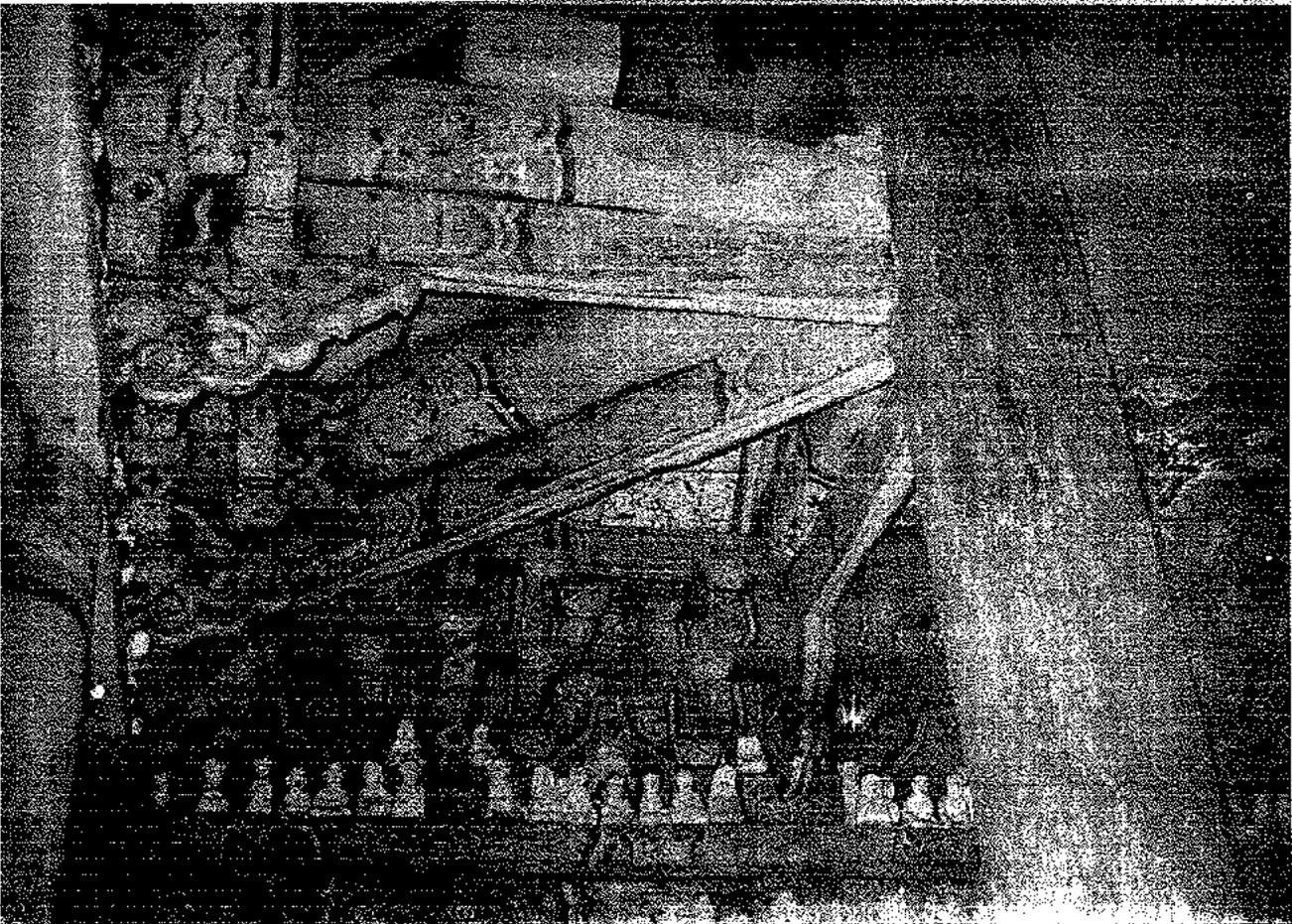
● 初階과 二階의 木骨은 그 構이 堅固하게 變어나와 外見도 美를 發하고 그 아늑 裝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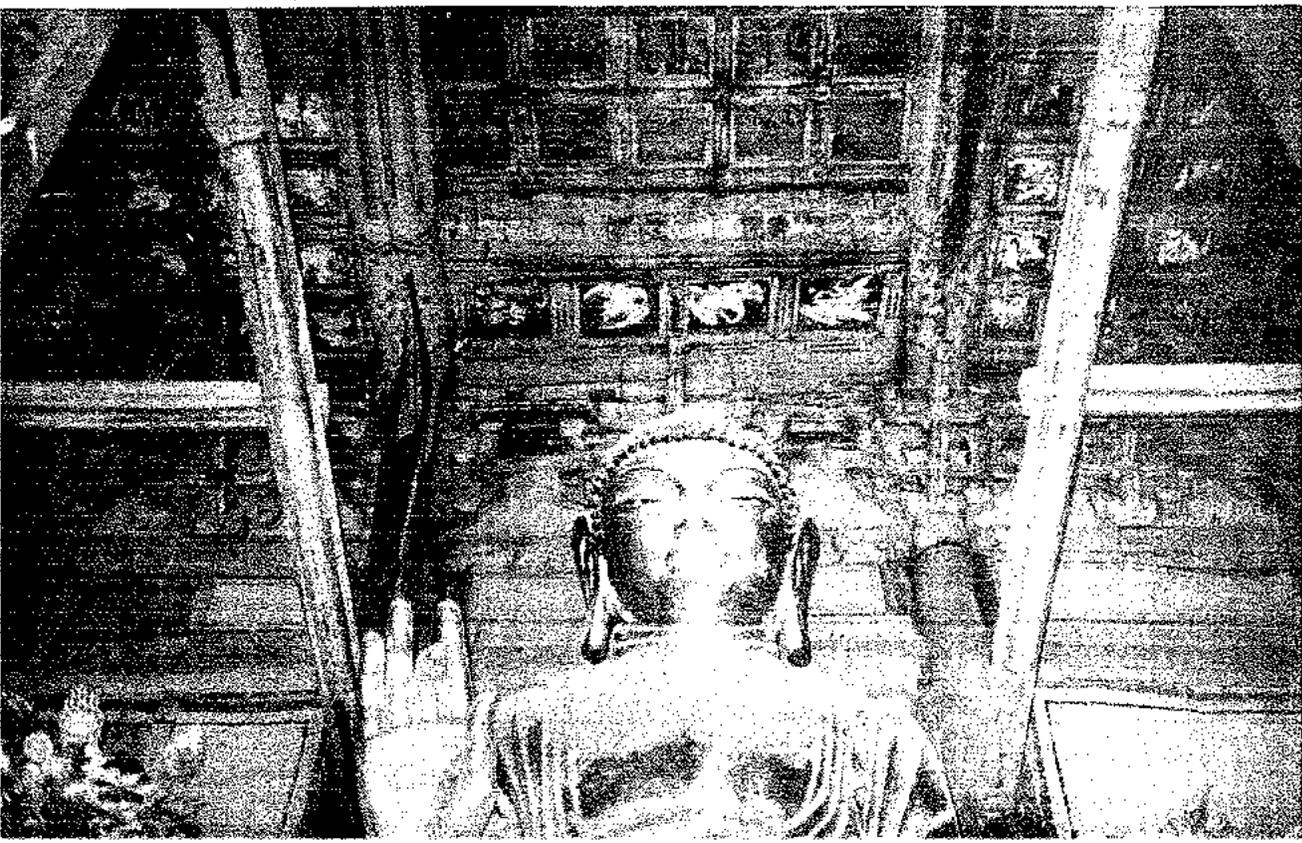
金山寺 彌勒殿 外部 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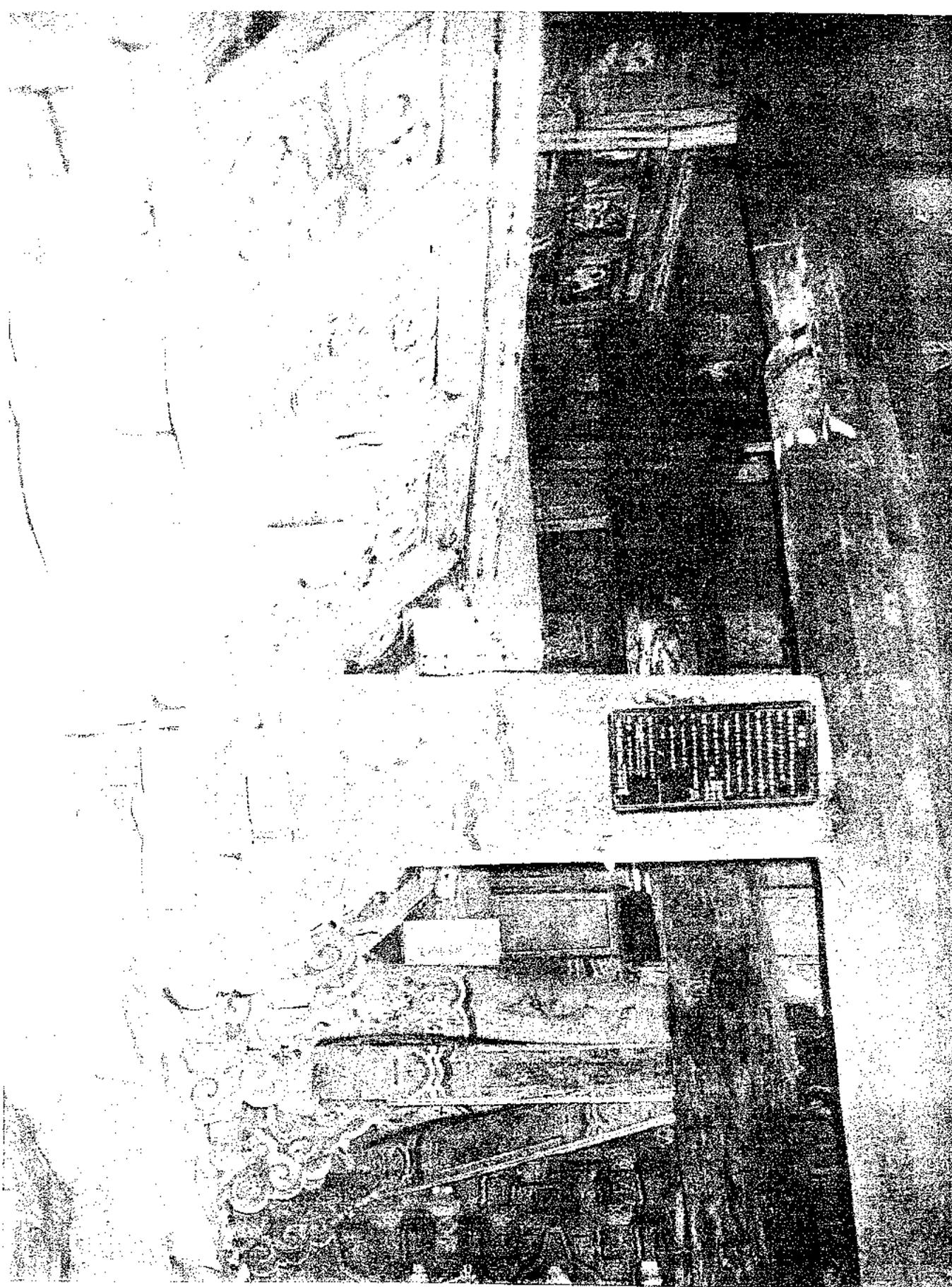
金山寺 彌勒殿 隅柱 礎石 ● 礎石은 큼직한 自然石으로 덤벙추르이고 기둥은 隅柱가 한결 얇은 圓柱이다.





金山寺 彌勒殿 内部 隅柱 ● 高柱는 한토막으로 된 巨大木을 使用치 않고, 몇 토막의 나무를 이어 만들었다. 이 特殊한 架橋方式은 木造塔藏의 架橋方式에서 볼 수 있는 心柱에 各層 기둥이 連結되는方式에서 翻案되어 한개의 心柱 代身에 네개의 高柱가 使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金山寺 彌勒殿 内部 天井 ● 内部는 通層으로 되어있어 이 空間을 커다란 부처가 차지 하고 있는데, 3層에 걸친 窓으로 빛이 비추어 부처의 얼굴





金山寺 彌勒殿 内部 眺望。梁構方式은 初層에 高柱 4個와 그 밖에 20個의 邊柱를 せ우며 高柱와 邊柱를 커다란 의자로 連結하고, 二層은 이 의자위에 二層邊柱를 세워 그 上부 高柱와는 역시 의자로 連結하게 된다. 三層은 高柱가 그대로 欄柱가 되어 그 위에 팔작 지붕을 올렸다.

生石灰을 사용한 安全 確實한 土質安定工法

(Pack Lime 工法)

國立建設研究所 技 功

軟弱地盤에 있어서 生石灰을 사용한 土質 安定處理 工法中 Pack-Lime 工法에 對하여 記述코자 한다.

本 工法은 生石灰을 粉末 그대로 投入함으로서 Casing 內의 물과 生石灰의 급격한 水和作用으로 投入過程에서 粉末의 飛散과 所定量의 投入이 不確實한 欠點을 補強하기 爲하여 特殊 포장지인 吸水性 포대에 生石灰을 넣어 Unit 로 만들어 Casing 內에 投入하여 連續된 生石灰 말뚝을 築造하는 工法이다

1. 概 說

含水比가 큰 粘性土質로 된 軟弱地盤의 安定處理에 對하여 生石灰을 主成分으로 하는 材料를 利用하여 從來 工法의 各種 欠點을 보장하는 것으로 生石灰을 特殊包袋에 넣은 Unit를 사용한 새로운 土質安定工法을 開發한 것이며 큰 成果가 期待된다. 生石灰은 흡수속의 물과 反應을 일으켜 消石灰로 變化하는 過程에서 ①水和 ②膨脹 ③發熱 ④毛細管吸水 ⑤吸着 등의 作用을 한다.

生成된 消石灰는 粘土鉱物과 水和하여 水和物을 만들어 安定化 한다.

生石灰을 사용한 土質安定工法은 Sand-drain工法 또는 Sand-Compaction 工法 등 各種工法에 比較하여 理論的 또는 實驗的으로 가장 効果的인 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施工에 있어서 生石灰을 主成分으로 하는 材料를 取扱하는데 特別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取扱하는 方法이 適切하면 事故나 失敗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生石灰의 利用을 주저 하고 있는 傾向마저 있다.

生石灰을 사용하는 土質安定處理 作業은 가루 모양의 生石灰의 取扱 中에 그

粉末이 주위에 퍼져 사람이나 가축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 이는 生石灰을 가루로 使用하는 工法의 큰 결함이라 하겠다.

또한 生石灰을 가루로 取扱하는 境遇는 그 使用 數量의 確認이 困難하다.

그래서 生石灰 杭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Casing 內에 投入한 生石灰가 流入된 물에 接하여 급격하게 水和하여 그 結果 投入材料가 뿜어오르든지 Casing 을 막기도 하고 所定の 個所에 所定量의 生石灰을 投入하는데 방해되고 연속된 生石灰 杭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들 各種 欠點을 보장할 目的으로 여러가지 研究를 하고 있다. 그 一例로서 生石灰의 消和作用을 一定時間 지연시키기 爲한 化學的 研究나 Casing에서 一定量의 生石灰을 排出시키기 爲한 特殊 機械裝置등이 提案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提安도, 安全 確實한 作業을 하기 爲하여 本質的인 解決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生石灰을 粉末로 그대로 使用하는 限 粉末의 飛散이나 Casing 內에 있어서의 물의 吸水·膨脹·粘着 등의 現象을 完全히 막을 수가 없다.

2. Pack Lime 工法에 對한 施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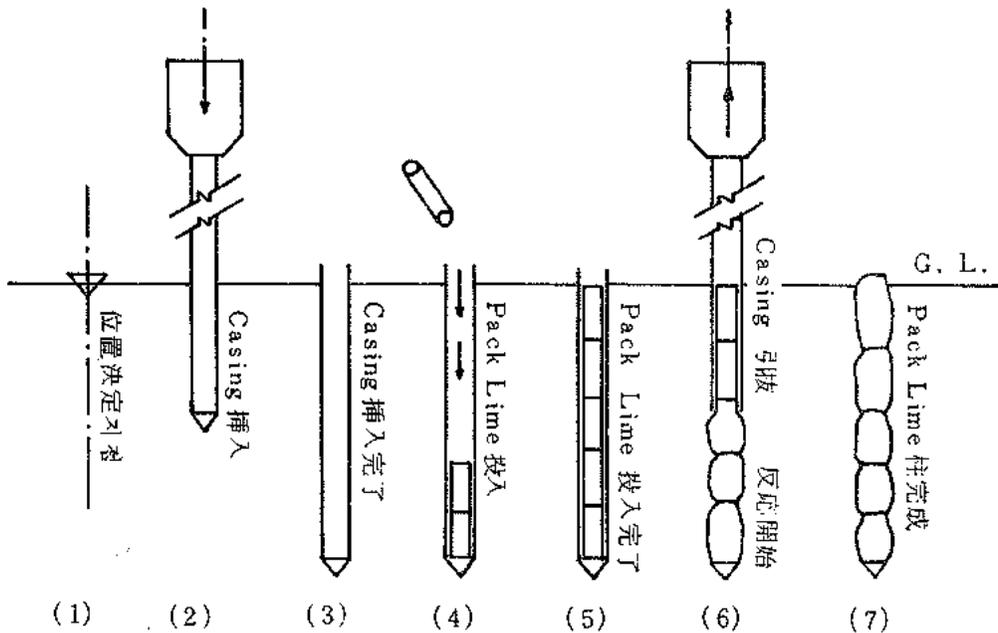
Pack Lime (包裝 石灰) 工法이라고 부르는 新工法은 粉末의 生石灰를 使用하는 從來의 工法에서 欠點을 보강하기 爲하여 生石灰를 特殊包裝(吸取중이 같은 特殊處理된 종이등)에 넣어 Unit 로서 使用하는 方法으로서 安全 作業이 될 뿐만 아니라 定量을 充分히 投入할 수 있고 確實한 成果를 얻을수 있다.

施工 順序는 그림과 같이 우선 바이브로 함마(Vibro Hammer)로서 所定의 깊이까지 Casing 을 插入한다. 이때 →

Casing 內에 흙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先端 Point 로 位置를 決定하여 설정해 둔다.

Casing 의 插入이 完了하면 이속에 Pack Lime 을 投入하고 投入이 完了하면 Casing 을 뽑는다. Casing 引拔時에는 同時에 生石灰가 흙속의 물과 反應을 開始하여 수분을 吸水하고 消石灰로 된다. 同時에 직경도 膨脹하여 Pack Lime 기둥이 完成된다.

이렇게 하여 含水比가 큰 軟弱層도 最少 2 週間으로 단단한 地盤으로 改良할 수가 있다.



3. 工法利用의 效果

Pack Lime 工法을 使用한 境遇의 效果로서는 다음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1) 表層 土質安定處理로서의 效果

- ① 粘土의 Trafficability 의 向上
- ② 軋圧 다짐強度의 急速增加
- ③ 噴泥·凍土의 防止
- ④ 捨土 軟弱土의 有効 利用

(2) 深層 安定處理用 生石灰Pile 로서의 效果

- ① 軟弱 粘土質·地盤支持力의 急速 增加
- ② 載荷盤土(Pre-load) 없이 압밀完了
- ③ 軟弱地盤의 圧密沈下阻止 또는 低減
- ④ 假設止水壁·假設支持壁의 造成
- ⑤ Sliding 破壞의 防止
- ⑥ 基礎地盤의 振動 輕減

(3) 工費 및 工期

- ① Sand Pile과 施工要領이 類似하여 工費는 모래와 生石灰의 材料量에 左右되나 約20%의 工費節減이 可能할 것으로 본다.
- ② Sand pile 및 Sand mat 工法보다 約5분지 1의 短時日에 地盤改良할 수 있고 그 效果가 確實하다.
- ③ Casing先端 Point의 特殊裝置가 不必要하여 施工要領이 간단하다.

4. 實 驗 工 事

Pack Lime 工法의 施工이 軟弱地盤에 影響을 주는 效果에 對하여는 日本 千葉 縣 市原市の 昭和基礎工業(株)의 千葉 工場 構内에서 實驗工事が 實施되었다.

이 實驗에서는 N值가 0인 極히 軟弱한 地盤에 直徑3.2m의 Casing을 打入하고 이 속에 先端 Point 9개를 넣어 놓고 Pack Lime 投入導管(φ260mm 길이 3.2m)를 挿入하여 Pack Lime (φ220mm 길이 400mm)를 投入하였다.

그 후 Pack Lime의 效果를 調査하기 爲하여 1週日間 뒤에 貫入試驗을 하면서 Check Boring을 하고 2週間 뒤에는 實驗個所를 굴착하여 기둥모양의 Pack Lime의 調査가 끝났다. 그 結果 實驗

個所의 地盤은 N值 0에서 20으로 되고 굴착調査에서는 폭쟁이를 使用할 程度로 단단한 地盤이 되었다.

또 日本大學 理工學部 土質研究室 土質試驗에서 含水比는 Pack Lime 기둥의 部分이 23.5%, 10m 部分이 35.8%, 30m 部分이 47.4%라고 하는 結果를 얻었다.

※註：日本国 金沢工業大學 教授 小野 竹之助 研究開發
日本国 昭和基礎工業 Co. 施工実績

建築法에 對한 質疑 · 回信

(건축법에 대한 질의)

질의: 서울특별시 (73. 12. 24.)

회신: 건설부 (74. 4. 20.)

- 圖 1. 타인 사유지를 주민들이 수년간 무단히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상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동 통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 圖 1. 타인 소유 매지로서 현재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는 기존건물의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2조 제15호 규정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보아야 함으로 동 토지상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함.
- 圖 2. 동 통로가 유일한 통로는 아니더라도 통로가 폐쇄될 경우 우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시 건축허가 여부.
- 圖 2.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상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타인의 건축물에서의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음.
- 圖 3. 통행도로가 건축법 제2조 15항에 규정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 圖 3.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27조(건축법 제2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에서는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건축허가 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가"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함.
- 圖 4.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 고시는 되어 있으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일 도로로 본다면 동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사유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일체의 사실상 통로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圖 4. 도시계획 도로로서 확정고시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도로로 볼 수 있음.

(건축법 운영의 문제점)

질의: 서울특별시 (74. 3. 4.)

회신: 건설부 (74.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막다른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200 미만	10m 미만	2 m
	10m 이상 35m 미만	3 m
	35m 이상	6 m
	10m 미만	3 m
200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4 m
	35m 이상	6 m

상기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 圖 1. 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매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한다. 하였으니 도시 "A"와 같이 매지의 연장 길이(L)이 달라짐에 의해 상기표를 적용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1" "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1. 부지연장 길이에 (L)에 대한 도로에 면한 부지폭(w)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2. 지목이 도로(또는 현재 도로)인 (L)에 대한 도로폭(w)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1"를 적용하는데 부지연장길이(L) 35이상이라도 매지가 도로에 2m만 접하면 되는지?
- 圖 1. 도시 "A"의 막다른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매지연장인 통로 부분에 대하여는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38조의 규정이 준용됨.
- 圖 2. 도시 "B"의 경우 도로폭(w)에 비해 상기표를 적용치 않고 건축법 제2조 15 및 동법 제30조 단지 규정을 적용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 圖 2. 도시 "B"의 경우도 막다른 도로로서 영 제13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

㉓ 3. 도시“C”와 같이 도로(γ)의 길이가 35m 이상 폭원 4m이며 도로(L, C, ㄱ)의 길이가 아래도시“C”와 같을 때 상기표를 적용한다면 도로(γ) 보다 도로(L)의 폭원이 넓어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

1. 도로(γ)도 막다른 도로로 규정하는지?
2. 도로(L, C, ㄱ)을 막다른 도로로 상기표를 적용하여 처리하는지?
처리할 경우 막다른 도로의 시점은 어느 부분부터 규정하는지?
3. 대지A가 35m 이상 및 10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어느 막다른 도로(L, ㄱ중)를 적용하는지?

㉓ 3.

- (가) 도시“C”의 γ도 막다른 도로임.
(나) 도로(L, C, ㄱ)도 막다른 도로로 영 제 13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 막다른 도로의 시점은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γ)가 분기되는 지점임.
(다) 대지가 2개 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그중 1의 막다른 도로가 영 제 138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영 제 13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부분의 건축선은 동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에서 각각 영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의 1/2에 상당하는 거리 이상을 후퇴한 선이 되는 것임.

㉓ 4. 도시“D”와 같이 막다른 도로로 적용한다면 통과 도로로부터 당해 대지에 이르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L)에 따라 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㉓ 4. 영 제 138조의 표의 적용에 있어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만 당해 막다른 도로 전체의 길이를 말함으로 도시“D”와 같이 할 수 없음.

㉓ 5. 도시“E”와 같이 건축법 제 50조 단서규정에 경사지가 있을 때 그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폭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상기표를 적용함에 있어 경사지 또는 기존 건물로 인하여 도시“E”와 같이 후퇴하면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바 이러한 경우 도시“E”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㉓ 5. “마”에 대하여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그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의 폭이 6미터 이상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E”와 같이 그 도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폭이 6미터 미만이 되도록 적용함은 불가함.

㉓ 6. 도시“F”와 같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5m 후퇴하여 건축한(A구역) 기존 건물이 밀집되어 4m 이상 도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B구역)에 건축한다면 해당대지만 4m ~ 6m 이상을 후퇴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㉓ 6. 건축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구역에서는 현재에는 동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장래에는 동규정에 적합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B”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A”구역의 도로폭과 관계없이 영 제 138조에 규정한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A”구역의 도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개축, 재축, 이축 또는 철거 후 신축시 영 제 1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임.

㉓ 7. (γ, L, C)의 도로의 길이가 도시G와 같은 경우(γ, L, C)의 도로 폭원은 얼마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연면적 산정에 있어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고층건물인 경우 승강기 탑다스트슈트 파이프덕트를 층별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가” “나”항중 어느 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가) 건물 층고에 따라 매층 가상구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연면적을 산출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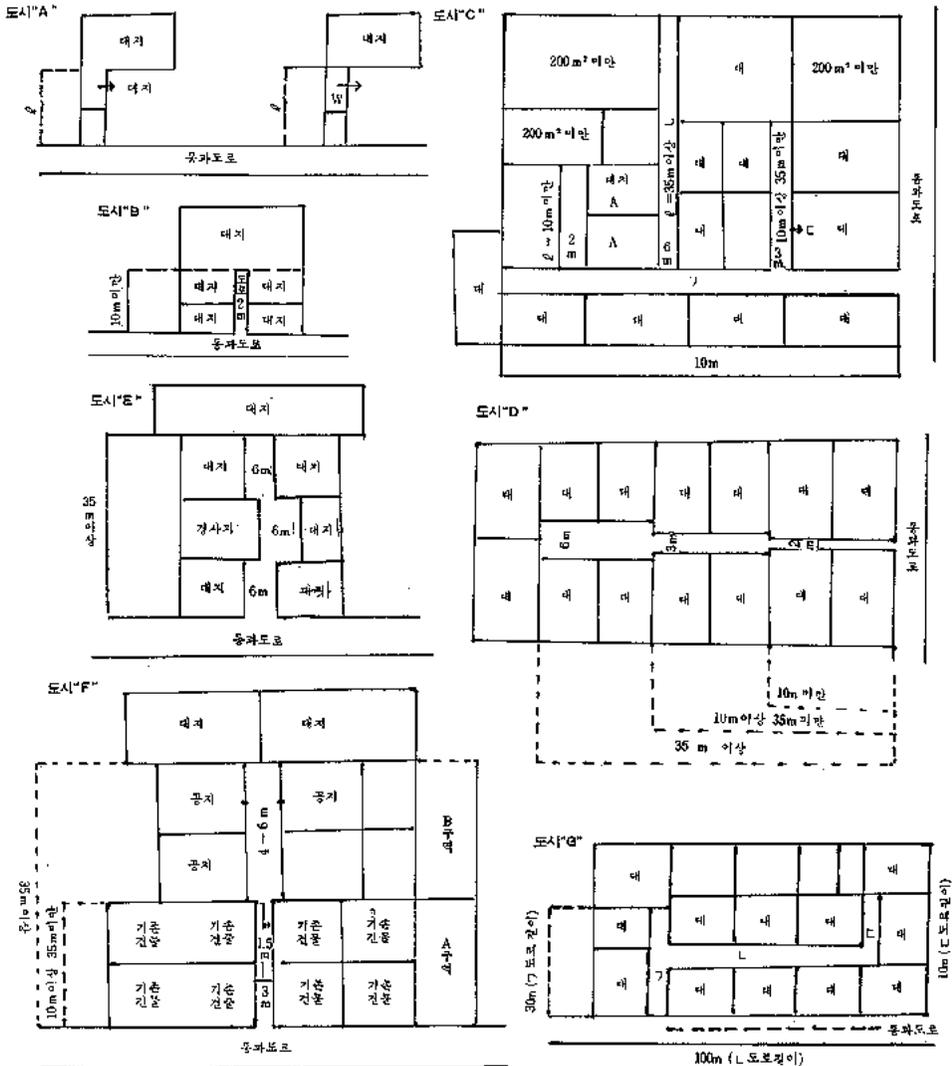
(나) 1개층 바닥면적만 가산하여 연면적을 산출하는지?

3. 건축법 제 2조 3호의 특수 건축물 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 142조 별표에 계기한 사원, 교회, 종교용 건축물등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중 교회를 집회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및 지하층부분과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보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된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내화구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가. 단층철골기둥(앵글 및 파이프기둥포함) 및 벽돌 벽체로서 철골 데크스 스퀘이트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화성능을 가진 철골조는 무엇인지?

7. 막다른 도로의 시점은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분기점이므로 귀문의 경우 도로(Γ, L C)의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질의 2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승강기로 다스트슈트등의 바닥면적은 건축물, 대층에 가상구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함.

질의 3항에 대하여.

건축법상 집회장이란 특정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일정한 시간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용도규제에 있어서 단순히 집회의 장소로서 보다는 종교, 풍속등 그 집회의 성격에서 오는 특징을 기준으로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음.

라. 질의 4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아직 정하여진바 없으며 그 기준은 조속 재정하여 시달할 것임.

建築許可統計

1974年度 2月 現在

月別建築許可統計 前年対比

단위: 건 수 연면적: 평방미터

구분 월별	'73		'74		연면적 대비 (%)
	건 수	연 면 적	건 수	연 면 적	
1	2,558	394,409	4,346	813,030	206.1
2	3,837	673,137	8,109	1,009,226	149.9
계	6,395	1,067,546	12,455	1,822,256	170.7

2. 用途別 月別許可統計前年対比

단위: 건수 연면적: 평방미터

년도별 용도별		2			1-2		
		73	74	대비 (%)	73	74	대비 (%)
주거용	건 수	2,935	7,198	245.2	4,841	10,827	223.7
	연면적	225,685	663,723	294.1	373,582	987,235	264.3
상업용	건 수	490	440	89.8	905	763	84.3
	연면적	119,703	83,797	70.0	208,022	226,012	108.6
공업용	건 수	221	233	105.4	330	465	140.9
	연면적	231,305	176,046	76.1	342,779	437,460	127.6
문 교 사회용	건 수	53	66	124.5	90	117	130.0
	연면적	63,881	45,520	71.3	87,811	103,914	118.3
기 타		138	172	124.6	229	283	123.6
	연면적	32,563	40,140	124.1	55,352	67,635	122.2
계	건 수	3,837	8,109	211.3	6,395	12,455	194.8
	연면적	673,137	1,009,226	149.9	1,067,546	1,822,256	170.7

3. 構造別 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건수 연면적: 평방미터

년도별 용도별		2			1-2		
		'73	'74	대비 (%)	'73	'74	대비 (%)
철근	건수	573	583	101.7	959	1,016	105.9
	연면적	339,149	298,072	87.9	527,454	695,664	131.9
조적조	건수	2,733	6,750	247.0	4,223	10,184	241.2
	연면적	294,365	617,634	209.8	437,287	975,958	223.2
목조	건수	234	275	117.5	391	399	102.0
	연면적	13,069	15,412	117.9	21,520	22,723	105.6
기타	건수	297	501	168.7	822	856	104.1
	연면적	26,554	78,108	294.1	81,285	127,911	157.4
계	건수	3,837	8,109	211.3	6,395	12,455	194.8
	연면적	673,137	1,009,226	149.9	1,067,546	1,822,256	170.7

4. 市度別 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건수 연면적: 평방미터

년도 도별		2			1-2		
		'73	'74	대비 (%)	'73	'74	대비 (%)
서울	건수	1,203	2,902	241.2	1,601	4,037	252.2
	연면적	213,098	397,250	186.4	293,075	626,539	213.8
부산	건수	628	1,482	236.0	1,136	2,536	223.2
	연면적	112,235	170,873	152.2	188,805	312,491	165.5
경기	건수	313	420	134.2	882	852	96.6
	연면적	83,524	104,341	124.9	162,703	267,553	164.4
강원	건수	74	96	129.7	104	127	122.1
	연면적	7,214	7,983	110.7	11,745	9,105.6	90.0

충 북	건 수	102	83	81.4	143	132	92.3
	연면적	11,480	8,647	75.3	13,688	13,411	98.0
충 남	건 수	162	288	177.8	249	429	172.3
	연면적	35,804	34,813	97.2	53,977	47,682	88.3
전 북	건 수	158	284	179.7	300	438	146.0
	연면적	23,776	32,577	137.0	31,425	50,189	159.7
전 남	건 수	260	670	257.7	471	931	197.7
	연면적	20,603	43,507	211.2	39,807	66,127	166.1
경 북	건 수	488	1,154	236.5	770	1,668	216.6
	연면적	128,232	135,797	105.9	204,415	203,039	99.3
경 남	건 수	345	546	158.3	570	947	166.1
	연면적	33,754	64,128	190.0	62,193	204,838	329.4
제 주	건 수	104	184	176.9	169	358	211.8
	연면적	3,417	9,310	272.5	5,713	19,818	346.9
계	건 수	3,837	8,109	211.3	6,395	12,455	194.8
	연면적	673,137	1,009,226	149.9	1,067,546	1,822,256	170.7

1. 방위성금 계몽표어
나라사랑 따로없다.
너도나도 방위성금.

2. 종이소비절약 계몽표어
내가아낀 종이한장
나라살림 보탬된다.

3. 부정 외래품 근절 계몽표어.
밀수방지 따로없다.
사지말고 쓰지말자.

4. 반공방침 사상인양 계몽표어
실없는 불평속에
붉은마수 파고든다.

韓國雜誌協會
月刊「建築士」

◇ 新建材씨리즈 ①

밤라이트 篇

금강스레트工業(株) 提供

이번에 國內 스레트 메이커인 금강스레트 공업 주식회사에서 「脫스레트」·「脫合板」의 캐치프래스를 내세우고 新建材 不燃資材壁材인 밤라이트」를 開發하고 試製品을 生産하여 建築界에 耳目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스레트하던 지붕用材로만 認識되어 왔다. 大, 小, 골 스레트 만으로는 成長된 企業으로서의 面目을 維持할 수 없어 同社에서는 地層材에서 壁材로 나아가서는 組立式建材 生産工業으로 發展시키려하고 있다.

이번 그 첫번째로서 大, 小 골 스레트의 지붕재 生産에서 壁材로 一步前進하는 길, 이것이 「脫스레트」의 캐치프래스를 내걸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世界市場에서는 原木의 Nationalism이 팽배하여 國內의 合板業界의 退潮의 그림자가 비치는 느낌이 들고, 日本이나 区美 各國에서도 木材의 代替되는 建材가 繼出하여 그 比重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世界市場의 흐름인바 脫스레트, 脫合板의 建材란 소리가 나오자, 않을 수 없는 것이 市場추세라 할 것이다.

이에 同社는 「밤라이트」의 生産 計劃을 2年前에 樹立하고, 新規施設을 導入하였다. 그리고 3名の 技術者를 6個月間 海外에 派遣하였으며 西獨人技士와 日本人技士를 초빙하여 製品開發과 新規施設을 하여 試運轉과 試製品生産을 서두르고 있다.

本社の 工場은 水原驛后側에 있으며 敷地 35,000坪, 建物 9,500坪 스레트 製造 10系列, 밤라이트 2系列의 시설을 갖고 있는 mammos 工場이다.

밤라이트 現在計劃으로는 50%는 수출할 것이며, 50%는 內需할 計劃이다. 現在 日本에서 注文이 와 있는 실정이며 第2次 加工할 Print 施設도 벌써 지난 3월에 發注가 끝났다.

國內市場에서의 전망은 지금까지 建築法上으로 不燃材를 內裝材로 使用하졌금 되어 있으나 壁材 生産이 되지 않아서 有名無實하던 차 國內 最初의 不燃壁材로서 期待가 크지 않을 수 없다.

10,000/Tons Press 機

「밤라이트」의 製造

① 石綿, Cement, S. P. 顔料 등을 主成分으로 한 特殊配合으로 製造된다.

② 「밤라이트」는 10,000 M/T 프레스(西獨製)로 High Pressing함으로 강도가 높으며, 表面과 두께(厚)가 精密함이 特色이다. 이와같은 高圧프레스는 東洋에서 두번째로 設置된 것으로 國內에서는 처음이다.

③ 「밤라이트」는 진동 「전조르」에 依해서 Dry함으로서 거의 收縮이 없으며 自由로운 塗裝도 可能하다.

④ 「전조르」를 통과한 製品이 自動Cutter機로 切断되어 規格이 一定해진다.

⑤ 配合時 本質 Colour가 投入됨으로 自然美를 살린다.

⑥ 製造時 구루빙을 하여 美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製品의 特徴

- ① 불에 타지 않는다.
- ② 腐敗하지 않는다.
- ③ 壽命이 永久的이다.
- ④ 可撓性이 높다.
- ⑤ 충격에 強하다.
- ⑥ 물에 젖어도 強度低下가 弱하다.
- ⑦ 防熱, 防寒, 防湿性이 優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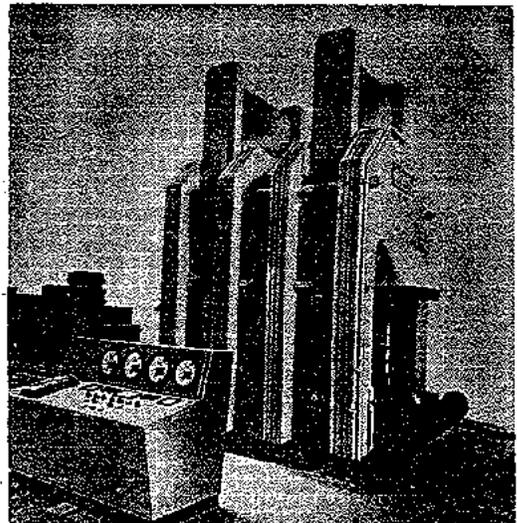
製品의 規格

두께	규격
3.2 mm	4尺×8尺
"	4尺×10尺

※ 적당한 간격으로 구루빙을 할수도 있다.

製品의 用途

- ① 주택, 빌딩, 사무실, 극장, 호텔, 유흥장, 및 天井材
- ② 방직공장을 위시한 특수공장의 防火內外壁 등의 壁材.



建築界뉴스 一스

◇ 建設資材生産業界에서 当局에 建築抑制 緩和 촉구建議.

建設資材生産業界에서는 政府当局에 建築抑制 措置를 緩和해 줄 것을 建議했는데, 韓國洋灰工業協會를 비롯한 關聯業界가 要求하고 있는 이 建議의 內容은

- ① 民間建築의 抑制對象을 全國一門에서 道庁 所在地의 大都市에 局限해야 하며
- ② 民間建築 以外의 建築抑制 對象에서 直接的으로 政府予算과는 關聯이 없는 政府投資機關 및 銀行店舖와 政府에서 認可한 公益法人의 專用事務室을 除外하고
- ③ 民間建築物의 不許對象에서 奢侈性 建物 以外의 事業用 및 商業用 建物は 除外시켜 主도록 要望하고 있다.

◇ 釜山市 工場建築에 公害施設 갖춰야 許可

釜山市는 公害防止對策의 一環으로 工場 建築許可時 建築法과 公害防止의 關係法規에 따른 廢水, 煤煙, 粉塵, 騒音 및 公害를 防止할 수 있는 施設 許可證이 첨부되어 있는 것만 取扱도록 各區庁에 提示했다.

◇ 大韓建築學會 總會 4月27日 國立中央博物館에서

大韓建築學會에서는 4月27日(土) 午後 1時30分 國立中央博物館(景福宮內)에서 '74年度 定期總會와 學術發表會 學位學會賞 施賞式을 거행했다. 이 定總會에서 學會賞으로 技術賞에는 慎武城氏, 作品賞에는 金正秀氏에게 授與했다.

◇ 大韓商工會議所에서도 建築抑制緩和 促求

大韓商工會議所는 最近 國內業界의 大部分이 輸出 및 內需販賣의 不振과 이에 따른 稼働率低下로 資金難等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業界의 全般的인 景氣振作을 위해서도 建築抑制施策의 緩和等 需要開發을 위한 對策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 서울市 望遠洞遊水池 周辺 9月까지 建築許可抑制

서울市는 望遠洞遊水池 周辺 25만坪에 對해 오는 9月까지 建築許可를 抑制키로 했다. 이 같은 建築抑制 措置는 이곳이 雨期에의 浸水予想地域일 뿐 아니라, 現在 設置中에 있는 揚水펌프 一台의 部品導入이 늦어짐으로써 雨期前 竣工이 不可能한데서 取해졌으며, 그 施設이 끝날 때 까지 建築을 制限하려는 것이다.

◇ 유관순 紀念館 竣工

지난 '64年 4月에 起工했던 梨花女高「유관순 기념관」이 10年만에 完工되어 3月 25日 奉獻式을 갖었다.

校庭 本館에서 南西쪽에 자리한 이 紀念館의 總建坪은 2,424坪으로 地上二層, 地下二層으로 座席 2,200의 劇場, 小講堂, 로비, 도서관 等を 갖추고 있다.

◇ 第23回 国展 建築部門 入選作 発表

国会議長賞에 「歴史広場計劃案」

그동안 毎年 가을에 개최해 오던 国展이 23회가 되는今年부터는 4部門으로 나누어 봄과 가을 두 차례로 열리게 되었다. 第1部門은 東洋画, 西洋画, 彫刻, 구상. 第2部門은 東洋画, 西洋画, 彫刻, 비구상. 第3部門은 書芸, 사군자. 第4部門은 工芸, 建築, 사진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第2, 第4部門은 봄에, 第1, 第3部門은 가을에 열리게 된다.

第4部門 建築 入選者와 作品名은 다음과 같다.

① 入賞 (50만원)

国会議長賞

歴史広場計劃案…申基哲, 閔相基, 李正萬, 金元中, 金顯植, 金振宇, 金億, 이승전, 申東雨(合作)

文公部長官賞(30만원)

都市型 高等学校 工提案…金聖米, 閔卿植

推薦作家賞(60만원)

H 大校本館 및 美術大學…羅相紀

② 特選

組立과 住居空間 構想…鄭寅國, 朴圭弘, 金布, 徐警鍾.

民族文化 의 殿堂…金性東

太陽에너지 利用한 農村近代化…宋明奎, 李鍾鎬

③ 入選

国民學校計劃案…宋在昇, 文建榮

建築工房…鄭東明, 金正新, 殷孝相

協業化를 위한 農村集合住居…李昌馥, 李圭哲, 方承大.

질송, 分散農家 集村化計劃…金鎮東, 金英敏, 文翊柱.

우리美 再構成을 위한 空間計劃…朴炳哲, 柳在性, 孫榮煥

석남요육원…金炯基, 方承大, 李圭哲, 李炳德, 李昌馥.

身體 障礙者 自活村計劃案…林長烈, 崔榮權, 金元一, 鄭成吉.

인삼재배를 위한 새마을…林恒澤, 李龍益

市政文化센터…金文憲

民俗工芸를 위한 竹細 마을 団地計劃…李在甲, 김광현, 김성호, 정동우, 안찬영.

統營傳來工芸技術開發村…徐眞哲, 朴賢緒, 朴敬三.

내촌마을 組立住宅計劃案…李在斗.

審査委員名單

金在哲, 姜明求, 金熙春, 金壽根.

◇ 美 하와이 大學에 「韓國學研究센터」新築 設計는 鄭寅國, 羅相紀氏가 担当.

美 하와이 大學에 韓國學研究를 專担할 韓國學 研究센터가 新築된다.

5月15日 着工, '75年10月 竣工. 이 韓國學研究센터는 文敎部가 42만 달러를 補助하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募金으로 建立費를 마련, 하와이 大學 理事會 決議를 거쳐 設立하는데 이 建物は 하와이移民 70周年 紀念事業의 一環으로 建立되는 것인데 同 建物の 設計는 弘益大學校 鄭寅國 羅相紀 두教授가 担当했다.

◇ 民間業体の 集團住宅 建設 建設部에서 工事 監督

1백戶 以上の 庶民住宅을 集團建設하는 民間業체에 對해 國民住宅資金을 支援키로한 建設部는 이 業体에서 建設하는 住宅은 建設部の 工事 監督 을 거쳐 建設部 承認 價格으로 一般에게 분양케 될 方針 이라한다.

또한 4月16日, 建設部 當局에 依하면 今年에 처음으로 50억원 限度內에서 支援하는 年利8%의 國民住宅資金이 一部 業者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不突工事 發生을 防止키 위한 것으로서 集團住宅 의 建設에는 반드시 必要한 附帶施設 및 福祉施設을 갖추도록하고 25坪以下の 坪數 制限을 엄격히 지켜도 록 할 方針이다.

◇ 4層以上 高層建築物 實態調査

建設部, 駐車場, 消防, 待避室 等 附帶施設 重点診斷

建設部는 全國의 4層以上 建築物 約5千棟을 對象으로 高層建築物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關係法規에 違背되는 建築物에 對해서는 施設補完 및 改修보우하고 再改築이 不可能하고 위험도가 높은 建築物은 撤去토록 할 方針이라고 한다.

한편 既存 高層建築物 에 對한 이번 綜合 實態 調査에서는 建築物의 構造 設備 用途 空地 實態 等 法規로 規定하고 있는 附帶 施設等에 重點을 둔다고 하며 특히 駐車場 消防施設, 緊急待避 施設等을 우선 診斷 對象에 넣기로 했다.

한편 診斷 結果에 따라

① 施設補完 對象, ② 改築

③ 撤去對象 等を 区分하여 整備하고, 關係法規上 施設 未備點은 없으나 許可없이 建築한 建築物에 對해서는 行政的인 措置를 한 후 陽性化해 줄 方針이라고 한다.

◇ 아파트 名稱 外來語 使用 規制 (民族主体 意識 涵養 爲기)

서울市는 아파트 名稱의 外來語 使用을 規制하는 方針을 세우고 5月1日 부터 新築되는 아파트는 모두 우리 나라 固有의 名稱을 붙이도록 했다. 이같은 措置는 民族主体意識의 涵養과 庶民生活과의 거리 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建築되는 아파트는 許可申請 時 名稱을 決定 제출토록 했으며, 既許可된 아파트나 既存 아파트도 그 名稱을 改稱토록 권고 是正토록 했다. 그러나 外國人 아파트의 경우는 이 方針에서 除外된다.

◇ (新工法) 建築部材別로 切斷, 빌딩解体 開發.

都市 再開發事業이 활발해 爲에 따라 老朽 빌딩의 解体를 振動 없이 騒音도 없이, 그리고 콘크리트가 飛散되지 않도록 한 工法이 日本의 戶田建設에서 開發했다. 이 工法은 스텝벽, 樑, 기둥 等 部材別로 TACS型, TACH型, TACD型 等 3種의 切斷機를 使用하는데 現場에는 放音裝置가 붙어있어 切斷에 의한 騒音輕減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建 議 書

제출처: 1. 건설부장관 2. 보건사회부장관

오물 청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건축허가 사무 취급에 대한 건의

1. 액상물 폐기 정화조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수 시설로서 그 설계는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 장관에게 사무실 개설을 등록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건축사법(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1974. 2. 8 보건사회부령 제 434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는 "오물 청소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액상물 폐기 정화조의 경우 건축사는 설계업자의 등록 대상에서 조차 누락되어 있는 반면 건축기술자 등이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건축사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3. 전기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을 근거로 서울시 및 산하 직 구청에서는 74년 5월 2일에 만 243건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는 등 건축허가 사무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같은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4. 전기 오물청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오물에 의한 공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사료되는 바 이러한 목적은 동 시행규칙 제10-16조에 상세하게 규정된 시설의 설치기준을 설계 및 시공면에서 성실히 이행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5. 전기 시행규칙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오히려 시공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으며,
6. 건축부문에 있어서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시공은 건설업 법에 의한 건축기술자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액상물 처리 시설의 설계 및 시공도 설계와 시공을 각각 분리 담당시키는 것이 상당한 조치일 뿐 더러 이러한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사료됩니다.
7. 따라서 전기오물 청소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는 동시에 전기 시행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대로(74. 5. 1 이전) 건축허가 사무를 취급하도록 긴급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내용

- 제18조: 「종말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등록 요건」 중 "설계"의 삭제
 「액상물 폐기 정화조의 설계, 시공 또는 그 청소」 중 "설계"의 삭제
- 제19조: 「분뇨 종말 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중 "설계"(2개소)의 삭제
 (별 표) 「종말 처리 시설등의 설계, 시공, 청소업자의 등록요건」 중 "설계"의 삭제
- 별표의 1호: 업자의 종별
 「분뇨 종말 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중 "설계"의 삭제
 기술능력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의 삭제
- 별표의 2호: 업자의 종별
 「쓰레기 종말 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중 "설계"의 삭제
 기술능력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의 삭제
- 별표의 3호: 업자의 종별
 「액상물 폐기 정화조의 설계, 시공업자」 중 "설계"의 삭제

1974. 5. 3.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한 창 진

月間動靜

倫理委員會

4月4日 本會會議室
出席：委員長 李圭福, 委員 安昌洙, 韓琬洙, 尹箕炳, 韓鼎燮.

〈主要議案〉

1. 江原道支部 소속 김영복 회원의 명의 대여 행위에 관한 건.
2. 釜山市支部 소속 김동주 회원의 二重職 및 명의대여 행위에 관한 건.
3. 釜山市支部 소속 박중석 회원의 명의대여 행위에 관한 건.
4. 慶南支部 소속 김영복 회원의 二重職 및 명의대여 행위에 관한 건.

〈8回〉 理事會

4月11日 10:00~ 本會會議室
出席：會長 韓昌鎭, 總務理事 金枝泰, 理事 李春相, 李圭福, 李明煥, 吳雄錫.

〈主要議案〉

1. 倫理委員會 決定 事項 수락에 관한 건.
2. 1974年度 第一回 臨時總會 開催에 관한 건
3. 其他事項.

〈第1回〉 臨時總會

4月13日 (土) 10:00~ 17:00
建設協會 大講堂
出席代議員 142名 (182名中)

〈會順〉

1. 開會
2. 國民儀禮
3. 開會辭
4. 來賓祝辭
5. 前回會議錄 通過
6. 業務報告
7. 監查報告

8. 附議案件

第一號議案 1973年度 決算 承認의 件

第二號議案 가. 1974年度 歲入歲出 (一般會計) 第一回 追加 更正 予算 (案) 承認의 件

나. 1974年度 歲入歲出 (特別會計) 第一回 追加 更正 予算 承認의 件

9. 其他事項

10. 閉會

全國 事務長 講習會

4月22日, 10:00~17:00 本會會議室

臨席任員：會長 韓昌鎭, 理事 金枝泰, 李明煥, 李圭福.

受講者：(本會事務室) 盧炳健, 安義模, 趙祥圭, (서울支部) 高鎭鶴, 黃信淵, (釜山) 潘德鎭, (京畿) 朴贊英, (江原) 金昌南, (忠北) 表仲浩, (忠南) 金永允, (全北) 姜元昌, (全南) 金錦洋, (慶北) 李在化, (慶南) 金鳳烈, (濟州) 梁泰浩.

〈講習內容〉

1. 事業計劃 및 事業費 운용에 對한 講議.
(担当：李明煥, 李圭福理事)
2. 予算編成指針에 對한 講議.
(担当：建設部, 송형봉)
3. 追加更正 予算編成의 基本原則과 細部指針
(担当：盧炳健 處長)

〈第四回〉 編纂委員會

5月2日 16:00~18:00
本會會議室

出席：吳雄錫, 金仁錫, 馬春景, 劉熙俊, 俞景哲

〈主要議案〉

- 가. 前月号 合評의 件
- 나. 五月号 編輯計劃案의 件

〈第二回〉 大韓建築士協會 會館 建立準備 委員會

5月10日 14:00~16:30
本會會議室

〈主要議案〉

- 가. 會館建立 基金使用 承認의 件
- 나. 分科委員會 構成 및 分科委員長 選出의 件
- 다. 監事 選出의 件

● 會館建立準備委員會 名單

委員長 韓昌鎭
副委員長 金萬盛

① 總務分科委員會

委員長 李春相
委員 金斗燮, 金枝泰, 俞景哲, 尹商鳳, 李明煥, 李相哲, 鄭鎭億 (8名)

② 涉外分科委員會

委員長 宋寬植
委員 康普參, 金東珪, 尹希俊, 李根痒, 李圭福, 鄭銀溶, 蔡奎鎬, 崔錫珪 (9名)

③ 企劃分科委員會

委員長 崔昌奎
委員 康奇汀, 金圭泰, 宋啟求, 吳雄錫, 李長稷, 李興秀, 韓輔燮 (8名)
監事 金鍾敏, 李丞雨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 新入會員

宋基成

名 稱：凡都建築研究所
所 在 地：城東區반포洞113-1
登 錄 番 号：2-338 TEL: 54-0529
入 會 年 月 日：1974. 4. 2.

이성일

名 稱：성일건축연구소
所 在 地：中區會賢洞2街6
TEL. 24-4089
登 錄 番 号：1-593
入 會 年 月 日：1974. 4. 8.

李榮一

名 稱：三松建築社
所 在 地：冠岳區노량진洞70-6
TEL. 69-0680
登 錄 番 号：1-592
免 許 番 号：1-573
入 會 年 月 日：1974. 4. 11.

郭載滿

名 稱：재홍건축연구소
所 在 地：城東區신사동山79-9
TEL. 55-6811 交1505
登 錄 番 号：2-42
免 許 番 号：2-96
入 會 年 月 日：1974. 4. 17.

朴宰永

名 稱：신동아건축기술연구소
所 在 地：鍾路區鍾路二街39
TEL. 74. 3084
免 許 番 号：2-1545
登 錄 番 号：2-322
入 會 年 月 日：1974. 4. 19.

許明宰

名 稱：동방개발건축연구소
所 在 地：城北區안암洞5가104의50
TEL: 94-4868
免 許 番 号：2-1565
登 錄 番 号：2-340
入 會 年 月 日：1974. 4. 29

嚴 雄

名 稱：아세아항업건축설계공사
所 在 地：鍾路區수송동12
TEL. 74-8402
免 許 番 号：1-966
登 錄 番 号：1-594
入 會 年 月 日：1974. 5. 2.

李載珪

名 稱：중앙건축연구소
所 在 地：中區太平路2街305
TEL: 22-9742
免 許 番 号：1-300
登 錄 番 号：1-225
入 會 年 月 日：1974. 5. 2.

金雄政

名 稱：예일종합건축연구소
所 在 地：城東區청담洞127-2
免 許 番 号：2-1088
登 錄 番 号：2-339
入 會 年 月 日：1974. 5. 2.

李起範

名 稱：都市建築公社
所 在 地：城東區新沙洞467-2
TEL. 52-9600
免 許 番 号：1-1434
登 錄 番 号：1-577
入 會 年 月 日：1974. 5. 6.

● 事務所移転

張相翼

名 稱：세안건축설계사무소
移 転 地：성동구홍인동122(일신308호)
TEL. 54-7750
登録番号：1-550
移転年月日：1974. 4. 10.

이업섭

名 稱：이화건축연구소
移 転 地：관악구봉천동7-144
TEL. 68-5249
登録番号：2-298
移転年月日：1974. 4. 10.

朴祥秀

名 稱：수환건축연구소
移 転 地：마포구동교동138-34
TEL. 32-2138
登録番号：1-386
移転年月日：1974. 4. 10.

사윤창

名 稱：청화건축설계사무소
移 転 地：마포구마포동155-1
TEL. 32-9022
登録番号：1-71
移転年月日：1974. 4. 10.

金英錫

名 稱：綜合建築公社
移 転 地：성북구 구의동68-31
登録番号：1-68
移転年月日：1974. 4. 10.

李永熙

名 稱：희림건축설계사무소
移 転 地：종로구 당주동170-2
TEL. 75-4923
登録番号：1-395
移転年月日：1974. 4. 10.

趙南守

名 稱：六日建設技術公社
移 転 地：관악구봉천3동37-19
TEL. 68-1474
登録番号：1-179
移転年月日：1974. 4. 10.

朴鎮圭

名 稱：현대건축연구소
移 転 地：성동구천호동409-28
TEL. 55-8224
登録番号：2-292
移転年月日：1974. 4. 10.

尹汝麟

名 稱：正距建築設計事務所
移 転 地：冠岳区奉天洞376-17
登録番号：2-230
移転年月日：1974. 4. 10.

牟然興

名 稱：牟然興建築研究所
移 転 地：中区桃洞1가9-18
TEL. 22-0864
登録番号：1-181
移転年月日：1974. 4. 10.

李定根

名 稱：太平洋建築研究所
移 転 地：永登浦区登村洞398-14
TEL. 63-3883
登録番号：2-116
移転年月日：1974. 4. 10.

李正一

名 稱：범신건축
移 転 地：中区荏洞2가46-8
TEL. 26-7966
登録番号：1-470
移転年月日：1974. 4. 10.

孟星宇

名 稱：성우건축연구소
移 転 地：中区乙支路3가291-43
TEL. 26-3574
登録番号：1-516
移転年月日：1974. 4. 10.

卞錫章

名 稱：和雲建築設計事務所
移 転 地：中区忠武路2가62-1
TEL. 22-0136
登録番号：1-536
移転年月日：1974. 4. 10.

李泳萬

名 稱: 泳萬建築開發公社

移 轉 地: 城東區崇仁洞114

TEL. 53-9148

登錄番号: 2-323

移轉年月日: 1974. 4. 10.

姜知遠

名 稱: 영동건축연주소

移 轉 地: 영등포구화곡동381-12

TEL. 60-2933

登錄番号: 2-39

移轉年月日: 1974. 4. 10.

牟世鎰

名 稱: 牟建築研究所

移 轉 地: 城東區선사洞78-5

TEL. 54-3227

登錄番号: 2-174

移轉年月日: 1974. 4. 10.

申貞桓

名 稱: 大興建築設計社

移 轉 地: 西大門區 蛤洞111

TEL. 74-5764

登錄番号: 1-465

移轉年月日: 1974. 4. 10.

咸泳殷

名 稱: 한일건축연주소

移 轉 地: 상동구반포동113-1

TEL. 53-8936

登錄番号: 2-306

移轉年月日: 1974. 4. 10.

閉業會員

이기우

名 稱: 청송건축

所在地: 西大門區 駅村洞77-3

TEL. 38-5320

登錄番号: 1-138

閉業年月日: 1974. 4. 10.

임인혁

名 稱: 창일건축

所在地: 中區 戶교洞33-1

TEL. 23-6286

登錄番号: 2-18

閉業年月日: 1974. 4. 10

轉出會員(京畿支部)

유성종

名 稱: 금강건축공사

所在地: 종로구낙원동(낙원아파트606호)

TEL. 74-4138

登錄番号: 1-245

轉出年月日: 1974. 4. 10

資格更新(2級에서 1級으로)

金永德

名 稱: 韓國建築公團

所在地: 城東區 학洞 87-2

(강남 B.D. 301호)

TEL: 55-7511 교 1991

免許番号: 1-1425

登錄番号: 1-586

更新年月日: 1974. 4. 10.

延辰明

名 稱: 서울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中區 戶교洞 6

TEL: 28-6132

免許番号: 1-1415

登錄番号: 1-584

更新年月日: 1974. 4. 10.

釜山市支部

新入會員

李德一

名 稱: 무림건축설계공무소

所在地: 釜山市中區 忠武洞 2가 3-6

TEL. 22-5433

免許番号: 2-868

登錄番号: 2-201

入会年月日: 1974. 4. 22.

朴亨泰

名 稱: 동훈건축설계사

所在地: 釜山鎭區 가야洞168-10

TEL. 3-4262

免許番号: 2-1612

登錄番号: 2-202

入会年月日: 1974. 4. 22.

朴明洙

名 稱: 아세아건축설계 사무소
 所 在 地: 釜山鎮區대연동1741-6
 TEL. 6-0806

免許番号: 2-1604
 登録番号: 2-203
 入会年月日: 1974. 4. 22.

金東会

名 稱: 金東会建築研究所
 所 在 地: 東萊區広安洞 116~13
 TEL: 7-0878

免許番号: 2-1611
 登録番号: 2-206
 入会年月日: 1974. 4. 22.

金日守

名 稱: 아진건축설계사
 所 在 地: 釜山鎮區釜田洞 399~1
 TEL: 3-9289

免許番号: 2-1614
 登録番号: 부산진 2-67
 入会年月日: 1974. 4. 22

車元一

名 稱: 世明設計社
 所 在 地: 釜山鎮區釜田洞 264~25
 TEL: 3-1004

免許番号: 2-1492
 登録番号: 2-205
 入会年月日: 1974. 4. 22.

京畿支部

■ 新入会員

鄭鎭珉

名 稱: 이천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城南市新興洞182-8
 TEL. 2-0231

登録番号: 2-74
 入会年月日: 1974. 3. 31.

朴中基

名 稱: 현대건축연구소
 所 在 地: 水原市校洞65-3
 TEL. (수원) 4679

免許番号: 2-1536
 登録番号: 2-42
 入会年月日: 1974. 4. 15.

宋洙九

名 稱: 한송건축연구소
 所 在 地: 仁川市中區인현동10
 免許番号: 1-1224 TEL. 2-6023
 登録番号: (인천) 1-39
 入会年月日: 1974. 4. 15.

江原支部

■ 新入会員

朴載國

名 稱: 삼우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政鮮軍政鮮음봉양1리338번지
 TEL. (政鮮) 632

登録番号: (政鮮) 2-1
 入会年月日: 1974. 4. 8.

李贊浩

名 稱: 삼화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春川市中央路1가90-1
 TEL. 6049

免許番号: 2-1569
 登録番号: 춘천 2-2
 入会年月日: 1974. 4. 22.

忠南支部

■ 新入会員

李康鳳

名 稱: 李康鳳建築設計事務所
 所 在 地: 大田市大興洞504-5
 免許番号: 2-573

登録番号: 2-13
 入会年月日: 1974. 4. 22.

全北支部

■ 事務所 移転

金玟誠

名 稱: 協成建築設計事務所
 移 転 地: 全州市 中央洞 2街 39~1
 TEL: 2-4821

登録番号: 1-17

■ 新入會員

李相澈

名 稱：九美建築事務所
所 在 地：全州市慶園洞 1 街56-5
TEL. 2-7419
登錄番號：2-25
免許番號：2-1591
入會年月日：1974. 4. 11.

全南支部

■ 新入會員

趙春元

名 稱：大元建築設計研究所
所 在 地：光州市東區光山洞60
TEL. 2-2370
免許番號：2-62
登錄番號：2--40
入會年月日：1974. 5. 4.

李在範

名 稱：동방 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木浦市대안洞4
免許番號：2-1595
登錄番號：(木浦) 2-5
入會年月日：1974. 5. 4.

慶南支部

■ 新入會員

洪允錫

名 稱：연합설계사무소
所 在 地：마산시중앙동 3 가3
TEL. 6265
登錄番號：마산 2-9
入會年月日：1974. 3. 30.

姜宗馨

名 稱：현대 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진주시본성동82
TEL. 2449
登錄番號：(진주) 2-5
入會年月日：1974. 3. 31.

金性逸

名 稱：성일건축설계사
所 在 地：晉州市東城洞13-14
TEL. (진주)2262
登錄番號：(진주) 2-6
入會年月日：1974. 4. 8.

田宗浩

名 稱：성신건축설계사
所 在 地：울산시옥교동188
免許番號：2-1608
登錄番號：2-6
入會年月日：1974. 4. 29

朴周運

名 稱：제일건축설계사
所 在 地：마산시장군동 4 가26
TEL: 7-058
免許番號：2-1610
登錄番號：2-11
入會年月日：1974. 4. 29.

■ 商号変更 및 事務所移転

金衍浩

名 稱：(旧) 광장건축설계사
(新)성진건축설계사
移轉地：梁山郡梁山邑북부洞392-6
登錄番號：(양산) 2-1
移轉年月日：1974. 2. 21.

趙浩濟

名 稱：空間建築設計事務所
移轉地：慶南金海郡金海邑동상동 1 구896
TEL. (김해)52
登錄番號：(김해) 2-3
移轉年月日：1974. 3. 26.

◇人間은 여간해서 現實에 滿足 못하는 動物이다. 滿足 못하기에 發展이 있었다. 그 發展이 먼 훗날 우리를 滅亡시키더라도 人間을 위해서라는 大前提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19世紀부터의 産業革命 서부터 始作된 機械文明과 現來의 科學文明의 눈부신 發展들은 皮相의인 滿足과 感動을 가져 왔지만 人類를 害치는 公害도 같이 가지고 왔다.

◇더 맑고 깨끗한 人間環境의 創造者인 建築士들.

“이 環境創造라는 일을 天職으로 삼고 있는 建築士(家)들을 社會는 우습게 알고 저바리고 있지만 그들은 멀지 않아 建築家들을 切實히 必要로 하고 願할 것은 틀림없다”

이상은 崔昌奎氏의 “나의 建築觀” 中の 한 句節이다.

◇人類가 이래로 에너지 소비에 열중하고 資源발굴, 自然 파괴를 계속한다면 21世紀에는 地球가 沈沒하는 날이 올 것이란다?

다시 말해서 石油消費의 세계적 규모가 증가한다면 南北兩極의 氷板이 녹아서 海面이 10m나上昇하게 되어 地球의 절반 이상이 沈下해 버린다는 5月12日 宇 모 주간誌의 記事.

과연 人類의 運命과 地球는 어떻게 變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自然 環境을 가꾸는 우리 建築人들에겐—.

◇이번 冊에는 멀리 佛蘭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姜錫元氏의 「佛蘭서 建築士 環境資料 紹介」를 게재하였다. 紙面을 빌어 深深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建築界의 來日」이란 特輯과 「나의 建築觀」은 이번 冊의 金수성찬이라 하겠다.

◇그 밖에 「改正建築法의 方向……」을 집필하신 建設部 建築課 金永哲 係長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建築士

發行人兼 編輯人 : 韓 昌 鎮

登錄番號 : 第 라-1251 号

登錄日字 : 1967年 3月 23日

通卷 第65号 1974年 5月 31日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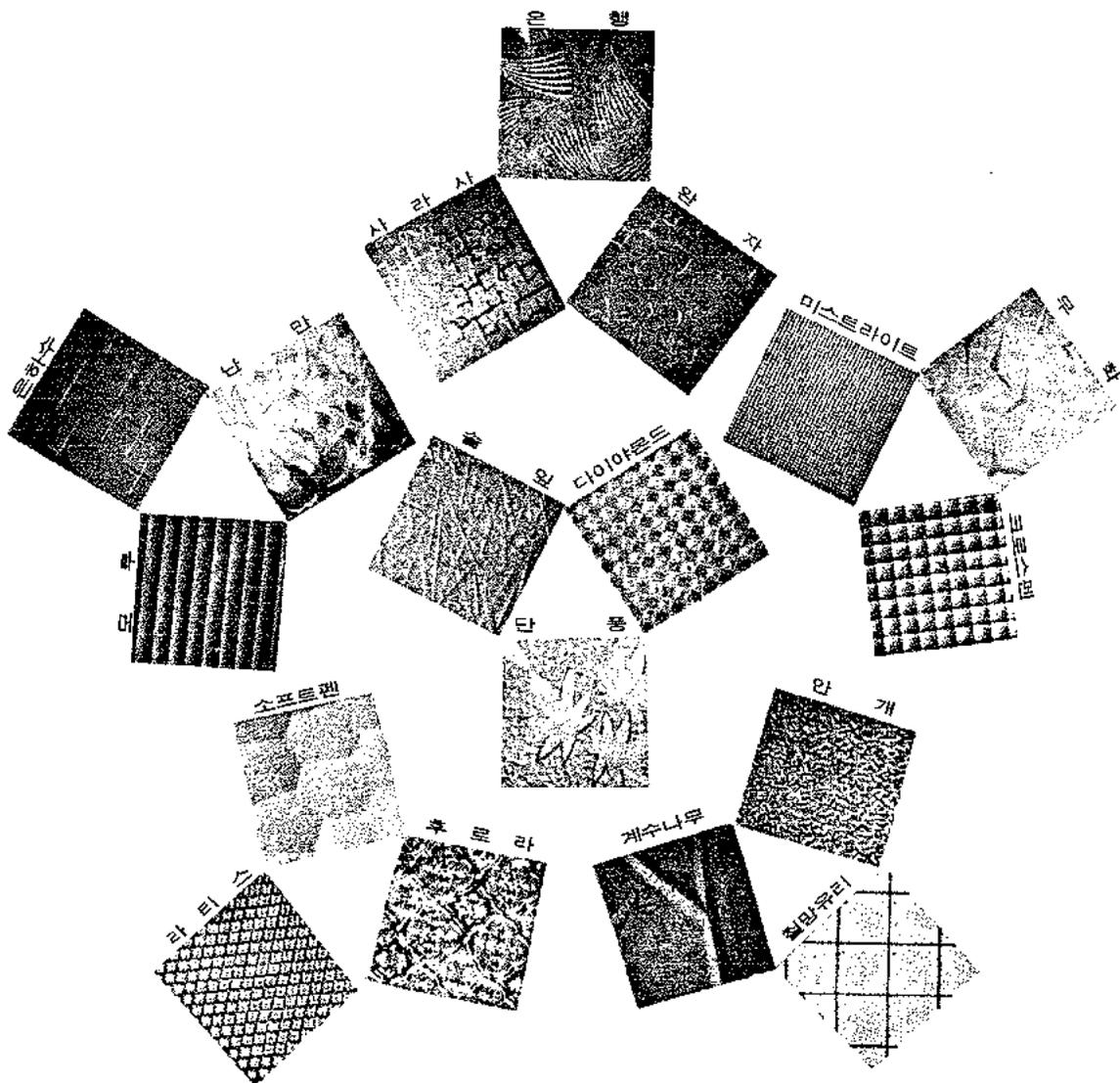
發行所 : 大韓 建築士 協會

서울 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7

☎ (73) 9491, 9492

印刷所 : 高星 文化 印刷 株式 會社

〈非 賣 品〉



선생님이 설계하시는 취향에 알맞는 다양한
무늬유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선택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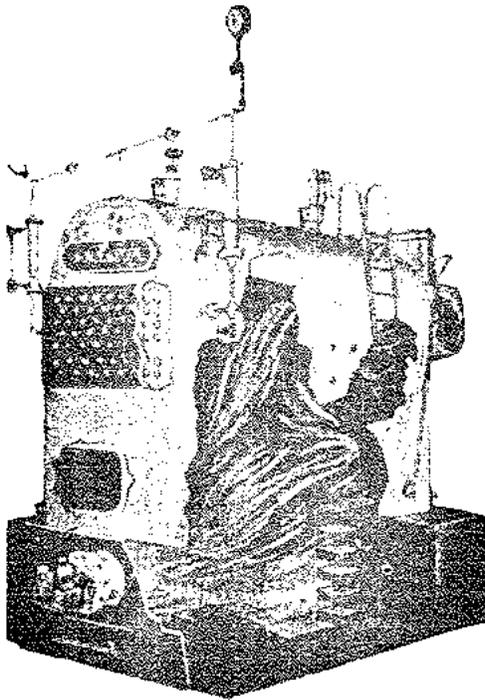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 : 서울 特別市 西大門區 西小門洞 75 / 電話 : (23) 7141~45
工 場 : 仁川市 東區 萬石洞 2 / 電話 : 仁川 (3) 0111~0119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 9497 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效率이
좋고 燃料가 현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場、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 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學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 | | | | | |
|----------|----------|-----------|----------|----------|
| 大韓住宅公社 | 三岡産業 Co. | 大韓染織 Co. | 호수호텔 | 京畿農産 Co. |
| 시온제과 Co. | 仁川團藝組合 | 同和藥品 Co. | 韓獨商社 Co. | 廣日빌딩 |
| 自由선 타 | 國防部建設本部 | 柳韓洋行 Co. | 聖바오루病院 | 韓國洋灰 |
| 産業銀行 | 春川聖心大學 | 韓國유리 Co. | 大興심유 Co. | 麗水觀光호텔 |
| 大田皮革 Co. | 美八軍洗濯所 | 韓國나일론 Co. | 聖心綜合病院 | 第一病院 |
| 서울여자學院 | 大韓體育會 | 大韓골크 Co. | 大韓生命保險 | 自動車保險 |
| 韓一染色 Co. | 大韓重石 Co. | 清溪商街아파트 | 公務院訓練院 | 새한빌딩 |
| 世宗호텔 | 宇盛化學 Co. | 大韓造船公社 | 林業試驗場 | 江原道庁 |
| 中央産業 Co. | 東洋紡織 Co. | 울림포스호텔 | 南大門警察署 | 韓獨産業 |
| 釜山鐵道廳 | 首都醫附屬病院 | 응당산호텔 | 大韓産藥 | 韓國산토리 |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④ 1673 ④ 9775-6

(용산구청앞)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TV, 냉장고 보다 앞서야 할 수세식변소!



15인용에서 3,000인용 이상에 이르는 수세식 탱크

유일 프라스틱 SET 정화조 유일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

서울特別市 정화조설계시공업등록제 5호
대구시 정화조설계시공업등록제 5호

■ 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주택공사 반포아파트, 현대건설, 대림산업, 서울대학교, 삼풍건설, 남광토건, 신성공업, 삼익건설, 세대건설, 신동양건설, 신일토건, 한신공업, 신양사, 대성건설, 삼명건설, 세일건설, 국내건설, 동남건설, 건창기업, 정우개발, 한양주택개발, 대륙토건, 고려건설, 신성건설, 대한항공, 국방부, 제일복장, 한국가구공업, 범양 DAIKIN, GREEN TENIS CLUB, 삼양라면, 삼립빵, 한양칸트리클럽, WALKER HILL, 항공대학, 울산카프로락담, 한독맥주, 포항종합제철, 美 K-55 비행장 B. O. Q. 대한중외제약, 삼아약품, 백광약품, 호남정유, 한국화약, 태평양화학, 해태유업, 국진기업, 경북공, 덕수공, 주한호주대사관저 및 전국일원의 일반주택.



정화조의 설계 · 시공 · 판매원

裕一淨化槽工業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 3 街 95 的 12

■ 본사 및 서울직매장 : 26-6421, 27-6421, 26-5701, 5702, 0811

부신직매장 : 3-8898, 3-3989

대구직매장 : 2-8763, 3-9981

■ 地方代理店 : 대전 (한일스프링사) 3-2569 · 마산 (한국양회공사) 2734
제주 (대한건설사) 2486